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이 아 리 따



## 초 록

이 연구는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관심이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첫째, 대개 40대 후반에서 늦게는 60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전이기에 주목해 취미교실이 이 시기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둘째, 여러 취미교실 가운데 특히 동사무소 및 지자체 운영 취미교실을 교육의 눈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주부’들의 취미교실 참여가 “단지 취미”로 해석되는 것, 특히 “아줌마들의 소비적 취미”로 쉽게 단정되는 “아줌마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 전국적 분포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은 공적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셋째,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교육’을 성찰하고자 했다. 나는 이 같은 연구 관심, 연구 목적을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두 취미교실(기타, 요가)에 참여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기타교실에서 50대 여성 2명과 60대 여성 1명, 요가교실에서 50대 여성 1명이 주 연구참여자가 되었다.

나는 우선적으로 취미교실에서의 활동이 내가 만난 중년 여성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체험적 측면을 알고자 했다. 어떤 이유로 취미교실을 찾았는지, 취미교실에서 얻는 즐거움 혹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취미교실 참여와 관련해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폈다. 그 결과,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 각각이 삶의 맥락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취미교실을 찾게 되고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의미 부여나 계획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취미교실 체험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피기 위해 두 가지 분석틀을 활용해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삶의 주제를 발견키 위한 현상학적 실존체다. 또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체성, 교육, 취미교실에 대한 태도, 인식, 감정 등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여, 차연(差延, *différance*)을 두 번째 분석틀로 참고했다. 우선, 현상학적 실존체로 이야기 주제를 살핀 결과 나는 신체와 관련해 “나이 때문에”를, 시간과 관련해서는 “하는 거 없이 바빠”를, 공간과 관련하여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를, 끝으로 관계와 관련해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 주제로 꼽았다. 두 번째 차연을 활용한 분석에서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엄마”와 “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오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는 일정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이 인상적

이었다. 하지만 중년의 홀로서기는 “나”가 중심이 되는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이들이 “나”-“여성”-“엄마”의 조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해 또한 이들이 어떤 맥락을 전경에 두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나는 통상적, 상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교육을 그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필요 없음”, “두려움”, “재미 없음”이 교육을 대하는 세 가지 공통된 태도였고, 이는 “나이 듦”, “아줌마”라는 자기 이해, 교육을 평가 중심, 결과 중심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 하지만 이들은 취미교실에서의 체험에 기반해 “선생님이 중요해”, “결국은 나의 몫”, “시간이 필요한 과정”, “어려워도 재미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끝으로, 취미교실 참여방식은 참여자들이 일과 취미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을 삶의 전경에 두고 있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들이 일 혹은 가정을 전경에 둘 때는 비지속적, 수동적 참여방식이 나타나며, 취미가 전경에 올 때 지속적, 능동적 참여방식이 나타난다. 일에서 성취감을 찾기 어려운 고용 구조, 직장문화 그리고 가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가정문화는 이들이 취미를 전경에 두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도피처로서 취미교실을 찾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해소하지 못한 갈등을 취미를 통해 얻은 체험은 계속하여 이곳을 “내가 즐거운 장소”로서 찾게 만든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적, 지속적으로 취미교실을 삶의 한 부분으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취미는 학습의 성격을 가지며, 취미교실은 교육의 장소가, 이곳에서의 관계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맥락에서 나는 ‘중년 여성’, ‘취미교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및 제언을 했다. 이는 여성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차원 그리고 삶을 문화와 교육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교육인류학의 차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교육학 연구들 다수가 이들을 문제 해결 대상자 혹은 프로그램 기능 검증을 위한 도구로 접근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해석의 중심에 놓였다. 선행연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생애 과정은 가족 발달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막연하게 취미교실의 교육적 의미를 증명하고자 했던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애 과정에서 취미교실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취미교실에서 이들은 “모르던 것에 도전하고 알게 되는” 체험을 한다. 이를 통해 “나이 든 사람”, “여생을 사는 자”,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 “학습자”, “도전자”, “수행자”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곤 한다. 중년의 ‘홀로서기’는 이러한 체험과 상호지지의 관계를 맺는다. 물론, 여성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스스로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꼭 취미교실일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엄마’, ‘나’, ‘여성’인 그녀들이 자신의 다른 정체성 때문에 소

외당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취미교실은 하고 싶었으나 못 했던 것들을 늦은 나이에 시작할 때,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취미교실의 장점은 이곳에 대한 불만,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즉, 수업 내용 및 방식의 비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장점이 될 때는 “유연함”, “부담 없음”으로 해석되며 이곳을 찾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감”, “수준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서 따라가기 어려움” 등의 불만 역시 “동사무소 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평가를 위한 교육,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음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에 교육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취미교실이 특정 장소,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문화를 반성함과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는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통해 교육에 대한 나의 이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리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선생님이 중요해”라며 교육의 교수-학습 관계를 강조했고, “결국은 나의 몫”이라며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당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의 시숙(ripening time)으로서의 면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교육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도 재미있는 것”임을 그들은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다. 관계적 성격, 과정적 성격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 지평이 확장되는 존재론적 성장이라는 내용적 성격은 교육의 요건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해석/실천 자체가 기존의 이해를 허물고, 새로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배웠다. 그리하여 교육학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그 자체로 교육적 체험이라는 점을 배웠다. 연구참여자들은 수동적 취미, 소비적 학습으로 만족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 취미, 생산적 학습의 방식으로 취미교실 참여 태도가 변화되곤 했다. 교육을 특정 장소, 대상에 한정 짓는 문화는 이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지만 좀 더 나에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의 지지와 자극은 취미교실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다. 그것을 두고 이들이 ‘교육’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를 낫설어 한다면, 교육학도인 나의 몫은 그 낫섬의 이유를 살핌으로써 좀 더 많은 삶의 상황에서 삶과 교육이 함께 하는 길을 탐색하는 것일 테다.

주제어 : 중년 여성, 취미교실, 여성 평생교육, 존재론적 교육, 교육적 체험.

학 번 : 2009-21421



# 목 차

<b>I. 연구의 시작</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이론적 지평 .....	7
3. 선행연구 개관 .....	18
4. 연구문제 .....	25
5. 연구방법 및 과정 .....	28
<b>II.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이야기</b> .....	<b>37</b>
1. 이지영의 이야기 :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	38
2. 김혜숙의 이야기 : “혼자 노는 법을 배우려고 왔어” .....	48
3. 최옥희의 이야기 :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돼” .....	57
4. 조문선의 이야기 : “배우는 데 별로 흥미 없어” .....	63
<b>III. 이야기 들여다보기</b> .....	<b>74</b>
1. 내러티브의 주제 .....	75
1) 신체 : “나이 때문에” .....	75
2) 시간 : “하는 거 없이 바빠” .....	81
3) 공간 :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 .....	86
4) 관계 :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 .....	95
2. 내러티브의 차연 .....	104
1) 정체성의 차연 .....	104
2) 교육의 차연 .....	112
3) 취미교실 참여방식의 차연 .....	125
<b>IV. 이야기를 만난 이야기</b> .....	<b>136</b>
1. ‘중년 여성’으로 살기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해석 .....	136
2. 교육장소로서의 취미교실에 대한 상황분석 .....	147
3. 취미교실에서의 두 가지 ‘참여’ .....	154



V. 글의 끝에 선 시작 .....	165
1. 요약 및 결론 .....	165
2. 못 다한 이야기 .....	169
참고문헌 .....	179
Abstract .....	185

## 표 차례

<표 1> 주 연구참여자의 특성 .....	35
<표 2> 주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 비교 .....	72
<표 3> 취미교실 참여 목적에 따른 차이 .....	124
<표 4> 일, 취미, 가정의 두 가지 의미 .....	131
<표 5>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 .....	160

## 그림 차례

<그림 1> 교육인류학의 삼각형 .....	9
<그림 2> 일-취미-가정의 관계 .....	129
<그림 3> 조문선의 일-취미-가정 .....	129
<그림 4> 중년 여성의 정체성 .....	146



# I. 연구의 시작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의 조화로 이루어진 삶의 순간들은 언제든 과거에 있었던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 그리고 미래에 있을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삶의 장면들 가운데 내 연구의 주제가 된 하나의 장면, 그 선택의 필연성을 나는 우선적으로 내 삶을 통해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우는 어머니<sup>1)</sup>, 일본어를 배우는 어머니, 요가를 배우는 어머니,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어머니, 발리 댄스를 배우는 어머니를 봐 온 나는 그런 어머니가 늘 좋아보였다. 나와 내 동생이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어머니의 ‘바깥나들이’가 시작되었다. 일본어를 배울 때는 학교에 가는 우리를 배웅하면서 “사요나라”라고 인사를 했고, 볼링을 배우면서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오른쪽 팔부터 목까지 디스크가 와 몇 달을 치료받아야 했다. 그런가하면 몇 년 전 금강 둔치에서 열린 작은 축제 때 환한 조명을 받으며 멋지게 춤을 추는 어머니의 모습에 나도 언젠가 춤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주중에는 하루도 뭘 없는 날이 없어.”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즐거운 바쁨이 묻어났다. 따로 떨어져 사는 큰 딸이 어쩌다 집에 와있는 날이 아니라면 어머니는 당신의 일정을 꼬박꼬박 성실히 소화했다. 그리고 최근, 둘째 딸마저 품을 떠나자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며 또 다른 배울 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스물하교도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로서만 어머니를 봐왔음을 최근에야 알았다. 나는 어머니의 다른 이야기들, 예컨대 위에서 말한 어머니의 취미활동들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엄마’이지만은 않은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마주하는

---

1) 이 글에서 나는 ‘어머니’라는 표현과 ‘엄마’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엄마’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을 지칭할 때 사용했다. ‘어머니’는 연구자인 나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또한 나는 이 글에서 엄마, 교육 등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표현할 때 ‘ ’, “ ”를 통해 의미를 구분했다. ‘ ’는 학문적 맥락에서 개념어로 사용될 때 혹은 일상적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했다. 처음 등장할 때 혹은 얼마간의 내용 단절 후 재등장할 시 ‘ ’를 붙였고, 이어지는 경우에는 ‘ ’ 없이 썼다. “ ”는 연구참여자의 말에서 따왔을 때 사용했다.

것, 의문을 품어보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에는 무척 게을렀다. 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계기가 생겼고, 그제야 어머니의 다른 이야기들이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건 내게 아픈 사건이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건 내가 '선택'했던 무관심, 이기심과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여러 선진들의 글을 접하며, 나는 삶과 사람들, 관계들을 이해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배웠다. 어떤 작은 선택도 '그냥'은 없다. 그를 둘러싼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과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힘들 그리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행위주체로서 개인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삶의 무게와 깊이 앞에서 나는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때때로 희망을 품었다. 무기력함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찾는다. 삶이 나를 덮쳐올 때 무기력해지고, 삶이 나의 편에 있다고 느낄 때 희망이 생겼던 경험 속에서, 나는 세계와 나의 연결됨을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나의 문제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연결하는 과정과 그렇게 해서 찾는 해결책들이 무기력함에서 나를 구해줄 희망임을 배웠다. 여성 평생교육이라는 사회적, 학문적 문제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딪혀야 했던 아픔과 연결되면서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이어진 건 일련의 이러한 과정 덕분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 담론'은 학교교육, 제도교육을 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하다. 장상호(2005)의 비판처럼 학교태(schooling)와 교육을 동일시하는 오류는 '교육다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학교교육 담론만이 아니라, 조용환(2001)이 지적하듯 자원인구담론, 국가발전담론, 기능주의 담론과 같은 비교육적인 담론들도 교육의 의미를 훼손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러했기에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은 취학률과 문해율, 고등 교육 진학률 등 눈부신 성과를 낳았다.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성, 계층에 상관없이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남성을 앞질렀다(교육통계, 2009). 그러나 교육이 단지 학교교육, 제도교육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교육이 실제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은 '숫자'로 답을 대체해선 곤란하다.

통계를 통계로 대응해 지금의 현황을 성(gender)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취업률과 임금은 남성에 한참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취업 여성의 출신 전공은 의학, 약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간호, 비서, 유아교육 등 소위 전통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한국통계청, 2011). 이러한 현실은 비단 제도교육, 학교의 맥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에 있어서의 성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나윤경(2007)은 학교 밖의 교육기관들, 평생학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대상의 교육이 기존의 남녀 역할분리에 의존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직업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며, 여성들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

위의 비판들은 남성 중심 고용 구조와 인식이 여성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한편 이러한 비판이 좀 더 여성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학교와 같은 형식교육이외의 비형식교육의 장, 혹은 무형식교육의 장<sup>2)</sup>은 연령, 계층, 학력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겪는 교육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안정화와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사무소,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 다양한 평생학습관<sup>3)</sup>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부들이 주 참여자라는 특징이 있다. 나의 어머니 또한 평생학습관의 오래된 팬이라고 할 수 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평생학습관의 각종 취미 교실이 여성들의 일상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활동의 질을 교육의 맥락에서 고민하는 학문적, 학문외적 시도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을 뿐,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선행연구들 중에는 활동 각각의 기능성을 평가,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 조사 연구가 많았다. 그렇지 않고 활동의 의미를 참여자의 삶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경우는 많지 않다.

어머니의 취미교실 체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는 중년 여성에 대한 주목 또한 필요하다. ‘중년’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정의가

2)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무형식학습이라 일컫는다(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09).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존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생교육기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다른데, 나는 선불리 한 개념을 받아들여 그를 통해 어머니와 연구참여자들을 규정짓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대신 내가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전환기적 특징에 주목해 연구참여자를 찾고, 이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중년 여성’이라는 범주를 잠정적이거나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 자녀들의 독립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변화 등을 개인의 사적인 전이가 아니라, 연령·성·가족·사회 등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까닭이 있다. 동시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년 여성과 관련된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며, 또한 어떻게 그들의 삶과 괴리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줌마 담론이다. ‘아줌마’가 사회현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용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오면서 아줌마는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지고”, “사치스럽거나 궁상떨고” “더 이상 여자가 아닌” 존재를 뜻하는 단어로 회자되었다(김은실, 2003; 이숙경, 2001) 이른바 “3포족(우아함, 여자이기, 부끄러움 세 가지를 포기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 같은 비하의 태도는 일상의 호칭문화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진 개인이 사라지고, 연령과 성으로 추상화된 나이 든 여성들을 우리사회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줌마 담론은 개인적 취미 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여성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맞물리면서 여성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물론 개인의 취미에 머문 채 사회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짚어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어떤 이유로 평생교육 기관을 찾게 되며, 그 곳에서 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관해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성과 연령으로 추상화된 아줌마가 다채로운 색깔의 이야기를 갖기 위해서는 거꾸로 성과 연령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아줌마 담론은 ‘중년’과 ‘여성’이 처한 주변적 위치를, 특히 ‘중년 여성’을 대하는 거친 외적 평가와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여성 평생교육이 교육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진 연구라면 우선적으로 중년 여성을 피상적인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줌마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줌마이기를 저항하고, 아줌마로 설명되기를 주저하면서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아줌마가 되기도 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교육에 대

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른다.

‘중년 여성’과 ‘취미교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미교실 참여가 나의 연구 문제로 연결된 또 하나의 ‘고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The everyday work of art*)』(2001/2009) 이라는 책을 서술한 에릭 부스(Eric Booth)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는 특정 장소와 전문적 기술이 예술가 혹은 예술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대신 그는 예술(art)의 어원이 ‘짜 맞추다’는 동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삶 속에서 빈번히 행해질 수 있는 활동들도 짜 맞추어 조화로운 표현을 도모하는 가운데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맥락에서 “예술이란 삶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뜻한다. 그는 예술이 본래적 의미를 되찾아 많은 이들의 일상이 예술로 거듭남으로써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저자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내가 갖고 있는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과 무척 닮아있다. 나는 소위 전형적이라 할 만한 입시 교육 속에서 십대를 보냈다. 그리곤 대학에 들어와서야 유예되었던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저러한 갈등과 혼란으로 지칠 때마다 나는 내 모든 문제의 탓을 입시 교육과 그런 교육관에 젖어있던 학교로 돌렸다. 결국 나는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갈증,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원망하는 ‘교육’이 교육의 모든 것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이 일상적으로 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와 동시에 그 이야기가 비슷한 자리를 맴돈다는 느낌에 답답했다. 교육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내 문제 아님’이 되어버리는 게 안타까웠다. 그리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교육은 문제가 된다. 이러저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에 대해 꽤 정확한 비판을 하면서도 대부분은 다시금 ‘교육 경쟁’의 대열에 휩쓸린다. 나라고 다를 수 있을까 싶었다.

어머니와 취미 교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교육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을 자연스레 떠올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취미 교실 체험을 교육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일은 무척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젊은 애들을 위한 것”,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익숙한 교육의 이름들로써 어머니의 체험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엄마, 그것만이 교육은 아니야.”라며 선불리 어머니의 체험에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교육’이라 이름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대화 중간 중간 부딪혔다. 교육에 관한 대화가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길 처지가 아니었다.

교육에 관한 진지한 대화는 목적을 갖는 대화다. 그것은 묻고 다시 묻고 답하고 다시 답함으로써 ‘교육다운 교육’에 다가감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관행을, 교육에 관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이를 통해 ‘교육다운 교육’을 모색해가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이름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에 대한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학교 중심, 제도 중심, 특정 연령 중심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 문화적 범주 밖의 사람들은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학교와 제도와 특정 연령이 아니어도 자신들이 체험한 배움과 성장은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지금의 교육의 의미를 다시 따져 물어야만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말들의 향연 속에서 나는 말해지지 않는 것,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을 둘러싼 일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교육다운 교육’의 의미를 탐구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며,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나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궁금했다. 어머니를 비롯한 중년 여성들의 취미교실 활동은 정말 누군가들의 비판처럼 ‘중산층 아줌마들의 개인주의적인 취미’에 머물 뿐인지. 의심스러웠다. 이 활동을 ‘취미’다, ‘교육’이다, 라고 판단하는 외부의 규정이 당사자들이 겪는 체험,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타인이 이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체험의 주체인 중년 여성들의 맥락에서 취미교실 활동이 갖는 의미를 촘촘히 살핀다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를 통해 중년 여성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평생교육시설’이자,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공적 평생학습관인 지자체 운영의 취미교실을 교육의 눈으로 살필 수 있다면 어떨지. 사실 그 무엇보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취미교실에서 다양한 무언가를 해 온 어머니의 삶, 그 삶의 무게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다. 좋은 딸이 되는 것과 좋은 교육학도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연구문제를 통해 무기력함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줌마’라고 불리는 중년 여성들과 함께 그들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의 의미를 묻는 여정을 선택해야 했다.

## 2. 이론적 지평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의 연속으로서 내 삶의 길에 놓여있는 이 여정은 그러므로 분명한 시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의 배경에 놓여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호기심(好奇心)과 상심(傷心)을 키워 구체적인 질문의 모습으로 드러난 시점을 여정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시작의 지평이자 여정의 안내가 되어 줄 이론적 지평을 살펴려 한다. 이들은 어머니에서 시작된 나의 아픔이 중년 여성과 취미교실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 그 고리들에서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로 소개될 ‘질적 연구와 교육인류학’은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와 관련이 깊다. 또한 두 번째로 소개될 ‘내러티브 연구’는 나와 세계의 상호작용 및 교육에 관한 이야기하기의 가능성을 살피는 고리로 중요하다. 끝으로 살펴볼 ‘여성 평생교육의 지평’에서는 나의 연구참여자와 연구 현장이 놓인 사회적 위치를 가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선이해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질적 연구와 교육인류학

무수히 많은 현상들을 길들이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문화(文化)라 한다면(조용환, 1997), 고민을 질문으로 다듬는 과정도 연구자의 생애사가 반영되는 일종의 문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질문은 다시 허물고 쌓이는 순환과정을 겪으며 종내에는 다른 질문을 나에게 안겨줄 것이다. 곧, 이 연구의 동기가 그러했듯 연구 질문을 찾고,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내가 빠진 관점, 객관(客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성찰함으로써 나와 나를 둘러싼 문화를 살피는 일, 곧 질적 연구의 맥락에 있다.

질적 연구와 교육인류학의 관계는 내가 어떤 ‘눈’으로 중년 여성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가와 바로 직결된다. 조용환(1999)은 질을 “개별적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내재적 속성”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의 바탕이 되는 질(質)은 현상학의 “사태 자체로”의 “사태”와 의미가 통한다. 곧 질은 존재자(Seiende)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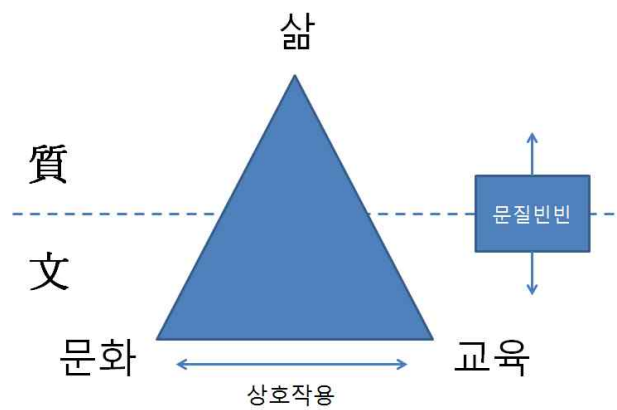
가 기반하는, 그러나 일상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은 존재(Sein)를 의미한다. 소리를 길들여 어떤 마음을 담은 한 곡의 음악을 탄생시키듯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있는’ 존재를 길들여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길들임의 과정, 문화는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다. 조용환(2012b)은 이와 같은 질과 문의 관계에 주목, 질적 연구를 문적 연구와 대비하여 이해하고 있다. 즉, 그의 맥락에서 질적 연구란 문화를 그대로 ‘딴석’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품고 낮설게 봄으로써 삶을 보다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적 연구란 대상을 낮설게 보려는 노력 없이 익숙한 방식과 이미 있던 것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적 연구와 질적 연구 간의 차이는 단순히 자료 조사, 분석 도구 등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구 목표와 과정, 대상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차원의 것이다.

존재자에 갇히지 않고,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는 존재자를 설명하는 이름들, 그의 사고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살핀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이 무엇보다 연구자 자신과 연구 대상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당연하게도 연구 대상을 설명하는 이름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그의 바탕을 이해하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의 과정은 연구자 자신의 세계를 허물고 재구성하여 그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곧, 후설(Husserl)이 말하듯 은폐와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현상에 다가가기 위한 “판단중지”(이남인, 2004, 재인용)<sup>4)</sup>를 필요로 하고, “사회적으로 설정된 의미체계”(Geertz, 1973/1998, p. 24)로서의 문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교육인류학은 문질빈빈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히 문화의 상대향으로서 교육이라는 또 다른 “삶의 형식(forms of life)”에 주목한다. 이때, 삶의 형식은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조용환, 2006)을 뜻한다. 즉, 교육인류학은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삶의 형식에 주목해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는 모든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으로서 개인에 앞서 이미 있는 질서, 공공의 약속이다. 하지만 교육은 인간이 이러한 문화를 단순히 수동반복하지 않고, 전유하며 변혁하는 삶의 형식이다. 문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나, 교육은 문화의 변혁을 이끈다. 이와 같은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에서 교육은 문에 의한 길들여짐을 경계하고, 본연의 바탕을 드러내

4) 판단의 중지는 다른 말로 판단의 유보 혹은 차연(差延)이다(조용환, 2008). 즉 일상적으로 믿으며 살고 있는 선입견을 낮설게 봄으로써 현상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자세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는 “존재의 독특한 실존 방식”(조용환, 2010)으로서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류학은 문화와 교육을 각각 삶의 형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갈등-상생 관계를 탐구한다(서근원, 2007; 조용환, 2001). 다음 <그림 1>은 이와 같은 질적 연구와 교육인류학 간의 긴밀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교육인류학의 삼각형(조용환, 2012b)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는 삶이 있다. 삶은 연구와 관계없이 이미 그렇게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자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삶을 가로지르는, 삶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를 살핀다. 또 하나의 꼭지점이다. 두 점을 잇는 변 위에서 상황과 맥락을 살피며 다양한 문화들을 상호비교하는 횡적 상대성의 고려가 이루어진다. 교육인류학은 여기에 문화를 반성,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종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즉, ‘교육의 눈’으로 문화를 살핀다. 이렇듯 횡적 상대성과 종적 상대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문질빈빈하는 가운데 삶을 위한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연구자 자신의 성장과 연관된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 연구참여자 또한 이를 통해 변증법적 성장과정에 놓일 수 있기를 도모한다. 문화의 교육적 해석, 교육의 질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교육인류학은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서덕희, 2009; 조용환, 2001)의 맥락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교육인류학은 연구참여자를 심층적,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 그들의 세계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 있

기를 지향한다. 단 몇 번의 조사 대신 장기간의 심층 면담을 선호하고, 현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해석자인 나, 연구자의 생각과 감정, 연구 현장에서의 변화 또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 질적 교육에 대한 실천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질적 연구는 선부른 일반화와 판단을 경계하고, 사례의 특이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촉발되는 공감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내 연구를 통해 말하자면, 나는 중년 여성을 집단화하고, 문제 집단으로 간주하여 해결을 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내가 만난 몇몇의 중년 여성과 그들의 취미교실 참여사례를 최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애쓸 것이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물론 그들과 다른 중년 여성들의 차이, 그럼에도 발견되는 유사점들을 통해 나,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낯설게 보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또한 존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계를 도모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팀 버튼(Tim Burton) 감독의 영화 『빅 피쉬(*Big Fish*)』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아들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빅 피쉬』의 여정은 첫째로 아버지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로써 아들 자신의 삶과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이해와 회복의 사적인 경험은 개인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동반할 때 또 다른 대화의 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여정의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들을 찾는다. 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기록들을 살펴면서 아들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겼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가 살았던 시공간 위에 재배열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 타인에게도 아버지 삶의 의미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즉, 개인의 삶이 공감 가능한 전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들의 아들은 이야기로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즈음 나오는 대사처럼 “이야기를 좋아하던 남자는 마침내 그 자신이 이야기가 되었다.” 내가 기대하는 내 여정의 의의 역시 이것과 유사하다.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참여에 관한 이해는 한 명, 한 명의 특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이 드러내는 세계와 면밀히 그 관계성을 살핌으로써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이러한 이유로 나는 내 질문을 추상화된 사람, 추상화된 장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묻기로 했다. 특히 나는 취미교실 참여에 관한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려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sup>5)</sup>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나는 앞서 살펴본 질적 연구와 교육인류학의 맥락에서 연구참여자의 삶과 교육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매개로서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삶은 늘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되고, 해석은 늘 언어를 매개로 하며, 그것은 곧 이야기(narrative)로 말해진다. 이야기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현상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이데거(1979/2009)는 현존재인 인간의 본래적 존재 양식의 하나, 즉 존재물음을 하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으로서 “말(Rede)”을 이야기했다. 말은 인간 현존재가 다른 존재자를 그의 세계의 의미전체성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분류 파악하여 어떤 것으로 말 건네 취하며, 남과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의미한다(p. 583). 우리는 말하면서 존재하고, 말하면서 이해한다. 곧 삶과 말은 겹친다.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는 이야기와 삶의 이와 같은 관계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Clandinin & Connelly, 1991: 엮지숙, 2003, p. 122 재인용)이라 정의했다. 예컨대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고민과 변화, 혼란과 성취, 타협과 도전 등 복잡다단한 삶의 곁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화 한다. 언어가 삶과 교류하는 방식, 문화가 삶과 교류하는 방식은 늘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표현된다.

우리는 삶의 이야기가 무엇을 내용으로 주목하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를 면밀히,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이처럼 이야기로서의 삶, 이야기로서 의미를 드러내는 삶에 주목한다.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관에 기반한다면, 내러티브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범위는 훨씬 확장될 수 있다. 이로써

---

5)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1991, 엮지숙, 2003, p. 122 재인용)는 이야기(story)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내러티브(narrative)란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다. 한편, 폴킹혼(Phlkinghorne, 1988/2009)은 내러티브를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 도식(organizational scheme)이라 했다. 즉, 그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모든 내러티브 산물로 규정해 두 가지를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폴킹혼이 말하듯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 삶의 사건들 속에 위치하며, 그러므로써 의미를 획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기 그 때 살아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그들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보다 촘촘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맥락에서 이야기는 단지 음성 언어, 문자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몸짓 언어, 표정 언어, 행동 언어들 역시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일대일의 면담에서 수집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집단면담에서 나누는 이야기, 비공식면담에서 나누는 이야기 역시 연구참여자의 삶을 상황적, 맥락적으로 살피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할 이야기의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내러티브에 대한 주목은 개인의 삶이 구조, 제도,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반영이나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유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이는 이야기가 갖는 중층성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야기는 어떤 경험에 대한 해석이며 이는 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성(continuity)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야기는 언어라는 그릇을 통해 그 문화의 상징적 상호작용(interaction)을 드러내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성(situation)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야기의 삼차원적 특성”(클랜디닌과 코넬리, 2000/2007)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고립된 ‘혼잣말’은 없으며 화자 자신의 차원에서는 물론 청자와의 관계, 화자와 청자가 몸담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을 둘러싼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겹겹이 의미의 층을 나누는 ‘대화’이기 마련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이런 면에서 이야기의 중층성, 그리고 그를 통해 삶의 중층성을 살피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이야기를 세계를 담은, 그 사람을 담은, 그래서 세계가 펼쳐지고 그 사람이 펼쳐지는 ‘겹주름’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문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전유될 때는 언제나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 과정, 문화의 전유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균열, 변화, 차이, 타협 등에 주목함으로써 수용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문화를 사람과 무관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람을 통해 표현되고 해석되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과 상생, 갈등하는 교육을 모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나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지 않는 교육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 삶에 밀착되지 않은 봉 뜬 교육에 관한 논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특히, 어떤 ‘교육 문화’가 소외시키는 사람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언어로는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육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러티브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

라고 희망한다. 그를 위해 일대일 면담 상황에서 수집되는 이야기, 그것의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의 방식과 내용 모두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로써 “말한 것”, “말하기 쉬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것”, “말해지지 않는 것”(Rogers, 2007)의 한 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내러티브가 “다양한 욕망이 담긴 목소리 (desiring voice)”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Jackson, 2009). 모든 말하는 주체는 그 사람이 놓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유동하는 '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욕망하는 주체다. 이 때, '힘'은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연구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발견하고자 애쓴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로저스(Rogers, 2007)는 내러티브 연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의 중층성을 주목하기 위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살필 것을 제안했다. 특히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적용하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이상적 자아’, ‘실재적 자아’ 그리고 ‘상징적 자아’라는 3자 관계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문화와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머니는 “교육은 학교교육이다”라는 문화적 개념 속에서 “내가 하는 건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취미”라고 말하는 한편, “살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모든 게 교육”이라는 체험적 정의 속에서 “나도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얼핏 서로 모순되는 듯 해 보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교육”의 문화적 토대 속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삶과 교육의 관계를 의미화하고 있는지, 그 모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어머니의 취미교실 체험을 문화와 교육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었다. 이경희·박성희(2006)는 여성의 평생학습이 남성과는 다른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로 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평생학습을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알헤이트와 다우젠(Alheit & Dausien, 2007)도 이야기하기 자체의 학습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하기의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내러티브 연구는 ‘교육’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먼 삶의 많은 사건들 역시 교육의 눈으로 이해하게끔 돕는다. 또한 그 체험들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해석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목해야 할 내러티브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면담을 연구참여자의 응답이 아닌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나누는 대화로 주목한다는



점이다. 대화는 서로 다른 세계로서 둘 이상의 사람이 그 세계를 서로 나누는 일이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연구를 매개로 만나 대화하고, 그를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 자체에서 생기는 이러한 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교육(학)의 관심이라면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물론 이를 접하는 독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적 실천의 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체험을 한다. 특히 그것이 연구자와 대화로서 진행될 때, 두 사람 모두는 상충되고 모순적인 목소리들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그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내러티브 연구의 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체험의 가장 진실한 번역은 체험 시점의 즉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 대한 성찰, 기억, 내러티브에서 나온다(Freeman, 2007). ‘살기(live)-말하기(tell)-다시 살기(re live)-다시 말하기(re tell)-다시 살기로’로 삶의 내러티브가 새로 쓰이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새롭게 의미화 될 수 있는 것이다.

### 3) 여성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09, p. 31)

위의 인용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보살펴야 할 개인의 권리로서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할 권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 평생교육은 어떤 이야기가 생성되고, 또 생성되어야 할 현장인가. 우선, 남성 중심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여성들의 자아실현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서 여/남이라는 성별 특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다른 교

육대상으로서 주목받고, 교육은 이들의 “존재가치 자체를 고양”(곽삼근 외, 2005, p. 15)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성들이 주로 어떤 장소를 찾아 평생교육에 참여하는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선호하는지 등과 같은 특징들을 유사 연령대의 남성 집단과 비교한다든가, 상이한 연령대의 여성 집단과 비교하는 등 성인 여성들의 교육 및 학습이 갖는 특징에 주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평생학습실태조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9; 2010)에 따르면 성인 여성들은 학습 욕구를 갖고, 그러한 욕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 현장을 찾는 중요한 학습자 집단 가운데 하나다. 특히 여러 평생교육기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 주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 각기 다른 동기와 지향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제도, 학교 중심 교육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줄 거라는 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기성 제도와 남성 중심 문화가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전환이 여성의 교육권을 보호 및 신장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교육관행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삶과 동행하는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교육과 더불어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여성들의 일상에서 교육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 역시 평생교육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불리 여성 평생교육의 관심 대상을 ‘(성인) 여성’이라는 추상화된 집단으로 덩석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성을 삶이 해석/실천되는 중요한 문화적 범주의 하나로서 고려함은 여/남을 단지 생물학적 차이로 구분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일이다. 대신 ‘여성’으로 묶어짐으로써 배경으로 후퇴되는 그들 사이의 차이를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입각하여 새로 나오는 여성 평생교육 관련 연구들 가운데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개념을 통해 성 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모든 불평등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신군자, 2004). 곧 계층, 연령, 인종, 민족, 지역 등과 관계 하에 성을, 불평등과 차별이 야기되는 문화를 통합적, 상황적으로 살핌으로서 이를 개선해가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연구 관심이 다듬어지고, 질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년’이라는 연령집단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 무

엇보다 ‘중년’이라는 이름을 낫설게 볼 필요를 느낀다. 모든 이름들이 그러하듯 연령을 가리키는 ‘유년’, ‘청년’, ‘중년’, ‘노년’ 등의 이름들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 많은 경우 이름이 고정적이고 단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들뢰즈(Deleuze, 1968/2006)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좇는 대신 내용의 다양한 표현들, 그 표현들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곧 유사성에 따라 차이를 삭제하는 대신 각각의 존재가 갖는 다채로움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중년’, ‘노년’은 지속과 유사성이라는 특징 혹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해석/실천되는 문화적 경향이 있다. 특히 이때 ‘여성의 중년’, ‘여성의 노년’은 남성의 그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되곤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성들이 겪는 변화는 그들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체험되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삶과 자신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하고 있다(김경민·한경혜, 2004; 김민화·민경환, 2007).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 표현함은 역설적으로 이 시기 여성들의 체험을 일반화, 집단화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시기 여성들이 겪는 고민과 변화, 혼란과 성취, 타협과 도전 등의 복잡다단한 삶의 결들은 ‘보이지 않는 여성’, ‘제3의 성’, ‘여성이 아닌 중성’, ‘별 흥미가 없는 집단’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재현 방식(고종태·정미경·김혜선, 2008; Muhlbauer & Crisler, 2007/2011)에 의해 은폐, 왜곡, 환유되는 경향이 있다. 중년 여성을 일컫는 이와 같은 이름들은 연령문화와 관련이 깊다. 즉, 인간의 발달을 한정적으로 간주하는 문화, 나이 듦에 인색한 청년 중심 문화는 중년을 설명하는 자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년은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주변화되며, 고용구조의 유연화 및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등 경제·산업적 조건이 이를 부추긴다. 특히 여성을 외모와 연령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는 중년 여성을 더욱 주변화시키며, 이런 이유로 “여자가 아닌 아줌마”라는 말이 반성 없이 떠돌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당장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 접근은 노년기를 마치 새로 나타난 문제 집단으로 간주하곤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하여 특정 연령대를 고립되고 고정된 집단으로 간주하는 일은 또 하나의 소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중년, 중년 여성에 붙는 이름에 물음을 제기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중년, 나이 들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우리 사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종류의 발달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여성 중에서도 중년에서 노년으로의 이행을 겪고 있는 이들의 취미교실 참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나는 내 연구참여자를 ‘중년 여성’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나, 무엇보다 바로 그러하기에 ‘중년’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이런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연령만이 아니라, 연령을 포함해 이들 각각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여성들 내부에서도 계층적 차이, 학력 차이, 성적 취향 차이, 직업 차이, 가족 형태의 차이, 연령 차이 등이 있으며, 교육은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여/남이라는 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불확실한 개념임을 주지한다면 권리로서의 교육실현을 도모하는 일은 더욱이 다양한 배치와 계열화를 살피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다시 통계를 살펴보자. 『2010 평생학습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32.3%)이 남성(28.7%)보다 3.6% 높게, 저연령층(37.3%)이 고연령층(21.2%)보다 16.1% 높게, 대졸이상 고학력 집단(38.4%)이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19.3%)보다 19.1% 높게, 비경제활동인구(33.8%)가 취업자(29.5%)보다 4.3%, 실업자(24.3%)보다 9.5% 높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차이적 요소에 따라 우리 사회의 평생교육 현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 결과만으로는 중년 여성이 평생교육 참여인구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을 활용하는지, 어떤 동기로 참여하는지, 각 활동에 따라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여성의 경우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형식교육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특히 비형식교육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스포츠 강좌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 평생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의 취미와 교양위주로 되어있어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곽삼근, 2001, p. 36)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 ‘안/밖’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스포츠 강좌 참여 체험의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 이들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건강은 현대 사회에서 상당 부분 전문

화된 의료기관에 의존해 있다. 여성, 특히 ‘엄마’의 경우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사회·문화적으로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소홀해지기 쉽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건강 관련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다. 단지 웰빙 담론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가족 내 위치를 고려하면서 그들의 선택과 체험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교육을 문화와의 관계 하에서 성찰하는 일은 각각의 사례들이 드러내는 세계의 특이성을 살피는 작업이다. 단순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평생교육 체험을 살핌으로써 성을 포함해 평생교육을 둘러싼 문화들을, 학습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여성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들이 교육과 맺는 교차점들을 특별히 포착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를 주름으로 품고 있는 모나드, 주름을 펼쳐 세계를 표현하는 모나드를 이야기하는 들뢰즈(1988)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빌리자면, 그것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주름들이 펼쳐지는 일이다. 또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돌보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해온 교육 주체로서 여성들의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 3. 선행연구 개관

연구참여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껏 접한 여러 선행연구들, 서적들이 두루 이 연구의 안내가 되어주었으나, 여기에서 나는 보다 ‘직접적으로’ 내게 도움을 준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개관을 하려 한다. 취미교실과 중년 여성 그리고 질적 연구라는 교집합을 공유하는 연구가 나의 연구 관심과 가장 맞아있으나, 이러한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연구 대상과 연구 주체는 유사하지만 연구방법이 다르거나,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은 유사하지만 연구 주체가 다른 연구들도 함께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내 연구가 놓일 위치를 가늠하고,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 주제에 따라 ‘취미교실의 영향’, ‘평생교육 참여 체험에 대한 이해’, ‘중년 여성의 삶’ 그리고 ‘내러티브 연구의 교육적 성격’으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해보았다.

첫째, 취미교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된 연구들이다. 취미교실을 포함해 평생교육기관의 활동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의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해 취미교실이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분석하는 양적 연구들이 많았다. 이동현·김승철(2003)은 중년기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건강을 위해서’에 집중되었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좋아해서’와 ‘사교와 여가를 위해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이라는 목표보다 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사회적 즐거움이 이들 여성들에게 참여 지속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호열·김준희(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생활무용 참여프로그램에 따른 여가만족과 지속적 참여의사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비교적 유사할 것이라 예상되는 생활무용 프로그램들 내에서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참여자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참여자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체험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려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운동 관련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경(2009)의 지역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특히 반가웠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특히 중년기 여성들이 지역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성인교육이 개인주의적 성향에 집중되어있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한 실험연구, 조사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연구자는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밝히고 있다. 고종태·정미경·김혜선(2008) 또한 운동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는 연구 동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삶의 의미 인식,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수용 및 극복이 평생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년 여성의 삶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평생교육 비참여 집단과 참여집단 간 실험 및 조사 연구를 한 결과 이들은 삶의 의미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중년 여성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감과 자유를 깨닫도록 도와준다고 결론짓고 있다.

양적 연구들은 이처럼 취미교실과 중년 여성의 삶을 살필 때 참고해야 할 여러 요인들, 요인들 간의 관계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들은 취미교실 체험과 참여자들의 삶이 갖는 관계의 역동을 다소 분명한 상관관계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 생의 의미 등과 같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이 조사를 위해 척도화될 때 어쩔 수 없이 감환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질적 연구는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문제시하며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취미교실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가운데에도 질적 연구로 행해진 연구가 없는 건 아니다. 한 예로 삶과 신체형 여가활동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 강선영(2006)의 연구가 있다. 그녀는 의미란 고립된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내러티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주목한다. 의미를 탐구하는 일은 그러므로 참여자의 해석, 참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일이다. 연구자는 세 명의 중년 여성과 함께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했다. 즉, 세 중년 여성의 삶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통해 신체형 여가활동 참여가 그녀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중년 여성들은 신체형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새롭게 인식,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계기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그녀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맥락 및 이들 각각이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평생교육 참여 체험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두고 수행된 연구들이다. 앞서 살핀 강선영(2006)의 연구도 연구참여자들의 여가활동 참여 체험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형 여가활동의 의미를 살폈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특정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효과, 영향보다는 참여자들의 체험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여성 학습자 등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수행된 연구들을 여기에 분류했다. 국내 연구로는 배수옥(2005)의 연구가, 국외 연구로는 다니엘(Daniels, 2008)의 연구가 내 연구를 위해 참고할 부분이 많았다. 배수옥은 중산층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했다. 더불어 그녀는 다른 지면을 빌어 이 때 만난 주 제보자의 생애사 연구(배수옥, 2006)도 펴냈는데, 내러티브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나는 이것 또한 인상 깊게 읽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와 교육에,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인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기술지와 생애사라는 상이한 접근이지만 두 글 모두 우리 사회의 중산층 여성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그를 살아내는 방

식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학습활동이 그녀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일’로서 어떤 가치와 가능성을 갖는지 성찰한다. 또한 획일화된 진로지도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로교육의 방향을 논한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의 연구가 참고하고, 전유할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선, 백화점 문화센터라는 장소의 문화적 의미가 학습자의 체험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내 연구가 선택한 평생학습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민해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고찰 없이 참여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한 생애사로 접근할 때의 관심, 특이성도 나의 연구와 관련이 깊다.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의 교육 생애에 대한 서술적 기술”(조용환, 1999, p. 127)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매개삼아 중년 여성들의 삶과 교육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나의 연구에서도 그들의 생애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니엘은 성인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인여성의 삶과 학습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12명의 성인여성을 참여자로 하여, 이들 각각을 다양하고 독특한 삶의 체험을 가진 학습자로 주목한다. 특히 이 연구는 직업훈련교육 현장 체험을 주목하되, 그녀들의 일상과 학습의 관계를 이야기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자는 학습을 삶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찾아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러티브 연구 과정은 그 자체로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체험을 지향하는 일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침묵의 존재로 간주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자는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는 관계적 학습자, 맥락적 학습 등 여성 학습자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강조된다. 그녀의 말처럼 “일종의 협상, 해석으로서 학습은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기”(Daniels, 2008, p. 96) 때문이다.

다니엘의 이 연구는 많은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다.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여성이 체험하는 학습의 의미를 모색하는 그녀의 시도는 나의 것과 같다. 직업훈련교육 현장 체험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되 그 곳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체험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점도 나의 연구와 통한다. 특히 내러티브 연구가 여성 학습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다니엘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이어서 살펴볼 셋째와 넷째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위의 두 분류에 속한 연구들에 비해 내 연구와의 관련성은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나의 연구참여자인 중년 여성과 내가 선택한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 유용한 참고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몇몇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중년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이 다. 염지숙(2010)의 연구, 로츠와 반 호브가 수행한 연구(Roets & van Hove, 2003) 그리고 곽삼근(2001)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우선 염지숙은 조기유학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를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적인 체험의 의미를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문화적 현상을 교육적으로 해석하는 내러티브 연구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와 교육을 각각 삶의 형식으로 간주하였을 때, ‘이야기’는 구체적인 삶의 장면에서 이 둘의 관계를 탐구하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 국한된 교육학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또한 삶의 질서가 역동하는 과정인 문화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가 필요하다(조용환, 1999).

염지숙의 이 연구는 모녀관계의 참여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유학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유학의 문제를 개인 차원과 가족 차원, 나아가 사회적 맥락에서 살핀다. 이를 통해 조기유학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시도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이 속에서 고투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조기유학에 대한 교육적 제언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의 연구 역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문화와 교육의 관계 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문적인 세계 속에서 고투하는 모습을 포착해 중년주부 삶에서의 교육적 실천의 상상력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로츠와 반 호브는 두 명의 학습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장애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가 겪고 있는 ‘비정상’이라는 이름표에 의문을 던진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권력다툼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p. 602)임이 연구의 전제가 되고, 또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다. 그들에게 붙은 이름표의 정상성, 당위성은 흔들리며, 그를 통해 다른 식의 삶, 교육이 모색된다. 로츠와 반 호브의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의 실천적 힘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아줌

마”라는 이름표에 겹쳐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교육 문화’를 이들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낼 방안을 로즈와 반 호브의 연구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지해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이다. 관계의 맥락이 중요한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연구자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자신의 책임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작업인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며, 그 작업에서 본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곽삼근의 연구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그들이 참여하는 문화활동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형은 다섯 가지로, 첫째, 여성 자신의 개인적 문화 욕구의 발견, 둘째, 여성주의적 주체적 사고 및 표현, 셋째, 합리적이고 풍요로운 생활능력의 발휘, 넷째, 여성적 공동체 문화 형성, 다섯째,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문화의 창출이다. 연구자는 여성 평생교육이 주체성과 생활향상지향 문화활동의 요구를 개발해야 하며, 개인적 관심에 치우친 생활 중심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회문화활동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학문세계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여성들의 평생교육요구를 그 자체로 밝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여성 평생교육에 대한 반성 및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관심 가질 만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목소리와 차이들을 드러내는 데에는 다소 무심해 보인다. 여성이라는 성별 범주의 정치적 위치와 교육실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고민은 연구자의 지적처럼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을 동반할 때 힘 있는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간 이루어진 여성의 문화활동이 “너무 개인 중심적이고 가정생활 중심적”(p. 43)이라는 지적은 어째서 이러한 양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상황과 맥락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활동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욕구, 갈등과 모순들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역시 여성들의 요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풍부한 기술 대신 정리된 분석이 앞서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내러티브 연구의 치유성 및 학습적 성격에 관심을 갖고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다. 이는 ‘살기-이야기 하기-다시 살기-다시 이야기 하기’라는 내러티브 연구 참여 체험의 특징에 주목한 것이다. 애초에 나 역시 어머니와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그리고 각자 얼마간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내러티브 연구에 관심을 가졌었다. 위에서 살핀 다니엘의 연구, 강선영의 연구도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하기 체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분류에 속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교육학 내 연구로는 이경희·박성희(2006)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을 이해하는 데에, 여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교육학 연구 및 교육사회에서 주변인에 속해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 생애사 연구가 유용한 도움을 주며, 이에 따라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산업사회에서 삶을 계획화하고, 스스로의 생애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일이 중요해졌음도 짚고 있다.

연구자들이 주장하듯 생애사 연구는 “개인들이 재구성하는 삶의 구조”(p. 82)를 드러낸다.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기회, 현재와 미래를 내러티브로 구성하면서 의미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체험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애사 연구의 교육적 의의는 내러티브 연구로 수행될 나의 연구도 도모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생애사적 맥락이 고려되어 삶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생애사 연구의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이 연구가 말하는 ‘생애사학습’ ‘사는 과정 자체가 곧 학습이다’는 말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년 여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 변화, 전환을 겪으며 ‘이야기’를 구성해간다. 그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재구성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애사학습’, ‘자기 재생적 학습자’로 선불리 이름 붙이기 전에, 좀 더 참여자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상호작용하는 맥락과 상황을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짧은 면담으로는 어렵고, 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내가 주목한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편중이다. 주로 운동과 건강 관련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둘째, 취미교실 체험과 참여자들의 삶 간의 연관성을 총체적,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대신 상관관계 등으로 단순화, 일반화하는 접근이 많았다. 셋째, 참여자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부족하다. 대신 특정 기관, 프로그램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혹은 흔히 ‘중년 여성’이 겪는다고 생각되는 문제 해

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중년’, ‘여성’ 등 이들이 놓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가 충실히 이루어진 연구가 드물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을 개인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고, 이들을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연구들은 부족했다. 이는 취미교실 등 여성 평생교육이 주로 개인 차원의 단순 취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판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는 한편, 지금껏 살핀 선행연구들의 유의한 가르침도 기억하면서 내 연구가 시작될 지점, 지향할 방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문질빈빈의 자세를 기억하며 취미교실 체험에 대한 표면적 이해가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삶이라는 총체적, 존재론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영향과 효과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취미교실을 선택한 이유와 참여 의미를 이해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인의 차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적 관계와 학습사회를 도모하는 데 취미교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 4. 연구문제

말했듯, 이 연구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 학문적 맥락에서는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체험을 깊이 있게, 교육의 눈으로 이해해야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개관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질문을 다듬는 과정은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의 세 질문이 나와 연구참여자가, 나아가 우리의 삶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각각의 질문은 이 글 각각의 장과 연결된다. 즉, 이 글의 몸을 이루는 II, III, IV 장은 각각 연구문제 첫째, 둘째, 셋째와 연결되며 이는 다시 월코트(Wolcott)<sup>6)</sup>의

---

6) 질적 연구 방법의 주요 틀 가운데 하나로서 기술, 분석, 해석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입장 차이를 보인다. 월코트는 기술, 분석, 해석 간의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내 연구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는 일이고,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하는 일이다. 그리고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understand)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순환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나의 연구 또한 그러했다.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고 글로 쓰는 과정

기술, 분석, 해석 각각과 관련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취미교실을 통해 무엇을 체험 하는가?

나는 이 질문을 통해 취미교실 활동이 누구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와 같은 경험적 측면이 아니라, 취미교실에서의 활동이 내가 만난 중년 여성 자신에게 어떠하였는가 하는 체험적 측면을 알고자 한다. 어떤 이유로 취미교실을 찾았는지, 취미교실에서 얻는 즐거움 혹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 그들의말로 표현되는 취미교실 참여 이야기가 이 질문의 답이 되어줄 것이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2004)는 신체란 “체험된 의미의 총체”라고 했다. 경험과 달리, 체험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전유하는, 즉 내 것으로 만드는 장소”(조용환, 2011a)로서 몸에 새겨진다. 곧 인간과 삶의 일반화와 표준화가 아닌, 특이성과 총체성으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경험과 구분되는 체험에 주목하게 된다.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나는 취미교실의 기능적 개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취미교실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또한 취미교실 체험의 주체인 연구참여자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체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특히 체험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려고 한다. 취미교실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체험을 드러내며, 체험의 의미가 표현되는 일종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유념하며 나는 다음에 이어질 II장에서 가능한 삶의 총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연구참여자의 취미교실 체험을, 그에 관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할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야기가 체험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뜻은 이야기가 체험을 전달하는 투명한 용기(容器)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 이야기는 시간성과 상황성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역동 속에서 구성되므로 우리는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자가 아닌 텍스트(text)로서 이야기에 접근해야 한다. 텍스트로서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이 표현하는 세계를 읽

---

은 순환적,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용환, 1999, pp. 41-50 참고)

어낸다는 의미다. 경험, 개인적인 것, 감정 등은 구조화되어 있고 내재적으로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가리킨다. 전 지구적 정치경제 체계의 주도적인 경향이 언어, 감정, 상상 속에 복합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Marcus & Fischer, 1986/2005). 따라서 텍스트로서 이야기에 주목함은 곧 전유, 저항, 적응의 과정이자 그 산물로서 문화에 주목하는 것, 이야기에서 그러한 문화를 읽어내는 것과는 관련된다. 즉, 나는 취미교실 체험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것의 구조를 살피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 각각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존재로서 그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주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표현,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석을 가능한 판단중지의 자세로 주목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연구자인 나의 분석 틀로 그들의 이야기를 살피기 위함이다.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이 글의 III장에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에서 삶과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해 어떤 함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체험을 이야기로써 면밀히 이해하고자 했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한 이해에서 삶과 문화, 그리고 교육에 관한 어떠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즉,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이해한다는 목적이 구체적인 세 가지 주제, 중년 여성, 취미교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말했다시피, 이는 삶을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삶의 형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인류학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 분석에 이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 작업이기도 하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사적인 개인에서 문화적 존재로 주목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나와 독자,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있는 ‘우리’의 삶과 보다 분명히 연결된다. 다시 말해, 세 번째 질문의 시작은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이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독자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의 목적이다. 한편 나는 여기에서 “학습 생활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평생학습 담론”(강대중, 2009, p. 202)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싶다. 즉, 내가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교육 문화’를 비판

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또한 길들여진 눈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교육이 그들의 삶에 이미 있었다면 그를 찾아보고자 한다. 교육은 특정 장소,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미 삶 곳곳에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교육학도의 책무 중 하나는 이러한 교육을 포착, 언어로 재구성해 다른 이들과 대화 나누는 일일 것이다. 나는 세 번째 질문을 다룰 IV장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5. 연구방법 및 과정

이 연구는 나의 어머니와 생애사 연구를 수행했던 2010년 1학기 “교육생애사” 수업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시간씩 세 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가 전부였고, 교육, 학습 등에 대해 나 또한 혼란을 느껴버렸던 설익은 연구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얻을 수 있었고, 2011년 본격적으로 연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질문이란 첫째, 막연하게 무척 교육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어머니의 취미교실 참여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일까? 둘째, 당신의 취미교실 참여를 해석할 때, 즉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교육과 연관시키길 주저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한 이러한 방해 요소는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이며 교육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였다.

이 질문들이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등을 공부하는 가운데 다듬어졌고, 2011년 6월 사랑구민체육센터<sup>7)</sup>의 ‘다이어트 요가 교실’을 시작으로 현장 연구가 시작 됐다. 취미교실 참여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다루는 취미교실인가도 고려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아니라 참여 체험의 의미가 연구 관심이기 때문에 요가 교실 이외의 현장에서도 연구참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발견 가능한 이야기들이 있을 듯 했다. 이에 7월 믿음동사무소의 ‘기타교실’, 행복동의 ‘왕초보일본어교실’을 추가로 찾았다. 그러나 ‘왕초보일본어교실’은 한 달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적당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지 못 했고, 더 기다려볼 만큼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 가장 도전적이라 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 한 게 내내

---

7) 참여자 이름, 취미교실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역 등 이 글에 사용된 모든 고유명사들은 가명 처리되었다.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신 그곳에 쏟지 않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머지 두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이어트 요가 교실은 구민체육센터에 개설된 취미교실로 월, 수, 금 저녁 시간에 50분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 접수자의 “아줌마들이 많다”는 말에 이곳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약 20명의 참가자 가운데 3명 이하만 40대 이상의 여성들이고 나머지는 20~30대의 여성들이었다. 나중에 주 연구참여자 가운데 한 명인 조문선으로부터 들어보니, 화, 목 요가 교실에 “아줌마들이 많다”고 한다. “월수금 받은 다이어트 요가라고 해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에어로빅을 병행하고 화목 받은 스트레칭 위주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요가를 하는 아줌마들이 많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기타교실은 내가 2009년 가을에 취미삼아 기타를 배우고자 찾은 적이 있었다. 두 달 쯤 그곳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그곳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의 열의에 감동을 받았었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 함께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공동체로서의 가능성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되고 망설임 없이 그곳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이 연구의 주 참여자인 이지영과 최옥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기타교실의 경우 자기소개를 할 때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면담을 청하게 될 수 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연구를 밝히고 관계를 시작한 게 좋은 점도 있었고, 방해가 된 점도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한 가지는 연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제안하는 편이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에는 반장인 이지영에게 면담을 처음으로 요청했고, 이지영의 도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4~5명과 함께 집단 면담을 하게 되었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연구 참여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3명을 주 연구참여자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고 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좌절을 느꼈다. 꾸준히 기타교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도 했고, 연구에 대한 이들의 방어도 강했다. 나 또한 처음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를 매개삼아 연구참여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을지 무척 헤맸었다. 결국 내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가서 있는 것, 일단 친해지는 것이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나누는 이야기가 점차 많아질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경우 내가 가장 어려워했고, 그래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친밀관계



(rapport) 형성에 대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정답을 찾는 과정(problem solving)이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과정(problem seeking)의 성격을 갖는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맥락에서의 정답일 뿐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이를 잘 한다는 것은 질문을 계속하여 찾아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나는 중년 여성의 취미교실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다시 궁금해지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했다. 문적,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을 계량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내 연구가 질적 연구다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지만 삶을 표현하는, 삶에 의미를 만드는 이야기에 주목하였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 연구의 맥락에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우선적으로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이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관찰 기록지, 연구일지 등 보조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면담’ 등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면담 이상으로 ‘수다’라는 비공식적 면담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자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비/공식 면담 각각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도 달라졌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면담’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전에 고등학생들과 면담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중년 여성들에게서 느껴지는 부담과 방어가 더 크게 느껴졌다. 면담 요청에 대한 부담을 몇 차례 강하게 느끼고 나니 연구 현장을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들의 방어적 태도 자체를 끌어안는 것이 내 연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중년 여성들의 방어는 그들의 처지, 곧 ‘교육’과 거리가 먼 ‘아줌마’로서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연구참여자들의 방어는 취미교실 참여의 의미를 문화와 교육의 눈으로 살피고자 하는 이 연구의 문제 현상이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취미교실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보다 편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방어적이라는 느낌은 나의 조급함과 두려움의 투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의 의미를 곱씹기도 했다.

관계가 친밀해져도 대체로 많은 경우 중년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대일 면담보다 집단면담 혹은 수업 전후와 쉬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자신

의 이야기를 더 편안히 꺼내 놓았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는 아무래도 면담자료에 의지하게 되는 내러티브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 물론 나는 이야기를 협의가 아닌 광의로 개념화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내러티브 연구를 지향했다. 그랬기에 일주일에 세 번 요가교실을, 두 번 기타교실을 찾았던 1년여의 참여관찰 역시 내게 소중한 자료가 되었던 게 사실이다. 참여관찰을 통해 질문할 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개인면담 혹은 집단면담 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궁금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물을 기회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와 모순되는 듯한 이야기들을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대일 면담의 부족은 내 연구가 갖는 분명한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선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초보 연구자인 나는 이 중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스스로 어색함과 낯설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구에 대한 조급함도 그 이유였지만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특히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나의 서투름 때문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관계, 이 장소가 나에게 편해져 갔고 연구참여자와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무척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연구참여자들, 그리고 그런 부담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의 방어 때문에 개인면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참여관찰 기록지, 비공식적 면담, 집단면담과 개인면담 등 수집한 자료를 총 정리해보니 약 400페이지에 다다랐지만 이 중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개인면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 시간을 두고 개인면담을 진행했다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의 매력 가운데 하나인 ‘이야기 하기’에서 ‘다시 살기’ 그리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 역시 크게 아쉽다.

부담스런 상황을 줄이고, 가능한 참여자들이 편안히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 상황을 고려한 것은 연구 윤리적인 면은 물론 대화의 진솔성의 면에서도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무조건 더 진솔하고, 더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각 면담 상황에 따른 차이들을 통해 이들의 삶과 그 삶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즉, 나는 공식 면담, 비공식 면담, 집단면담, 개인면담 등 다양한 면담 장면

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생각지 못 했던 소재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고, 참여자들 간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비교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 말하기 쉬운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 연구는 중년 여성에 대한 보편적, 일반적 이론을 내놓기 위함이 아니고 사례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되 그들과 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전자의 관심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내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서울 일부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는 취미교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집단의 특수성은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는 중년 여성들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대신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른 조건의 경우와 비교를 성실히 한다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엮을 수 있다. 이는 문적 연구, 양적 연구와 달리하는 질적 연구 특유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연구과정 동안 이러한 눈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으나,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했고, 이 연구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이 일깨우는 귀한 배움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질적 연구에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판단중지’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연구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하고 있을 때, 면담을 할 때, 녹음 내용을 전사할 때, 전사한 자료를 되풀이 하여 읽을 때 나 자신 혹은 그들이 어떤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러나 그 문화가 실천될 때는 어떤 개인의 고투가 드러나는지 살피고자 했다. 말하자면 문질빈빈의 자세를 늘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자료들을 주제에 따라, 시간 순에 따라, 각 참여자에 따라, 이야기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된 자료들을 다시 하위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흥미 있는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 연구 현장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했다. 설문지 조사와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알 수 없는 삶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지점들을 찾고자 애썼다. 그를 다시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중년 여성, 평생교육, 취미교실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장에 내가 연구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적절히 풀어보고자 했다.

이 모든 연구 과정에서 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구성하는 내러티브로

서 연구 자료를 이해하려는 내러티브 연구의 지침을 참고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야기의 내용 및 구조를 모두 살피는 분석(Lucius-Hoene & Deppermann, 2002/2006), 말하기 쉬운 것과 말하기 어려운 것 및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의 층위를 구분하는 내러티브 분석(Rogers, 2007),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층위들의 내러티브를 참고하는 분석(Chase, 2011), 이야기의 캐릭터, 전환, 갈등, 절정, 플롯 등을 살필 것을 안내한 글(Colyar & Holley, 2010), 문화기술지적 접근을 통해 언어적 다큐멘터리 이상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낼 것을 제안하는 연구(Tedlock, 2011)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에 있어 내러티브 연구로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풀기 전에 오직 이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가장 고마운 나의 연구참여자에게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이지영, 최옥희, 김혜숙 그리고 조문선이 주 연구참여자로 도움을 주었고, 기타교실의 모든 참여자들 또한 나를 아끼고 도와주었다. 그들의 삶을 설명하지 않고, 이해<sup>8)</sup>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감환되고, 삭제되고, 오해된 것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찾은 취미교실은 모두 사랑구에 위치한다. 물론 연구참여자들도 모두 사랑구에 거주하고 있다. 사랑구는 서울시 내의 다른 구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수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적다(서울시 통계연보, 2010). 여러 종류의 평생학습기관들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사무소, 구민센터 등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운영 평생교육기관 등에 비해 저소득층의 접근이 높은 편이다. 물론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할 때, 동사무소의 취미교실이 소득 등의 조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참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이 보다 다양할 거라 예상했다. 그렇기에 참여의 이유 및 의의에 대해서도 좀 더 다

---

8) '설명(explain)'과 '이해(understand)'에 대한 구분은 해석학적 전통에서 '이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이해란 상대에 대한 해석학적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언제나 잠정적 과정이며 절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조용환(2011, p. 3)은 이해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그 잠재적 가능성과 본질을 밝히는 존재론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설명'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 연구가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론적 방법으로서 이해와 대조된다.

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특히 본인이 충분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미교실을 찾는 이들을 이곳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주 연구참여자 네 사람은 모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중산층에 속한다. 조문선을 제외한 세 사람은 전업 주부로서 시간적 여유도 많다. 조문선이 시간 여유가 없는 것도 저소득층의 취업 여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지영은 기타교실의 반장으로 현재 기타교실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참여 기간이 길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20대 중반의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은 결혼 후 독립했고, 작은 딸,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그녀 역시 자녀 교육을 위해 퇴직하기 전까지 은행에서 근무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고, 시간 여유도 많은 편이다. 집 근처의 저렴한 취미교실들에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고, 약 20여 년 간 배운 것들을 꼽으면 열 손가락을 다 펼칠 만큼 된다. 현재는 기타와 탁구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 기간도 오래 되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편이며 강사가 없을 때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옥희는 이지영 다음으로 기타교실에 참여한 기간이 길다. 하지만 그녀는 이지영과 달리 종종 참여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결석도 잦다. 열심히, 잘 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나와서 즐겁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결석과 중단이 잦은 이유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 많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남편과 아들, 두 딸과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다. 자녀들은 모두 직장인이며 막내인 둘째 딸이 이십대 중반인 만큼 머지않아 결혼을 해서 독립할 거라는 생각에 최옥희는 벌써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에게 매우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관계도 돈독하다.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며,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은행에 근무했으며, 결혼과 함께 퇴직했다. 남편도 그 후 퇴직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김혜숙은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늦게 연구에 합류한 참여자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중년’의 범주에 넣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평생의 직업이었던 교사 퇴직 후 제 2의 삶을 모색하는 생애사적 특징에 주목해 노년기로 이행하는 중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녀는 퇴직 후 “노후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자 미술과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분명한 목적을 가

진 참여인 만큼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크다. 연구에 대해서도 가장 호의적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교수인 남편과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과 두 딸은 모두 결혼 후 독립했다.

끝으로 요가 교실에서 만난 조문선이 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연구 참여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30년 가까이 푸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과 중학생, 고등학생인 두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딸들과 관계가 매우 돈독한편인데 2011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사춘기가 되면서 까칠해진 작은 딸이 그녀의 주요한 대화 화제로 등장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의 관계도, 조문선의 엄마로서의 태도도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헬스, 수영, 에어로빅 등에 10년 가까이 참여해오고 있지만 요가만큼 장기간 참여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개의 요가반에 참여하는 그녀는 3년째 요가를 하고 있다. 갑자기 오른쪽 어깨와 목, 팔이 아파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작한 요가인데 그 효과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웬만하면 계속 참여하고자 한다. 이들 네 사람의 특성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 1> 주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령	가족 상황	동거 가족	학력	과거 직업	현 직업	취미교실 참여기간	참여하는 취미교실	경제적 여유 <sup>9)</sup>
이지영	51	남편 딸 2	남편 딸 1	고졸	은행원	전업주부	약 20년	기타교실 탁구교실	중
최옥희	56	남편 아들 1 딸 2	남편 아들 1 딸 2	고졸	은행원	전업주부	약 20년	기타교실	중상
김혜숙	61	남편 아들 1 딸 1	남편	대졸	교사	전업주부	약 1년	기타교실 미술교실	상
조문선	51	남편 딸 2	남편 딸 2	전졸 <sup>10)</sup>	교직원	교직원	약 10년	요가교실	중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겠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다

른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종종 언급될 것이다.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은 경중 없이 나에게 모두 특별하다. 긴장감으로 후들거리던 첫 만남,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느라 진이 빠졌던 날들, 제 풀에 지쳐 대화 막바지에 표정 관리가 안 되어 좌절했던 기억,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온종일 집중하지 못 하고 동네를 헤매던 추운 겨울...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원망도 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면 지도교수의 이야기처럼 나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마주친 것 뿐이었다. 누군가와 마주한다는 것,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전엔 미처 알지 못 했다. 솔직히 말해서 또 다른 연구현장을 찾고, 연구를 매개로 누군가와 또 이러한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 벌써 겁이 난다. 그 과정에서 내가 끊임없이 깨졌고 아팠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시작하기가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별의 아픔을 안고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일이 주는 대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이다. 연구 역시 그러하다. 연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집중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오만과 과신을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이다. 감동적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나에게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중년 여성들과의 우정어린 시간과 따스하게 마음을 데워준 말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연구과정을 역경을 딛고 진정한 우정을 나눈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야기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그건 이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될 거라는 게 솔직한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

9)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에 속하지만 여기에서는 네 사람을 상대평가한 척도로 표현했다.

10) 전문대학 졸업

## II.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이야기

이 장은 지난 일 년, 나와 삶을 마주했던 네 명의 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취미교실 참여와 관련해 각 연구참여자의 사례성이 드러나도록 유념하였고, 특히 ‘대화’로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주고받음이 삭제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곧, 이 장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되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겪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에 따라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네 사람을 주 연구참여자로 선택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취미교실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나는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내는 차이가 흥미롭다고 느꼈다. 우선, 가장 장기간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만큼 이지영의 이야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녀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그녀가 겪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학습자로서 그녀의 태도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로웠다. 김혜숙의 이야기에는 이들 중 가장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면모가 잘 드러난다. 그녀는 참여한 시간은 짧지만 취미, 학습 등에 대해 나름의 가장 정리된 언어를 갖고 있었다. 세 번째로 살핀 최옥희의 경우에는 주부, 엄마로서 정체성이 강하고 삶의 무게 중심이 가족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특징이 취미교실을 포함한 그녀의 다른 체험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조문선 역시 최옥희처럼 상대적으로 취미교실에 대한 기대가 작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유일한 취업주부로서 그녀는 일과 양육 그리고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처럼 이들 네 사람은 각각 흥미로운 네 가지 사례로서 나의 마음을 끌었다. 나는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들과 다른 집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가운데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에 있다. 따로 시간을 내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조문선을 제외한 기타교실 참여자들의 경우 기타교실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렇기에 출석률이 높은 사람, 기타교실 이후 함께 어울려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이지영과 김혜숙은 전체 취미교실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높았다. 조문선의 경우에는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말 오전에 산



책을 곁한 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최옥희의 경우가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그녀는 결석이 잦고, 기타교실이 끝나면 곧 집으로 돌아가곤 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낮은 참여자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타교실 참여자들 가운데 손꼽히는 장기 참여자라는 점에서 그녀는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기타교실 이후의 여유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결석이 잦았던 탓에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최옥희와 나눈 대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접근성만으로 주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면 참여 태도 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가 눈을 반짝이게 되었던 순간, 귀가 쫑긋해졌던 순간들은 이와 같은 차이들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차이의 발견은 네 사람들 간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내가 갖고 있던 선이해와의 묻고 되물음의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취미교실 참여 이유, 참여 방식 및 태도, 참여의 즐거움과 어려움, 방해 요소와 촉진 요소 등의 면에서 그녀들의 사례성,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1. 이지영의 이야기 :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십 여 년째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이지영은 “안 해본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뭐 해봤냐고 묻는 것보다 대답이]<sup>11)</sup> 빨라.”라는 주변의 평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지영이 처음으로 취미교실을 찾은 건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다. 네 살 터울의 두 딸을 낳고도 몇 년간 일을 이어갔던 이지영은 첫 아이가 입학할 하게 되자, “애들 공부도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남편의 직장 내 지위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남편이 혼자 벌어도 괜찮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애초에 “결혼하면 직장 그만 둘 거야.”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서운한 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예상했던 것보다 “집에 있는 것”도,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이지영 : 이제 직장 그만 두면 내가 애들 공부도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11) 대화 인용에서 두 가지 괄호를 사용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연구자의 보완 설명은 [ ] 안에, 대화 상황에서의 행동, 표정, 말투 등은 ( ) 안에 넣었다.

겠다, 이렇게 해서 딱 그만 뒀는데 우리 큰 애를 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같이 가르치다 보면. 왜 초등학생이니까 엄마가 가르쳐주고 하잖아. 수학 같은 걸 이렇게 가르쳐보니깐 이제 못 따라오는 거야. 애들 눈높이에서 봐야하는데 내 눈높이에서 이제 우리 큰 애한테 실망이 되는 거야. 너 이거 왜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손이 머리로 가게 되고 애가 울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지.

연구자 : 원래 자식이나 동생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이지영 :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때, 아, 이건 내가 우리 애들 잘 가르치겠다고 그만 뒀는데 이건 내 선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웃음) 학원을 보내거나 진짜 뭐, 밥을 잘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좀 실망감이 컸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애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만 뒀는데 애가 내 저거에, 기대에 부응을 안 해주는구나. 나 혼자 잘못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 너는 그냥 학원가서 배워라, 나는 내 취미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애.<sup>12)</sup>

그녀는 작장을 그만 두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자 했다. 좋은 엄마로서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잘 가르쳐야겠다”는 막연한 기대와 계획은 실제 상황이 되자 “실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더욱 그녀를 상심하게 했다. 이지영의 이야기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의 의미가 이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엄마”라는 정체성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녀의 삶에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 구체적인 시작점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을 준비했고,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만큼 이지영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다. 그녀가 꾸준히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것도 이러한 학습 욕구,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의 재미 때문이다. 자신의 취미생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그녀는 대체

---

12) 이 글에서 대화 인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인 이상의 대화는 지금의 경우처럼 화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반면, 1인의 이야기는 따로 화자의 이름을 인용문 안에 넣지 않고, 단락 구분과 여백을 통해 그것에 대한 분석 및 해석과 구분했다.

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엄마”라는 면에서는 취미생활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를 돌아보며, “나는 일찍 취미생활을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그녀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부정적 평가의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찍[부터 집 바깥 활동을]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의미다.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후회의 감정은 취미생활 시작 시기만이 아니라, 퇴직 시기에 대한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곧 그녀는 자신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 해서 아이들이 “[엄마 손에 자란 아이들과] 좀 틀리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편이지영은 당시 자신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면 안 그러지.”라고 말하지만 공허했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취미생활을 해야 했던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성인이 된 딸들을 독립시키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그녀는 최근 들어 특히 “나의 삶”을 잘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알아가고 있다. 단지 자녀에 대한 실망감, 엄마로서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취미생활은 “자기 삶”을 사는 방법으로서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지영 : 나는 딸 둘인데 시집가면 다르더라구. 개도 나한테 하는 게 달라지고 나도 그런 마음이 되고.

이순자 : 더 애뜻해지지?

이지영 : 아니. 더 무심해지지. (웃음) 그래. 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 하하.

최옥희 : (이지영에게) 은근 강하다니까.

김영숙 : 맞아. 자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도, 애들도 다른 거야.

이순자 : 결국 인생은 혼자야. 그게 결론이더라구.

이지영 : 맞아. 그런 거야. 근데 언니, 그거 느껴보지 못 하면 몰라. 암만 얘기해도 (스스로의 몸을 치며) 응, 이렇게 돼야 아는 거야.

연구자 : 응. 몸으로 느껴야.

이지영 : 그렇지.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깨달음은 다양한 취미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이지영은 기타교실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취미교실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테니스, 지점토 공작, 스포츠 댄스, 장구, 기타, 탁구, 그림, 재즈 댄스, P.O.P<sup>13)</sup>, 옷 수선, 뜨개질 등 가까운 거리의 문화원, 동사무소, 평생교육원 등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모든 장소의 취미교실을 경험했다. 나와 처음 만났던 2011년 7월에는 기타, 탁구, 그림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던” 그 해 가을, 잠시 모든 걸 중단한 뒤로는 기타와 탁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기타교실의 모든 이들이 입을 모으듯 취미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시간”과 “먹고 살만한 상황”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마련된 저렴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취미교실을 찾는 건 아니다. 내가 만난 중년 여성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취미교실 시작의 힘은 바로 “용기”다. 이지영의 경우에는 과거에 경험해봤다는 친숙함, 거듭되는 참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취미교실 참여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지영이 오랜 시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올 수 있었던, 혹은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진 못 한다. 그러던 중 이지영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왜 기타를 하세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타의 좋은 점이나 기타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해서”라고 답했다. 기타든, 탁구든 그림이든 참여하는 활동 개개의 상위 맥락에서 그녀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의미화하고 있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룬 하면서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와 관련해 의미 부여한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할 때, “배운다”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궁금해 하던 중 나는 그것이 일종의 ‘새로운 무엇과의 만남’을 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르던, 접한 적 없던 무엇을 해보는 것 혹은 알지 못 했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써 이지영은 “배운다”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연구자 :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반장님은 스스로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3) 예쁜 손 글씨 쓰기.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주로 포스터 물감을 이용한다.

이지영 : 응

연구자 : 그런 생각을 언제 하시게 됐어요?

이지영 : 배우는 거? 계기가... (생각) 배우는 거. 배우는 거를 좋아하니  
까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데 음...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연수원에서, 연수원에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EQ 이런  
거 강의를 하시더라구. 그런데 그 때 앉아서 들으면서 대학생들  
참 좋겠다. 교수님들이 좋은 말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니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스친 적이 있었어.

연구자 : 아~ 되게 인상적이셨나 보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걸 보면.

이지영 : 응. 교수님 이름이 뭐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때는 내가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교수님 저렇게 좋은 말씀 듣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더라고. 직장 다닐 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그 때 강의하면 외부에서 교수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하고 그랬  
거든. 연수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연수  
같은 데 가면 그럴 때. 일 하는 거보다도 배우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구.

특히 “집에 가만히 있으면 TV밖에 안 보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취미교실 활  
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좋아”라며, 그녀는 자신의 취미교실 활동과 배움 그리  
고 삶의 활력을 의미적으로 연관 지었다. 이는 일을 하던 그녀가 양육을 위해 전  
업주부가 되면서 부딪쳐야 했던 답답함과 공허함을 취미생활을 통해 해소해왔다  
는 것과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방식이나 태도  
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

이지영 :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뭘 배우는 건  
좋은데 한 우물을 안파고 (웃으며)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한 우물을 파래, 나보고.

박인정 :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야.

이지영 : 전문적으로 하려면.

연구자 : 아.. 전문이 되려면.

박인정 : 그럼~(강조). 이것저것 찢끔찢끔하면 뭐 할 거야.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지.

이지영 : 응. 그래가지고 내가 스포츠댄스를 다녔다고 그랬잖아. 언니, 여기.

박인정 : 그래, 다녔잖아.

최옥희 : 응

이지영 : 근데 거기에 나랑 같이 배우던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계속 했었나봐. 근데 나는 좀 배우다가 그만두고, 아,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다시 배워보자 그래서 행복동 문화센터를 갔었어. 갔더니 나랑 여기서 배우던(강조) 아줌마가 여기서 강사를 하고 있는 거야~.

박인정 : 강사를~

최옥희 : 어머머머. 그 사람은 한 우물을 판 거지.

이지영 : 응~! 아~~ 진짜. 내가 그이한테도 그랬다니까. 한 우물을 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지영은 자신이 “끈기가 없어” “한 우물”을 파지 못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는 자신과 달리 “한 우물”을 파서 “전문성”을 갖추게 된 사람을 보면서 생긴 감정이다. 특히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취미로 춤을 시작한 보통의 “아줌마”였다는 데에서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기타 교실의 다른 사람들도 이지영과 마찬가지로 이 사례를 놀라운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지영을 비롯한 전업주부들이 실상 “한 우물”을 파는 것을 자신의 일로 고려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 혹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지영 :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엔 자기 취미로 하는 거니까.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걸로 된 거야]

연구자 :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 때 한 우물을 파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은 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취미로 쪽 해오신 거죠?

이지영 : 응.

연구자 : 응. 그럼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셨나보다.

이지영 : 응응

여기에서 “배우다”의 의미를 지녔던 취미교실 활동은 이지영에게 두 가지 목적과 연관되고 있다. 첫째, 전문적일 필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으로서 “취미”이다. 둘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직업”으로 연결되는 활동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 가운데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배움”의 방식이 달라진다. 전자는 “한 우물을 파는 것”으로서 끈기 있게 지속하는 방식을 필요로 하며, 후자는 이지영이 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두루 찾는 방식과 짝이 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이지영이 왜 좋아하는 활동을 좀 더 장기적으로 배우려는 욕심은 갖지 않았을까? 기타든 탁구든 옷 수선이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걸 조금 더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한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한 우물 파기를 주저했나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지영을 비롯한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들은 대답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녀들의 경제적 상황, “끈기 없음”이라는 개인의 성격 그리고 “우리 나이가 되면 다 비슷해”라는 연령적 한계의 탓이었다. 특히 “나이”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해오던 활동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취미교실 참여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자 : 지금이라도 한 우물을 파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지영 : 이제는 50이 넘으니까 나이 때문에 조금....

최옥희 : 그렇지.

이지영 : 응. 언니, 그렇더라. 이제는.

최옥희 : 취미로 가야지.

박인정 : 응. 취미로 가야지.

이지영 : 응. 취미로 가야지.

박인정 : 이젠 늦었어. 취미 위주로 가야지.

최옥희 : 응. 그리고 건강위주로.

이지영 : 응.

“왜 한 우물 파기를 주저했나요?”라는 질문은 주로 참여자 자신의 처지, 특성을 타하는 답들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뜻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선택은 사실 전 업주부의 사회적 위치, 독특한 연령문화, 개인의 노력 부족을 타하는 시대 분위기 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취미교실의 장소, “동사무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가 참 좋아졌어. 이렇게 저렴하게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고.” 동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 운영 평생학습관의 증가에 대해 이지영도, 다른 취미교실 참여자들도 무척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혜택”이라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취미교실의 운영방식과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업방식은 취미교실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희정 : 너무 [악보를] 남발을 하신다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갖고 오시니까. 내가 기타 매고 오니까 여기 밑에 직원이 ‘꽤 오래 되셨죠? 기타 배우신 지가? 일 년 넘었죠? 잘~ 하시겠네요?’. ‘몰라요.’ 선생님이 노래 한 곡 알려주면 심지어 ‘선생님, 이건 무슨 리듬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위에 적어야 돼.

이지영 :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단위로 새로 받다보니까 조금 가리키다보면 새로 들어오니까 다시 봐줘야지. 이게 동사무소 스타일. 동사무소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오래 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한계가 있지.]

김연주 : [반을 수준별로] 나눠야 돼.

이지영 : 응. 나눠야 돼. 이런 동사무소 스타일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평생교육원과 사설 평생학습관에 비해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취미 교실은 강사 개인에 따라 수업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기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지영을 비롯한 참여자들, 특히 장기간 이와 같은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게 단지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 스타일”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지영은 이와 같은 한계를 느끼며 2011년 가을 기타교실을 관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지영은 “결국 자기 연습이 중요해”라며 동사무소 기타교실에 남는 걸 선택했다. “어쩔 수 없어. 연습을 할 수밖에”라는 말에 강사와 모든 구성원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 하거나, “시간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못 해” 혹은 “안 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기타 연주 혹은 음악 이론 이해를] 하게 돼”라는 믿음으로 참여를 이어간다. 취미교실 참여에 이들의 시간적 조건이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하다. 시간은 “없다”는 말과 함께 이야기될 때는 연습 부족의 변명이 되고, “간다”는 말과 함께 이야기될 때는 연습이 축적되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체험적 깨달음이 된다. 이지영은 가장 오래된 기타교실 참여자로서 연습의 가치를 몸으로 배운 대표적인 경우다.

이미 말했듯, 이지영은 2011년 가을 “맨 날 똑같아서 지겨워”하던 기타를 개인적인 사정을 계기삼아 그만 두려고 했었다. 그녀의 말처럼 수업에서는 맨 날 비슷한 걸 가르쳤고, 혼자서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선 더 기대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야해”라는 그녀의 말처럼 “동사무소 스타일”의 한계를 아는 사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약 한 달을 쉰 후 기타교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이전보다 확연히 더욱 열심히 기타를 배우고 있다. 다시 돌아온 데에는 기타교실의 다른 참여자인 박인정의 권유, 그리고 그 무렵 결성된 기타교실 내 친목“모임”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그녀는 내게 “그 동안 많은 걸 했지만 이렇게 모임이 생기게 된 건 처음”이며,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유대관계”가 생겨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어도 계속 기타교실에 나오실 거냐는 나의 질문에 이지영은 “응, 한 번 계속 해보려구. 어디 이사 가지 않는 한 계속 해보려고”라 답했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나는 “기타가 지겨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라고 말하게 된 그녀의 계기가 궁금했다. 이전에도 이지영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며, 늘 남아서 연습을 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중단 후 다시 돌아오면서 음악 이론을 이해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보였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많아졌다. 원래도 가장 오래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기타 연주를

지도하는 일은 있었으나 음악 이론을 함께 설명하는 일은 분명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이었다. “집에선 거의 [기타 연습] 안 해”라고 말하던 그녀는 겨울 무렵 새 기타를 장만하면서 연습도 더 많이 하게 되었으며, 최근엔 강사의 이론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기타 줄을 “직접 하나, 하나 그려”본 후 다른 구성원들에게 좀 더 분명한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이론하고 치는 거하고 관련이...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지영 :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연습하라고 그러는 거야. 스켈링<sup>14)</sup> 연습을 해야 각 줄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 이걸 많이 해야 계이름을 익히고 칠 수가 있으니까.

연구자 : 아. 그렇구나.

이지영 : 어.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집에 가서 한 번 그려봤어. (종이를 하나 꺼내 보여준다. 기타 줄과 칸을 그리고 각 줄과 칸 마다 계이름을 적은 종이다)

일 동 : 우와~

이지영 : 이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구. 선생님이 왜 파워코드<sup>15)</sup> 잡는 거 알려줬잖아. 영업용이라구. F코드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 하이코드<sup>16)</sup>로 이렇게 잡으면 힘든데 이렇게 잡으면 쉽잖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잡으라고 하나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파라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더라구.

일 동 : 와, 그런 거구나.

이지영 :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 해.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냥 암기만 하면 금방 잊어먹고. (...) 이게 관계조 이런 것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노래를 보면 코드 진행을 알겠어. 이게 익숙해지면 악보

---

14) 스케일(scale), 곧 음계를 익히는 연습을 두고 이지영은 “스켈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지영의 말은 아니고 강사의 표현으로, 기타 연주와 관련해 두루 쓰는 표현이다. 음계를 익혀야 기본적인 노래 반주만이 아니라, 음에 따른 다양한 자유연주와 작곡, 솔로 기타 연주가 가능하다.

15) 록(rock)음악에서 주로 애용되는 코드(화음)로 3도의 음을 뺀 코드를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좀 더 강한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기본음과 5도 음만 잡기 때문에 바레코드(하이코드)나 개방코드(로우코드)보다 쉽다.

16) 바레코드(barre cord)라고 하며, ‘하이코드(high cord)’는 일본식 용어다. 검지로 한 개의 프렛에 있는 6개의 줄 모두를 잡아 소리가 나게 한다. 바레코드를 해야 F, B코드를 칠 수 있고, 나머지 코드들도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한 프렛의 모든 줄을 손가락 하나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방코드에 비해 어렵다.

없어도 아, 여긴 음이 좀 높고 이러니까 이 코드로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 같아. 음악이 정말 수학이야. 응.

그녀는 동사무소 기타교실의 한계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대신, 이곳과 이곳의 강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선택했다. “이론을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하이코드를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라는 평처럼 이곳의 강사는 그저 노래 반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화성학 등 이론 수업을 한다. 원리를 바탕으로 기타를 다양하게 연주하고자 시도하며, “오래 하려면 이렇게 이론을 알고 제대로 해야지. 맨날 노래 부르고 반주만 할 거야?”라고 참여자들을 독려한다. “악보 볼 줄도 몰라”라며 어렵게 여기던 참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는 순간”과 조우하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기타교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TV를 보면서 그냥 기타를 안 배운 사람은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상관 안 하고 아, 그냥 음악이구나. 듣기 좋다 그럴 텐데 기타를 치는 사람은 아, 저걸 어떻게 치지? 아, 저건 뭐, 쿵쿵짜짜 저렇게 치는구나. 저 주법은 저렇게 치는구나. 그런 것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 (웃음)

“필요를 못 느끼던 이론도 이해가 되니까 도움이 되고 더 재밌다”는 걸 알게 된 이지영은 강사의 수업방식이나 운영체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연습”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음악이 수학이야”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이제 자신의 체험 속에서 확인한 그녀는 “기타가 참 끝이 없다”며 기타를 배움으로써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에 즐거워하고 있다. 그녀의 다짐처럼 한동안 이지영은 기타교실을 계속 찾을 것 같다.

## 2. 김혜숙의 이야기 : “혼자 노는 법을 배우려고 왔어”

이지영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참여 태도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 김혜숙은 흐름을 보기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참여 이유와 의미가 분명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특징적인 사례다. 취미교실을 찾은 중년 여성들 대개가

“이 나이가 되니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하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려고 찾아 왔습니다.”라고 첫 인사를 한다. 나는 김혜숙도 그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았으며, 특히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퇴임한 경력으로 미루어 보아,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겠다고 짐작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 기타와 미술을 하게 됐는지 묻자, 그녀는 내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김혜숙 : 미술 같은 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해봐야겠다. 근데 악기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더 접하기가 힘든 거야. 학교 다닐 때도 안 좋아했어요. 음악 시간에 도망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도 못 하니깐. 맹탕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왔지. 오기는 왔는데 하~나도 몰라요. 못 하지만 한 번 해보아야지. 남들도 하는데.

연구자 : 그래도 음악을 싫어하진 않으셨나 봐요?

김혜숙 : 싫어했어요. 관심이 없었어.

연구자 : 와, 그럼 낯선 거에 대한 도전이시네요.

김혜숙 : 그렇죠.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한 번 해보자. 그런 거죠.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중년의 전환기를 통해 취미교실을 찾은 다른 여성들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기타에 대한 이야기는 생소했다.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타는 관심도 없었던 그녀는 의도적으로 기타, 음악이라는 “낯선 것”, “안 좋아하던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습관처럼 “하나도 모르겠어”, “맹탕이야”라고 말하던 그녀의 사정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그녀에게 기타는 “도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흥미로웠다. 이곳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이 들었는데 어렵고 힘든 거 하지 말고 쉽고 재밌는 거 해”다. 그러나 김혜숙의 도전, 이지영의 기타에 대한 태도 변화, 앞으로 살펴볼 최옥희의 미술학습에 대한 계획은 이들 중년 여성들이 단지 안주에 만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도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함을 보여준다.

김혜숙의 경우 다른 대화의 자리에서 그녀가 왜 음악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교 다닐 때 기악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정말 용기를 내어 선생님을 찾아갔다. ‘저도 기악부 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는 음악 점수도 못 받으면서 무슨 기악부냐’며 거절했다. 정말 상처받았다. 이제 이 나이 되니까 한 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 내서 온 거지.

사실 그녀는 음악을 안 좋아했다기보다는, 학교 다닐 때의 상처로 인해 음악과 담을 쌓고 살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나이가 드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다른 여성들과 김혜숙의 기타 교실 참여 이유가 다르지 않았다. 그녀 또한 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음악을,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하지 못 했던 미술을 60살 언저리에 시작하고 있었다. 다만 김혜숙의 경우,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녀가 취미교실을 찾은 데에는 “혼자 잘 노는 걸 익혀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왜 김혜숙은 “혼자 잘 노는 걸 익혀야”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퇴보를 하잖아요. 안 하면. 내 발전을 위해서 혼자 노는 방법을 알아야지. 애기는 궁금해 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그런데 노인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 자기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를 관리를 해야 해요.

그건 그녀 나름의 노후 대책이었다. 김혜숙 이외에도 취미교실을 노후 대책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혹은 “손주들에게 기타 연주를 해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기 위해”,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나 김혜숙은 다가올 노후를 위해 “혼자 노는 방법”을, 더 정확히는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취미교실을 찾았다. 이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녀가 나이 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깊이 연관된다. 김혜숙이 나이 드는 것을 “외로운 것”, “고집이 세지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아래의 대화 내용은 그녀가 외로움, 나이 드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죽음 또한 그저 부정적인 것 그리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외로움은 “날 때

부터 피부처럼 붙어 있는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러하기에 그로 인해 제약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죽음은 두렵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손님”이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 집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죽음도 손님이랑 똑같은 거야. 나는 이제 그 집을 찾아들어가는 거잖아. 시집을 갈 때도 그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준비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고 경제적인 여건이든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마지막으로님을, 죽음의님을 맞이해야 하는 거잖아. 그럴려면 뭔가를 제대로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녀의 성찰적 태도가 “관심도 없던 음악”에 도전하게 했고, “재미있지 않아”도,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녀를 취미교실로 이끌었다.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늘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쓴 그녀는 퇴임 전 노후를 위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빵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두었다.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하는 편”인 그녀가 어렵고 낯선 기타를 꿈에서도 연습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그녀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김혜숙은 내가 만난 취미교실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언어로 자신의 체험을 교육과 연결 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녀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구에도 가장 호의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연구자 : 응. 정말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세요. 마음가짐이.

김혜숙 : 그래? (웃음)

연구자 : 네. 목표가 있으시고 뭔가 배울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지 않으신 거잖아요.

김혜숙 :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부도난 기업체랑 똑같다고 봐, 나는.

연구자 : 네. 그런 게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혜숙 : 그래. 뭐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러면. 매일 매일이 그냥 오늘이야.

그러나 나는 김혜숙의 이야기에서 그녀를 취미교실로 이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일종의 “답답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금껏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먼저의 이야기와 다소 모순된다. “다시 해도 [교직을] 하고 싶어”라는 말과도 어긋난다.

나는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박근혜나 한명숙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아무 것도 없어, 진짜.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어, 야. 누구는 이런 말 하면 ‘아 키웠잖아.’ 이러는데 애는 누구나 다 키우는 거잖아. (…)(웃음) 그래서 힘드니까 남이랑 비교 안 하려고. 그냥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비교하려고. 아, 오늘도 안 아프고 잘 지냈어. 내일은 좀 더 잘 지내야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말고.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

어떤 가지적인 성과가 중심이 될 때,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평가될 때 대개의 삶은 “아무 것도 하지 못 했다”는 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삶의 의미란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님을 모르지 않지만 질적인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가 우선인 분위기에서 나 또한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그녀의 답답함에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연구참여자들 다수가 이 문제와 관련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 이것이 생애 발달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취미교실 참여도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숙처럼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취미교실을 찾은 경우도 있고, 먼저 살폈던 이지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취미교실 참여의 의미를 성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디에 가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을지 등 취미교실 선택의 조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내가 J쇼핑몰에서 미술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여기 기타교실을 하던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여기를 이제 잘 가르친다고 추천을 해줘서 온 거거든. 자기가 한 7개월을 했는데 선생님이 초급자들을 따로 뒤에 모아놓

고 가르쳐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잖아. 예전에 내 옆에 앉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타] 선생님한테 초급자들 따로 모아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잖아. 사람이 없으니깐. 초급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학생도 그만 나온다고 하잖아.

열성적인 학생, 김혜숙은 음악과 기타에 “완전 맹탕”이지만 “여기 기타교실 선생님이 초급자를 따로 모아서 친절히 알려준다”는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온 2011년 12월에 “신입생”은 김혜숙 한 명 뿐이었고, 수업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기타교실은 1월을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받는데, 원칙은 이러하지만 상시 접수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혜숙은 12월 중순쯤 등록한 경우인데, 이상의 운영 조건 상 “1학년” 동료도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정말 문제는 새해를 맞이해 찾아온 신입생들도 한두 번의 출석 이 후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 하고 그만 둔 것에 대해 기타교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한다. 다 자신이 겪은 일이거나 겪고 있는 일이다.

김혜숙 : 나는 기타 와서도 치면서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만 둘까’ 생각해요.

박인정 :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언니.

김연주 : 나는 아직도 그래.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이걸 가, 말아. 너무 어려워. 이거 우리 예전에 했었어?

박인정 : 했어.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연습을 안 했지. (김혜숙에게) 언니, 그걸 넘기면 이제 좀 알아듣고 할 수 있어.

김혜숙 : 내가 그림도 하거든요. 그림 그리러 가서도 꼴등, 기타 와서도 꼴등.

박인정 : 언니, 힘을 빼야 돼.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런가보다’ 그러고. 하하.

이지영 : (김혜숙에게) 언니가 월반을 해서 그래. (웃음)

김연주 : 같이 들어 온 좀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좀 같이 봐줄 텐데 없으니까 그냥.



김혜숙은 들어오고 만 두 달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둘까, 말까”를 고민 하면서 고군분투했다. 기타에 “맹탕”인 그녀는 혼자서는 제대로 기타를 하고 있는 지조차 알 수 없었고, 함께 배울 “1학년”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기초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가 좀 더 편안하게 질문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기타교실의 강사가 아니라, 옆에 앉은 “선배”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조금씩 기타에 재미를 붙여오고 있다.

연구자 : 와, 이젠 그냥 보기만 하셔도 아시는 거예요?

김혜숙 : (쓱스러운 듯 웃음)

연구자 : 금방 배우시네요. 이제 두 달? 그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김혜숙 : 아냐~. 한 달 반!

연구자 : 그거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배우신 거예요?

김혜숙 : 아니야. 몰라. 근데 이제 집에서 해보니까 학교종이 땡땡 땡 이 런 건 이제 멜로디로 치겠더라. (웃음)

연구자 : 우와, 많이 느셨네요.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김혜숙 : 응. 줌. (웃음)

연구자 : 이제는 좀 재미있으시죠?

김혜숙 : 이제 좀 재밌어지네.

하지만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집에서 혼자 해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선배”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혼돈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려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배워 볼 의지가 강한 김혜숙은 결국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섰다.

내가 여기 동사무소에서 기타를 배운 게 이제 두 달이 됐는데 기초가 부족하잖아.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기초를 배우면 여기 같이 좀 따라갈 수가 있겠다 싶어서 어디 배울만한 데가 없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평생교육원에 초급 강좌를 따로 하니깐 그리로 오라고 알려주는 거야. (...) 선생님은 [나보고] 이 쪽, 저 쪽 다 하면 돈이

부담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하등 되지가 않으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얼른 배워서 나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한 3개월 배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걸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기타만이 아니라, 미술도 “진도를 같이 따라가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3월부터 평생교육원의 기타교실에 나가고 있는 김혜숙의 말로는 그 곳도 초급반을 따로 개설한 건 아니며, 다만 한 장소에서 그룹을 분리해 강사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지금 나와 김혜숙이 함께 다니는 기타교실 강사가 그곳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고 했다. 강사도 같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를 게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따로 가르친다는 점이 김혜숙이 말하는 그곳의 장점이다.

김혜숙 : 거기는 이제 나랑 같이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몇몇 되고 그 다음은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더라구. 초급반을 아예 따로 가르쳐.

연구자 : 아~, 아예 장소가 분리되어있어요?

김혜숙 : 아니.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시간을 나눠서 가르쳐. 초급반 시간을 한 시간을 따로 있어. 아예 시간을 딱(강조) 해서. 아~주 기초부터. Am 잡아라,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시간은 30분씩, 30분씩 하더라구. 한 반 년이나 일 년 된 사람들을 이제 한 30분, 그 다음 3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 30분 이렇게 시간을 딱딱 나눠서 하더라니깐.

연구자 : 아~ 시간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김혜숙 : 응. 이걸 그러니까 초급반은 한 시간만 하고 보내. 그 다음에 중급반이랑 고급반은 30분씩, 30분씩 해주고. (...) 거기[동사무소]는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기초를 차근차근 배우려면]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하는 거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사무소 기타교실의 “나머지 공부” 시간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평생교육원은 “노인네들이 많

아서 분위기가 쳐져”있어 재미가 덜 하기 때문이다. 이지영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김혜숙도 동사무소 기타교실의 “화기에애한 분위기”, “인생사에 대한 노닥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했다. 게다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즐거움 역시 평생교육원과 비교되는 기타교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었다.

김혜숙 : [기타 수업을] 두 번씩 하나까. 그치? 도움은 되겠지? 그치? 그래서 3개월만 여기서 하고 이제 그 쪽 분위기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동사무소 기타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 남아서 이제 연습하는 거. 그게 참 좋았잖아. 그치?

연구자 :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김혜숙 : 응. 인생사도 [이야기 하고]. 그치? 그런데 여기 [수업]시간이랑 바로 [수업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다시 그리로 가고 싶더라고. 반장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더 재밌더라고.

효율성과 즐거움 양자 간 선택을 해야 했던 그녀는 아쉬움을 누르고, 당분간 평생교육원 수업을 듣기로 했다.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진 그녀이기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배우려면 기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간 “즐거운 나머지 공부” 대신 기초 수업 듣는 걸 선택했다. 그녀에게 기타를 배운다는 것,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활력”이고, 여기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지향하는 “취미교실” 참여는 깊이 있게 꾸준히 배워나가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얕은 지식”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지영의 “한 우물을 파야했는데”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김혜숙은 “목표가 있는 2등이 목표가 없는 1등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 또한 장단기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취미교실에 대한 그녀의 의지, 교육을 통한 성장의 의미를 긍정하는 그녀의 태도는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기타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김혜숙의 몇 달 후가 기대된다.

### 3. 최옥희의 이야기 :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돼”

이지영과 김혜숙이 기타교실의 “모범생”이라면, 최옥희는 이지영 다음으로 오래 다녔으나 결석이 잦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돼”라는 태도가 특징적이다. 그러다보니 음악 이론이라거나 다양한 주법을 새로 익히는 것에는 그다지 욕심이 없다. 일주일에 두 번 기타를 매고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기타를 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되는 것은 지금의 기타교실만이 아니라, 취미교실 시작의 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정신없이 바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최옥희는 “나는 이제껏 뭘 했지?”라는 질문과 조우했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온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일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나는 취미생활을 시작한 것도 애들이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었어. 내 친구랑 나랑 되게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한다는 거야. 한 40년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깐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그래서 찾아간 게 서예였어. 내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해. 나는 집에서 펜 쓰기 교본 이런 거 사다가 혼자 쓰고 그랬거든.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잊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새삼스럽게 고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서예였다. “그 이전에도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아침에 운동 하고” 오는 등 취미활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두고 “취미생활을 시작한 것”이라 표현하며 질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 이전의 취미활동은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일상의 연장이었지만 서예는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예는 “내 삶의 의미”에 대해 새삼스럽게 질문하게 된 사건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비롯되는 듯 했다. 서예를 하면서 그녀가 기대한 것, 참여 태도, 참여 의의도 이전의 활동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계기가 되어 시작했으나, 그것은 단순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과는 달랐다.

연구자 : 아까 서예를 하게 된 게 친구 전시하는 걸 보면서 나는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서예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셨어요?

최옥희 : 응. 좋았어. 나는. 그 때는 막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거[친구와의 비교]랑 상관없이. 내가 그 시간이 되면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웠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 또 나는 재료도 선생  
님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사동 돌아다니면서  
연습종이니, 붓이니, 먹이니 다 직접 샀거든. 내 돈으로. 비싼  
걸. 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 시간이 되면 갈 곳이 있다는 것”, “내 돈으로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최옥희의 말, 자신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그걸로 해소했다는 말  
은 인상적이었다. 딱히 어떤 성과가 중요했다기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  
다”는 느낌이 더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기쁘게 참여했  
던 서예를 도중에 그만 두었는데, 강사가 주는 부담이 그녀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  
다. 원래 다니던 서예교실의 강사는 “엄마들이 뭘 배우러 시간을 빼서 온다는 것  
자체”를 높게 평가했지만 옮긴 곳의 강사는 그 이상을 요구했고, 최옥희는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녀의 이와 같은 부담은 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잘 하지도 못 하는데 낙관을 찍게 하는 강사”, “자기는 잘 못 해도 다른 사람 작  
품은 평가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 전시회가 당시 그녀에게는 “스트레스”였다.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그만 둔 서예교실 대신 그녀는 “부담 없이 즐겁게”할 수  
있는 기타교실을 시작했다.

최옥희 : 부담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그래서 기타가 좋은 거  
잖아.

이희정 : 맞아, 언니. 기타는 가서 노래 부르면서 치고 그러면 되니까.

최옥희 : 응. 그래서 기타가 좋아. 기타는 뭐 남는 게 없잖아. 미술 이런  
거는 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못

한 부분이 보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있지. 숙제도 있고. 누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선생님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처음에 서예 하던 거기 선생님이 참 좋았어. 그 선생님은 엄마들이 이렇게 뭘 배우러 시간을 빼서 온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제 옳긴 선생님은 막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 기타 선생님이 좋아. 숙제를 안 해도 되잖아.

이희정 : 근데 우리 선생님은 좀 완벽하길 바라는 것 같애. 우리가 직업을 바꾸길 바라는 것 같아. 하하. 그냥 노래 반주하는 거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치면 되는데 막 이론 가르치고 복잡해. 머리 아파.

최옥희 : 응. 근데 또 이제 좀 열의가 있는 엄마들은 막 배우잖아. 물어보고. 나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돼.

위의 이희정의 말처럼 사실 기타교실의 강사는 음악 이론도 많이 가르치고, 기본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기타를 더 다양하게, 더 잘 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 면에서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최옥희가 기타교실을 부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타는 서예와 달리 남에게 보이게 되는 전시회, 해가야 할 숙제가 없기 때문이다. 강사 또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애쓰는 것과 별개로, “주부들이 얼마나 바쁘지 안다”며 연습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핀잔을 주는 등 부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희정과 최옥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희정이 토로하는 기타 강사에 대한 부담은 강사가 기대하는 수준에 자신이 이르지 못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반면, 최옥희는 이희정과 달리, 자신이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나이도 있고,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예교실처럼 평가 받는 상황을 그녀는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해보라고 하는 드럼 교실에 대해 최옥희가 “난 그런 건 못 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제대로 치는 곡이 없다”는 상황이 마냥 아쉽지 않은 건 아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담스러운 것과 제대로 배워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에 어떻게 기타교

실을 찾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다음과 같은 답을 했었다는 걸 새삼 발견했다. 무척 뚜렷한 목적을 당당하게 밝혔던 그 날이 떠올랐다.

최옥희 : 응. [서예는] 글씨 쓰는 거니까 60이 넘어도 할 수 있으니까.

박인정 : 맞아.

이지영 : 그렇죠. 글씨 쓰는 거니까. 응.

최옥희 :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서예 써봤던 게 있으니까.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접고 이제 기타를 해야겠다. 잘 못하지만 손을 잘 놀리면 치매를 안 걸린다 싶어서. 그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 봐줄 때 할머니가 재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녀는 치매 예방, 멋진 할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갖고 기타교실을 찾았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평상시 기타교실에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이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의 이와 같은 목표가 다소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말처럼 취미교실은 단지 “즐거우려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목표가 힘을 잃었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연유로 취미교실에 대한 기대, 참여 방식, 참여 의의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그녀의 취미교실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최옥희가 최근 겪고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떠올렸다. 연구를 위해 기타교실을 찾았을 무렵, 최옥희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두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하나는 “자녀와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라 했다.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편인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저 언니는 사랑이 참 많아”라고 고들 하는데, 그런 그녀인 만큼 두 과제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커보였다.

최옥희 : 남들은 나이 먹기 싫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 나는 왜 빨리 50대가 되고 싶다고 하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랬어. 근데 50이 딱 되니까 한 쪽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한 거야.

연구자 : 아, 그렇구나.

최옥희 : 응. 왜냐면 애들이 이제 컸잖아. 그러니까 애네들을 나한테서 떠나보내야 해. 이런 숙제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50대에 접어드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축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

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4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박인정 : 그렇지.

최옥희 : 그런데 50대가 딱 되고나니까 내가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죽는 시간이 가까워지는구나. 숙제가 두 개야. 나는 우리 부모님 다 살아계시거든.

일 동 : 응~

박인정 : 친부모?

최옥희 : 응.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시니까 이별하는 것도 난 지금 안 돼.

연구자 : 어~(공감) 진짜 힘드시겠다.

최옥희 : 응. 그러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자 말을 끊고 민망한 듯 웃음)

그녀가 겪고 있는 우울함은 흔히 중년 여성의 우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동안 자녀와 남편을 돌보는 데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이 시기에 겪는 공허함이 특히 크다고 하는데, 최옥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듯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최옥희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그녀에게 “언니도 언니 삶을 살아야지.”라는 조언은 그리 적절한 것만은 아니었다. 최옥희에게 자신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은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그녀의 성취감, 삶의 의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5살 정도 어린 이지영이 이미 이런 “숙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한 것과 비교하면 최옥희는 이를 늦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지금까지 한 집에 거주해온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엄마”로서의 삶을 중심에 두었던 최옥희의 생애, 그녀의 정체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최옥희는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나면 나머지는 여생”이라는 남편의 말에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치매예방”을 위해, “손주들에게 기타연주를 해주기 위해” 기타를 한다는 이야기 역시 자녀와의 관계 맥락에서 “여생”을 준비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던 그녀가 무엇을 위해가 아니라, 그저 기타 치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강조하며 겪게 될 부모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을 “너무 앞서 걱정하지는 말아야지”라 말하게 된 건 좀 더 최근의 일이다. 여전히 그녀에게 앞으로의 삶은 말 그대로 여성, 남은 생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녀는 “큰 건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건강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한 오늘”을 바란다. “배우는 것엔 관심 별로 없고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해”라는 취미교실 참여 태도도 이와 연결된다. 이러한 삶과 죽음 그리고 배움에 대한 태도는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는 김혜숙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요즘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쩡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 나는 아직 겪지 않았거든. 생각하면 앞으로 편찮으시고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길까봐 마음이 그런데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아야지. 그러지 말고 현재를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저기 봐. 그 아픈 친구. 기타 하다가 못 나오는. 그 친구 나보다 6살이 어린데도 참 힘들었더라구. 뭐 배도 훑아보고 그랬다더라.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 해서 명품 가방도 사고, 명품 도자기도 사서 집에 찬장에 넣어놓고 그랬는데 아파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잖아. 안타깝더라고. 현재를 그냥 잘~. 후회 없이.

그녀에게 가족은 여전히 우선 순위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모임을 원하고 있다. 또한 “갱년기”를 잘 넘기고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사는 “언니”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친구의 죽음, 우울증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난 몇 달 사이 최옥희는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최옥희 :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거든. 근데 그 모임을 계속 해야 할 지 고민이야. 너~무 재미가 없어.

이희정 : 왜?

최옥희 : 학교 친구들인데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애. 정해져 있어. 남편 얘기, 애들 얘기, 개 얘기, 그리고 가방이나 악세사리.

일 동 : 어~, 맞아, 맞아.

최옥희 : 아니, 아직도 애들 얘기를 해. 애들이 더 어릴 때는 뭐, 수능 보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애들이 다 사회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뭘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듣기만 했어. 우리처럼 좀 친구들이 모이면 가족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우리 이야기. 재밌는 거를 같이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서예를 그만두게 했던 평가에 대한 부담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최옥희는 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예를 그만 두었을 당시의 그녀였다면 남에게 보이는 것,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 취미교실 이외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이전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녀는 “나이도 들고,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위하여 취미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졌다. 글씨가 좋아서 시작했던 P.O.P를 통해 자신 없었던 미술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것도 그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두 가지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녀는 미술을 배우려 할 것 같다. 함께 미술교실을 갈 자신과 같은 “초보 엄마”, 평가와 비교로 부담을 주지 않는 강사. 이 두 가지가 그녀가 꿈꾸는 조건이다.

#### 4. 조문선의 이야기 : “배우는 데 별로 흥미 없어”

조문선은 이제껏 살펴본 세 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유일하게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단 이 차이가 그녀의 가장 빈번한 이야기거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그녀의 생활을 이해하는 게 그녀의 삶과 취미교실 참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초에 만난 조문선은 직장을 매우 힘겹게 다니고 있었다. 사정은 8월부터 근무지가 이동된다는 결정이 나면서 나아졌다. 당시 그녀가 근무하던 C 대학(17)은 대학 내 여러 근무지 가운데 일이 많지 않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그렇다면 일이 주는 스트레스도 적고 편할 법한데 오히려 그녀는 당시를 두

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일 없는 게 제일 힘들었어. 일 없는 게. 차라리 있잖아, 일이 있으면 일에 신경 쓰고 다른 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일만 하면 하루가 후딱 가고 좋아. 내가 막 일이 막 바쁠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 하고 딱 끝내고 집에 가면, 내가 막 아~ 너무 좋다고. 이제 옆에 있는 여직원한테 오늘,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어. 아무 것도 신경 쓸 것 없고 내 일만 하다 가잖아. 그랬다니까.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야.

당시 그녀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이 있으면 다른 건 신경을 안 쓸 수 있어”라는 조문선의 말은 일 자체에 대한 그녀의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녀를 알아오면서 조문선에게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조문선 : 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다니까. 하하. 주말에 이렇게 쉬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좋아. 마음이.

연구자 : 어머, 그러세요? 직장인들 월요일이 있다던데. 신기하네.

조문선 : 그러게. 나는 좋아. 집에만 가만있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C대학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 땐 정말 그만 두고 싶더라구.

연구자 : 응. 맞아, 그러셨죠. 그 때보다 훨씬 좋아보이세요.

조문선 : 여기도 처음 왔을 땐 일이 바빠서 힘들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연구자 : 맞아. 오히려 바쁜 게, 할 일이 있는 게 의미도 있고.

조문선 : 맞아~. 여기서도 내가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거기서는 존재감도 없고. 여기는 내가 [일의] 중심이니까. 존재감이 확실하지.

연구자 : 그러게요.

조문선 : 그러니까. 존재감이란 게 정말 중요한가봐. 그치?

---

17) 그녀는 20년 가까이 푸른대학교에서 일 하고 있는 교직원이다. 4~5년마다 근무지가 이동되는데, C 대학은 내가 조문선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근무지였다. 이곳은 푸른대학교 내의 단과 대학 중 하나다.

연구자 : 네. 정말.

조문선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고 있었다. 교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딱히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sup>18)</sup>, 별로 변화하는 게 없어 지겨운 면도 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근무지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을 통해 성취감, “존재감”을 얻고 있다는 점이 그녀가 스스로를 “일하는 체질”이라 부르게 만든다. 이지영이나 최옥희가 취미교실을 찾음으로써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조문선은 일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 해보였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 “전업주부”는 자신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조문선은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치지 않기 위해”, “삶의 활력을 위해” 자기 일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도 티가 안 나”는 집안 일은 물론, 아이들 키우는 일 역시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문선 :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을 해야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남편이 돈 벌지 말고 집에서 애 키우라고 했을 때 ‘그럼 당신이 집에 있어’ 그랬잖아. 하하.

연구자 : 맞아. 그러셨죠. 잘 하신 거예요.

조문선 : 집 안 일은 뭐 맨날 해도 티도 안 나고. 지겹지.

연구자 : 맞아요. 그 이야기 다들 하시더라고요. 집 안 일은 해도 뭐.

조문선 : 그렇지.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지저분하고. 반복되고.

연구자 : 맞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분들이 이제 애들이 커서 독립을 하면 우울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조문선 : 그렇지. 우울해지는 거지. 할 일이 없으니까. 전업주부도 힘들 것 같애.

연구자 : 그런데 제가 ‘자녀 잘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업주부 분들은 ‘애는 다 키우는 거지, 뭐. 내가 한 거 없어’ 이렇게

---

18) 조문선은 어릴 적 꿈이 영어교사였다고 말했다. 영어 과목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직업이 교사였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시골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직업이 교사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그녀의 말이다.

말하세요.

조문선 : 애는 지가 크는 거야. 내가 뭐 하나.

연구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미라는 게 참 자녀와  
는 또 다른 건가 봐요.

조문선 : 그럼, 다르지.

이렇듯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 둔 이지영, 최옥희의 사례와 대조된다. 반면 두 아이를 모두 시부모에게 맡기고 자신의 일을 이어간 김혜숙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엄마가 일 한다고 애들이 뭐 다 이상하냐? 그건 아니야.” 라며 자신의 선택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김혜숙과 비교한다면 조문선은 상대적으로 “일 해서 애들이 좀 서운해할까봐 신경 쓰인다”며 종종 걱정을 내비추곤 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고 주말이 와도 조문선은 밀린 가사와 가족들 끼니를 챙기느라 여전히 바쁘다. 잘 챙겨주지 못한 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주말에 외출을 하더라도 식사는 미리 꼭 챙겼다. 아직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에 다니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느끼는 책임감, 부채감이 성인 자녀를 둔 다른 연구참여자에 비해 클 거라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지영과 비교한다면 자녀가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차이 못지않게 가족생애주기, 특히 자녀의 상태가 연구참여자들의 매우 중요한 상황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조문선은 그녀의 표현처럼 정말 “윈터우먼”같다.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그냥 쉬는 시간이 없다”는 조문선은 “문화생활 교육은 물론 가족에 대한 걱정도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sup>19)</sup>

그런 그녀가 3년 째 요가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은 “건강을 위해서”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수영을 했고, 헬스, 에어로빅도 했지만 3년 전 갑자기 오른쪽 팔과 어깨가 아프면서 요가를 시작했다. “치유”를 위해 시작한 요가 덕분에 그녀는 “몸의 불균형을 알게 되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요가가 자신과 잘 맞는

19) 하지만 그녀도 지난 가을 즈음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취업주부들과 달리 힘들어도 방 구석구석 손 걸레질을 하고, 아이들 교복을 손수 빨며 주중에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보상하고자 했던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제 그녀는 “애들도 엄마가 맨날 해주는 것보다 맛있는 거 시켜주면 좋아하지, 뭐.”라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외출을 나서고 있다.

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문선은 일주일에 세 번 하는 월수금 다이어트 요가교실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화목 요가교실을 모두 다니고 있다. “요가를 해야 몸이 풀린다”면서 그녀는 수영을 하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체육센터를 찾는다. 나는 그녀와 함께 다이어트 요가교실에 참여했는데, 조문선은 우리 반의 최고 ‘고참’이다. 하지만 조문선은 “오래 하셨네요”, “잘 하시네요” 라는 말을 한사코 부정하며 “남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 늘 맨 끝자리에 앉아 요가를 한다. “앞에 앉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좋다”는 걸 잘 아는 그녀지만 “잘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뒷자리가 편하다고 한다. 주로 50세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참여하는 화목 반의 경우에는 “다들 뒷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때는 앞에 앉게 된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연령에 따른 참여 태도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조문선 : 아니, 화목은... 다 내 나이 또래보다 많거나 그래서 [요가를] 못 하죠, 화목은. 화목은 더 못 하고 월수금은 앞에서부터 짝 자리 잡잖아요. 화목은 뒷자리부터 자리 잡고 앉아있어. 하하하. 못 하니까. 응.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 뒷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앞에 가서 앉는다니까.

연구자 : 그 중에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조문선 : 못 하는데 나는 원래 뒤에 앉는 거 좋아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앞으로 가죠.

연구자 : 왜 뒤에 앉는 게 좋으세요?

조문선 : 앞에 앉아있으면 뒤에서 누가 보는 게 싫잖아. 누가 보는 게. 뒤에 있으면 안 보니까. 근데 앞 쪽으로 가면 집중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애.

연구자 :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조문선 : 좋아요, 앞 쪽이. 선생님도, 동작도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잖아. 좋긴 더 좋아. 앞 쪽이. 집중도 더 잘 되고. 저기, 선생님 동작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앞 쪽에 앉으면.

“못 한다”고 말은 하지만 3년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문선은 많은 동작들을 큰 어려움 없이 해낸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령 운동을 병행하는 월수금 요가에 비해 요가 동작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화목 요가를 그녀는 선호한다. “좀 더 몸이 풀

린다”는 게 그녀가 꼽는 이유다. 하지만 “다들 아파서 온 거지.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하고. 아줌마들이니까. 월수금은 아가씨들이라 그런지 서로 인사도 잘 안 해.”라는 이야기에서 화목 반을 선호하는 다른 이유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몇 달 전 조문선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요즘 화목 요가 너무 재미없어. 하던 선생이 딸이 있는 외국에 나가서 10월말에 돌아오는데 대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이 목소리도 작고, 표정도 없고, 동작도 같은 것만 반복하고, 한 명 한 명 봐주지도 않아. 월수금 선생이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것도 선생이 중요해. 얼른 원래 선생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강사의 사정으로 잠시 다른 사람이 화목 수업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 전에는 월수금과 화목 두 교실을 비교할 때 강사에 따라 선호도가 평가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화목 수업강사에 비해 월수금 반의 강사가 동작이나 음악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었다. 이때 “재미가 없다”는 건 “같은 것의 반복”, “한 명 한 명 봐주지 않는 것”, “목소리도 작고 표정도 없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연구 참여를 제안했을 때 “요가는 배우는 게 아니고 혼자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교육 그런 건 아닌데.”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것도 선생이 중요해.”라며 자신의 요가교실 참여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맥락에 놓고 있었다.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당시 이 이야기를 했을 상황은 한편으로는 그녀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요가 체험을 통해 느낀 ‘교육’의 특징을 드러낸다.

조문선은 “내 몸이 좋아지는데 그만 둘 이유가 없지”라며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굳기 전까지 계속 [요가]할 거야”라고 말한다. 이렇듯 요가에 애정을 표하는 그녀지만 집에서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정작 하게 되진 않는다며 씩스럽게 웃음지었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게 “좋은 걸 알지만 하지 못 하는 이유”로 그녀가 꼽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다른 이야기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그녀는 “나는 배우는 데 별로 흥미 없다”며 이지영과 정 반대되는 정체성을 이야기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했다. 결혼하기 전 조문선은 퇴근 후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다”고 한다. 하지만 “목표도 없

고 끈기도 없어서” “고비가 오자 포기”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다시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대신 앞으로 시간이 나면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했다.

조문선 : 근데 나는 배우고 그러는 데 별로 취미 없는 것 같애. 기타도 그렇고.

연구자 : 응. 바쁘시고 그러니까 더 생각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조문선 : 여기[푸른대학교] 와가지고 영어학원에도 다녔고, 기타도 배우고 저녁에 시간 많잖아. 6시에 퇴근하면.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많이 배워봤지. 근데 뭐, 내 거 된 게 하나도 없어. 하하하. 배운 흔적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하하하.

연구자 : 하하. 잠깐 배우셔서 그런가?

조문선 : 하다가 고비가 딱 오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야. 다. 모든 게. 끈기가 없는 거야. 그치? 목표도 없고.

연구자 : 아. 좀 아쉽긴 하다.

조문선 :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됐을걸.

조문선이 “배우는 데 흥미 없다”고 할 때엔 특정한 이미지가 있었다. 이는 흔히 “특강”, “수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활동들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특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어려운 것”,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녀는 내용에 따라 “도움이 되는 교육”과 “써먹을 데 없는 교육”을 구분하기도 했다. 이 때 “나이”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소로 지적되곤 했다. 기타교실의 여러 참여자들과 동일한 지적이었다.

조문선 : 써먹을 일이 없고 요즘 하도 복잡하고 막 힘들어서 아휴~ 나 이거 포토샵 안 배우고 안 써먹는다고. 2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힘들어.

연구자 : 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건 없으세요?

조문선 :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없는데. (웃음)



그리고 보면 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강사가 가르친다고 해서, 어떤 특강이 열리는 강당에 앉아있었다고 해서 배우는 건 결코 아니다. 조문선이 말하는 “직원 교육”처럼 필요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 그녀의 결혼 전 피아노 교습처럼 동기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교육”은 오히려 그녀에게 “교육 관심 없다”는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요가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다.”라고 말할 때, 나는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에서 그녀의 삶에서 교육을 찾게 된다.

연구자 : 학교에서 직원교육하고 일 배우는 거랑 요가를 배우는 거랑 어떤 차이, 혹은 공통점 이런 게 있어요? 할 때 나의 마음이라던가?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조문선 : 음.. (생각) 글썄. 하하하.

연구자 : 음.. 똑같이 배운다는 말을 쓰는 데 혹시 다른 게 있을까 해서.

조문선 : (바로 치고 들어오며) 요가는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몸 푼다~? 이런 거. 뭐 동작을 배운다기보다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녀의 이러한 반응, 즉 취미교실 참여를 ‘교육’으로 의미화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반응은 기타교실 참여자들 다수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었다. 또한, 역설 같지만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를 해석하고 의미부여하는 이야기에 이미 교육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물론 교육학 연구라는 맥락을 의식하게 된다는 점이 이와 같은 공통점이 야기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일 년 이상 연구참여자들과 만나는 동안 나는 단지 연구에 대한 의식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교육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은 다양한 다른 언어들로 자신의 체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이야기했다. 그것들을 다시 “교육”이라는 언어로 포착하는 일을 맡은 나로선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게 다가왔다.

네 명의 여성들을 만나는 동안 나는 이들이 겪어온 사건들, 마음의 갈등과 화해들이 단지 개인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삶의 공허함, 어떻

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질문들이 불쑥 찾아드는 삶의 어떤 지점들은 그들 개인의 사적 역사 위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나 또한 무관할 수 없는 문화적 맥락 위에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자신들을 구분 짓고, 위치 짓는 다양한 기준들이 등장했다. 취업 여부, 연령, 학력, 경제적 여건 등으로 ‘우리’ 혹은 ‘그들’로 묶어지며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분석 기준을 활용해 좀 더 내밀히 살펴보기에 앞서, 네 사람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을 간략히 표를 통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미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풀어내었지만 표를 빌어 한 눈에 이들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취미교실 참여와 관련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즉 그들의 정체성을 비교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쪽의 <표 2>에서 보면 이지영과 조문선이 각각 “배움”과 관련해 꽤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배우는 데 흥미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현재는 물론, 과거의 삶과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이 삶과 교육을 관계 짓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이지영은 비록 자신이 “한 우물을 파는 것”은 못했지만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고,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조문선 역시 결혼 전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했고, “직원 교육”을 통해 여러 강좌 참여 경험이 있으나 그에 대해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배운 흔적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지영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활동 내재적인 흥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미래에도 계속 할 거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결된다. 조문선의 계획에 교육이 고려 사항이 아닌 것 또한 그녀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결된다.

김혜숙과 최옥희 역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정체성이 취미교실 참여 방식, 태도 등과 연관된다. 오랜 교사 경력과 독서 취미를 가진 김혜숙은 성찰적 태도가 가장 분명한 참여자다. 그녀가 목표를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취미교실에 임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반면 최옥희는 네 사람 가운데 가장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애정을 표한다. 그녀가 장기간 취미교실에 참여한 건 사실이나 결석이 잦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그녀의 관심과 에너지가 가정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주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 비교

	이지영	김혜숙	최옥희	조문선
정체성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목표 있는 사람”	“좋은 엄마가 꿈인 사람”	“배우는 데 흥미 없어”
참여 이유	“아이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 → “내 삶을 사는 것”	“해보고 싶었던 것과 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한 도전” “혼자 노는 방법을 배우려고”	“뭐 하고 있지?”라는 공허함 → “내가 즐거우려고”	“시간도 남고 해보고 싶어서” → “건강을 위해”
참여 방식	“이것저것 조금씩” → “기타를 꾸준히”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좋아하는 것 위주로 오래. 하지만 일이 생기면 부담 없이 결석”	“3년 간 요가를 계속 한 거지”
참여 태도	“열심히 안 해” → “연습이 중요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열심히 안 해. 힘들면 좀 쉬고”
즐거움	“생활의 활력” “알게 되는 즐거움”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알게 되는 즐거움”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나를 위해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몸이 풀리니까 좋지”
어려움	“나이 드니까 이해가 잘 안 가”	“혼자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어”	“앞에 나와서 해보라고 하는 것”	“나이 드니까 이해력이 떨어져”
방해요소	“나이” “써먹을 데가 없어” “체계성이 떨어지는 동사무소 스타일”	“신입생이 없어서 따로 봐주지 않아”	“부담 주는 강사” “가족 챙기느라 빠지게 되는 경우”	“피곤해서 못 해”
촉진요소	“할 수 있다는 용기” “취미교실에서 생긴 모임” “부담 없는 동사무소 스타일”	“뚜렷한 목표” “친절한 선배들”	“같이 갈 초보” “부담 없는 동사무소” “취미교실에서 만난 사람들”	“분명한 치유 효과” “함께 오는 남편”

그러나 네 사람 모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곧 온 종일 어머니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취미생활을 재/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이지영과 최옥희의 경우 “내 삶의 의미”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서 취미교실에 대한 태도, 해석이 질적으로 변화했다. 비슷한 시기, 일과 가정 그리고 취미를 병행해야했던 김혜숙, 조문선이 공허함을 느낄 새도 없이 양육과 업무에 “정신 없는 생활”을 해야했던 것과 대조된다. 반면,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시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에서의 책무로부터 가벼워질 수 있었던 때다. 그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역할이 크게 줄어들어 노년기로의 이행과 맞물리면서 “나이 들었다”는 생각에 이들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비슷한 연령대인 조문선이 아직 이런 시기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중년의 전환기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 시기를 겪고 있거나, 겪는 와중에 있는 이지영, 김혜숙, 최옥희는 모두 “내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취미교실에 대해 세 사람 모두 전에 비해 보다 분명한 계획, 적극성을 보이는 건 이런 연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들 그리고 차이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일종의 ‘방향 안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장을 통해 정리하려고 했던 참여자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내는 그들의 삶이 담겨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Ⅲ. 이야기 들여다보기

이지영, 김혜숙, 최옥희 그리고 조문선의 이야기는 이들 각각의 삶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명, 한 명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며, 그들의 이야기 또한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II장을 통해 어렵פות이 그려볼 수 있었던,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지점들에 주목하여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각 사례들의 관계를, 각 사례와 현 시대 및 사회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이야기 구조 분석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밝힌 두 번째 연구문제의 답을 구하는 작업이다. 물론, 이야기는 결국 이들의 삶, 이들과 만나 새롭게 재구성되는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 장에서 이루어질 나의 분석은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 중 어떤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내가 하려는 일은 그 한계만큼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나는 수집한 자료들과 현장에서의 보고 듣고 느낀 나의 체험을 거듭 곱씹으며,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데 활용할 두 가지 분석틀을 선택했다. 하나는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삶의 주제를 발견키 위한 현상학적 실존체<sup>20)</sup>다. 또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체성, 교육, 취미교실에 대한 태도, 인식, 감정 등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차이의 역동성을 살피기 위해 차연(差延, *différance*)<sup>21)</sup>을 두 번째 분석틀로 참고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의 구조, 곧 이야기를 통한 삶의 구조를 분석한다고 함은 개인의 삶을 권위적으로 종속하는 상위 개념의 구조를 상정한 것이 아니다. 대신 나는 세계-내-존재인 인간이 이미 늘 영향을 받는

20) 현상학에서는 일상세계를 반성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신체, 시간, 공간, 관계로 구성된 현상학적 실존체를 이야기한다(Van Mannen, 1990/1994). 우리의 생활세계는 이들 네 가지 체험 세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적 생활세계에 편재해 있다.

21) 차연은 데리다(Derrida, J.)가 서양 형이상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만든 신조어다. 프랑스어 *différer*는 영어 동사 *differ*(다르다)와 *defer*(연기하다)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것의 명사 *différence*는 사전적으로 '차이'라는 의미만 지칭한다. 이에 데리다는 어미 *ence*를 *ance*로 바꾸어 차이와 연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différance*를 만들게 되었다. 데리다는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이 아닌, 늘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의미 생성에 주목했다. 즉, 원본과 그것의 모방, 의식과 대상, 기의와 기표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이 아니라, 오직 차이를 통해 생성되는 의미, 기표와 대응되지 않고 계속하여 미끄러지며 지연되는 과정적 성격으로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차연이라는 말을 썼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전하는 진리를 알 수 없으며, 그것의 흔적(*trace*)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데리다는 (이성적 판단으로서) 의식, 그와 대응하는 '목소리' 대신 문자(*gramme*), 글(*écriture*)에 주목한다. (Derrida, 1967/1996; 서동욱, 2007 참고)

문화, 그러나 단지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전유하는 가운데 변화가능한 문화를 읽어내고자 함이다. 이는 사적인 삶이 아닌 문화적 삶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질빈빈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 1. 내러티브의 주제

이 절에서는 취미교실 참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신체, 시간, 공간, 관계라는 현상학적 실존의 틀을 활용했다. 즉, 이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주요 틀이 되는 신체, 시간, 공간, 관계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폈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게 되었다. 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했던 주제들을 보조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보조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됐던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나는 신체와 관련해 “나이 때문에”를, 시간과 관련해서는 “하는 거 없이 바빠”를, 공간과 관련하여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를, 끝으로 관계와 관련해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이들의 공통 주제로 주목하였다.

### 1) 신체 : “나이 때문에”

앞선 장에서 우리는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에 ‘나이 들’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이 들은 비단 특정 집단에서만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다. 나이 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지만 지금의 젊음 중심 문화는 나이 들을 문제로 간주한다. 대중매체, 특히 광고가 선호하는 모델은 물론 의학기술의 세일즈(노화방지) 등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웅<sup>22)</sup>, 2003). ‘노화’와 구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의 나이 들에 관한 문화는 성별화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지 가시적인 신체 변화나 이에 대한 대처 방식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미지 전반과 사회 관계는 물론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이 들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나이 들에 대한 독특한 이 시대의 문화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

---

22) 이하, 이 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진웅의 글은 『당대비평』(2003)에 실린 "연속기획 -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구조 9 : 중년" 중 ‘좌담 : 성공을 욕망하는 위기의 중년’에서 발췌. (pp. 155-173)

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의 연구참여자들은 50대 안팎의 중년 여성으로서 나이 들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공유하는 나이 들의 주제가 있다. 나는 특히 취미교실 참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되는 다음 두 가지 주제에 주목했다.

### (1) “몸이 안 따라줘”

나이 들과 관련해 취미교실에서의 변화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이지영의 사례였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나이 들은 취미교실 참여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이 들, 이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자신감 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이 들에 따른 자신감 상실은 최옥희와 박인정, 조문선 등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지영 : (웃음) 어려워. 그리고 여기 사랑 청소년 회관에서 재즈 댄스를 하더라고. 스포츠 댄스를 배우다가 그거 안 하고 재즈 댄스를 한 몇 개월 배우러 갔는데 안 되더라구. 우리가 배우기엔 안 되더라구. 그 때 40대였는데도.

연구자 : 그래도 되게 용기 있으시다.

이지영 : 너무 힘들더라. 아, 이건 내 나이에는 안 되겠다. (웃음) 그 때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거든. 고시생도 있고.

연구자 : 아..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뭐가 안 될 때, 나이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나 봐요.

이지영 : 응응.

연구자 : 그게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이지영 : 그, 그 스포츠 댄스에서 재즈 댄스 했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 했었어.

연구자 : 아. 그 전에는 나이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지영 : 응응. 그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 근데 재즈댄스 배우면서 그랬었어. 40대 중반이었을 거야, 아마.

연구자 :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나보다.

이지영 : 응. 그러니까 춤을 계속 추고했으면 (생각) 그게 되게 빠르더라

구. 아니, 그 당시에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재즈댄스를 배웠는데도 재즈댄스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이게 못 쫓아가겠더라구.

자신감 하락은 “예전처럼 잘 못 알아들어”라는 이지영의 고백처럼 신체 기능의 저하를 느낄 때 나이 듦과 연관되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건 자연스러우며,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나이 때문인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신감 없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때 나이 듦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별구조에 대한 고려 속에서 여성의 나이 듦을 ‘탈성화(脫性化)’ 과정으로 설명한 김은실(2003)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젊은 ‘여성(Woman)’의 몸이 모든 ‘여성들(women)’의 몸을 상징하는 여성 연령차별주의 문화에서 나이 든 여성의 몸들은 기형이고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이미지화 되고, 탈성화(desexualized)되어있다고 인식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여성들은 나이 그 자체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몸에 체화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운동, 성형, 피부관리, 모든 사회적인 것으로부터의 회피 등—노력들을 하게 된다. (p. 181)

그녀가 지적하듯 여성의 나이 듦은 남성의 나이 듦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날씬함”과 “청춘”으로 기준 삼는 문화(김은실, 2001)에서 나이 듦이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힘겨운 싸움이 되기 쉽다. 또한 ‘어쩌면 이길 수 있다’ 혹은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유혹의 부추김은 다시 한 번 여성들을 ‘싸움터’로 유인한다.

최옥희 : 스포츠 댄스하면 살 더 빠진다. 살 엄청 빠진다던데.

이지영 : 아냐, 언니. 몸매가 예뻐져, 언니.

최옥희 : 내 친구가 그거 하는데 살 3kg 빠졌대.

박인정 : 살도 빠져.



이지영 : 응.

최옥희 : 완~전히 아가씨야, 몸이. 막 자랑스럽게 (웃 올리는 동작하며)  
보여줘. 보여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년은 이와 같은 젊음 중심 담론에서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아직 충분히 노인은 아닌 시기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과도기’의 불안함을 이용해 ‘젊어질 수 있다’는 상술이 인기를 누린다. 그러나 ‘과도기’의 이들은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의 불일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그 속에서 자기의 주변성을 인지하게 된다. 정진웅(2003)은 이런 ‘소수자(minority)’의 특징이 ‘중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최옥희가 대중매체에 비추어진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린 까닭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최옥희 : 나는, 어제 1살부터 103살 먹은 노인까지 나왔는데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나는 눈물이 나냐, 세상에. 50대가 딱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아, 저기에 내가 딱 속하는 구나 싶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박인정 : 응~

최옥희 :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 이게 인제 한 살부터 열 살, 열 살부터 스무 살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왔는데 내가 딱 (강조) 중간에 걸쳐있더라. 아,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이지영 : 아, 근데 진짜 딱 50대가 되니까 이제 정말 자신감도 없고

최옥희 : 그치, 그치.

이지영 : 어디가도 좀 ‘잘 한다’ 그걸 들었는데,

최옥희 : 마음이 항상 불안해.

이지영 : 응. 어디가도 ‘잘 한다’ 소릴 들었는데 이제는 잘 못 알아들어.  
하하하하.

박인정 : 하하. ‘네? 뭐라고요?’ 하하.

이지영 : 하하. 아니, 진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50대가 되면서” 이와 같은 “나이 듦”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와닿았다고 한다. 이들이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느끼

게 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음악 등)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 하는 것” 등이었다. 자녀의 독립이나, 부모와의 사별과 같은 가족 생애주기 상의 변화도 이들이 스스로를 달리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꼽혔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계기인 것은 맞지만 “나이 들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감 없다”라는 감정은 전자의 인식과 보다 밀접히 연관된다. 말하자면 학습 효능감, 배움에 대한 의지는 “나이 들었다”는 자기 정체성과 부적 상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경우 자녀, 부모로부터 홀로서기도 어려워진다.

## (2) “나이에 맞는 것”

더 이상 자신이 “젊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제 이들은 “나이에 맞는 것”을 선택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닫는다. “나이에 맞는 것”이란 문화가 정해놓은 기준이며, 그와 동시에 자신이 수용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나이차별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나이에 맞는 것”은 상당한 규범적 효과를 발휘한다. 좋아하는 옷 대신 나이에 맞는 옷을, 좋아하는 활동 대신 나이에 맞는 활동을, 도전하는 대신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 기타교실의 정나영은 기타를 배우는 데 주저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근데 기타를 이렇게 치면 젊은 사람들이 치면 참 멋있고 예쁘던데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면, 흰 머리 나서 치면 난 좀 덜 멋있어보여서 난 안 배우고 싶었어, 솔직히.

“나이에 맞는 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는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아래, 김혜숙의 이야기에는 노년의 복지를 국가, 사회 및 공동체와 함께 도모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간과가 담겨있다. 특히 전업주부 여성의 경우 노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불안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자산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후 대책으로 이야기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 사람이 “원룸을 사서 월세 받는

것”을 보며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부러워한다.

이제 다 나가고 둘이서 이제 살잖아, 부부가. 그러다가 한 명이 죽잖아. 그러면 이제 혼자 자기가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전 낭떠러지인 거지. (...) 뭐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끈다고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고. 젊었을 때 남들보다 적게 자면서 해야지.

취미교실 참여의 자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졌을 때 실현가능하다. 김혜숙처럼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재산을 관리한 경우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돈을 벌지 못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허락’,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

나이 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 이들이 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차별 기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집단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에 대한 여성 혐오만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혐오를 야기하며, 여성 간의 연대를 방해한다. 이와 유사하게 나이 차별의 문화는 나이를 기준삼아 자신과 타인을 모두 소외시키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지영 : 근데 여기에도 댄스가 있어. 라인댄스라고. 방송 댄스, 아니 라인댄스라고 뭐지, 라인댄스라고 생활 댄스라고 TV에서 보면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추는 거 있어. (웃음) 여기 순영언니, 왜 이사 간 언니가 여기서 그걸 배웠거든. 그 언니가 그거 너무 좋대. 가면 땀 짙 나구 운동도 되고 재밌다구 배우려면 오라고.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 번 가봤거든.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안 했지.

연구자 :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할아버지가 많고 그러면 같이 배울 때 좀 재미없고 그런 건가요? 어떤 점이 안 좋으세요?

이지영 : 할아버지랑 같이 하면? (생각) 그래도 또래가 좋은 것 같애. 또래가 좋지, 너무 진짜 십 년, 이십 년 이렇게 차이나면 좀 그런 것 같애. 그래도 할아버지만 없어도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있으

니까 가기가 좀 그렇더라구. (웃음)

하지만 “나이 들었다”는 인식이 늘 “자신 없다”, “싫다”와만 쌍을 이루는 건 결코 아니다. “나이 들”을 오히려 적극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나이 들지 마세요”라는 광고 카피를 유유히 벗어나곤 했다. 이십대 후반에 접어든 나의 경우에도 “나이 들”은 불안과 자신 없음, 안주하게 됨이라는 감정과 연관된다. 이런 감정 때문에 나 또한 도전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적극적인 학습자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나 아직 어려”라며 스스로를 달래곤 한다. 사실 중년 여성들인 나의 연구참여자들도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난 아직 젊어”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보다 훨씬 현명했다. 이들은 유예하는 대신 포용하는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즉, “나이 들었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 뒤에 호탕한 웃음, 그리고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어. 더 나이 들어도 계속 해야지.”로 이어지는 플롯이 그들의 “나이 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 2) 시간 : “하는 거 없이 바빠”

“하는 거 없이 바빠”는 취미교실에서 만난 여성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말에는 이들의 시간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이들의 일상에 ‘가족’이 핵심에 놓여있다는 것에서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나이 들의 체험도 마찬가지로 ‘가족’은 특히 기혼 여성의 일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동숙(2002)은 여성들의 중년으로의 전이 또한 자녀독립, 신체적 변화, 폐경, 심리적 변화와 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이나 삶의 내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짚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이점을 꼽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이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취미교실이 무엇이고 몇 개인지, 전업주부인지 취업주부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만난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를 중요한 삶의 전이점으로 꼽았다. 이 시기를 기점삼아 특히 전업주부들은 시간 체험에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취업주부인 조문선의 경우에는 직장이라는 다른 세계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하는 거 없이 바빠”라는 말과 무관하지 않았다. 전이점을 기준삼아 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들이 시간 체험을 표현하는데 주목했다. 그러나 이때 전이점은 뚜렷한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시기 전후로 생활세계가 변화하므로 시간 체험도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엄마”, “주부”로서 가정에서 그들의 역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기 전후 각각의 시간 체험은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게 있으며, “하는 거 없이 바빠”라는 말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 (1) “바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정신없이 바빠다”고 회상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시간이 어떤 성격의 바쁨인지 분석하는 일이다.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이 반영되는 “바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렸을 때를 포함한 전체적 시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가사와 양육의 강도는 다르지만 살림살이의 책임자인 현재 그들의 시간 체험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의 “바쁨”은 취업주부인 조문선이 밤잠을 줄여가며 가사와 직장업무를 병행할 때 느끼는 “시간 없음”과는 구분된다. 구분된다는 것은 취업주부는 이러한 “바쁨”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대신 “바쁨”의 의미를 주부의 일이 갖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 성격, 주부의 일이 갖는 특성 때문에 취업주부의 “시간 없음”이 심각하게 초래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 아이를 비롯한 가족의 “뒷바라지”는 주부들의 시간을 “동강난 시간”(김명신<sup>23)</sup>, 1990)으로 만든다. 예컨대, 최옥희가 이야기했듯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와야 하고”, 조문선이 걱정하듯 “주말에 끼니를 미리 챙겨두고” 나서야 외출을 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성격 상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시간 결정 및 관리를 수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는 물론, 성장한 자녀와 남편의 삶에 필요한 “뒤치다 거리” 또한 모두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며, 게다가 이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여러 사람을 챙기느라 늘 “하는 거 없이 바빠다.” 정작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빼기”는 어렵다.

23)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제6호, 「주부, 그 막힘과 트임」에 실린 좌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부’에서 발췌.

가족들을 돌보느라 기타 시간에 늘 지각을 하고, 같이 수다를 떨다가도 일어서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이지영 : 전에는 좀 많이 배웠었는데, 저번 분기까지는 좀 많이 배웠었는데

연구자 : 봄에요?

이지영 : 응. 우리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왔다갔다 하느라 그걸 좀 끊었어.

이렇게 “동강난 시간”의 문제는 이 시간에 대체로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의 능동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도 문제다. “엄마들이 시간을 빼서 이런 데 온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는 말이 최옥희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시간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최옥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옥희 : 나는 근데 기타 치러 오는 날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야. 아침에 난 좀 빨리 오고 싶어. 10시 전에. 근데 나는 6시 반에 일어나도 꼭 그 시간에 와야 되는지. 참 이상해. 사람 습관이 무서운게

이지영 : 맞아. 습관이 무서워.

최옥희 :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우리 남편이 일찍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생각할 때는 맨날 1시, 2시에 나가니까 그 때까지 나는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 근데 일찍 나가면 싸악 치워놓고 뭐 할 것 같지? 전혀 안 해.

일 동 : 맞아.

최옥희 : 2시까지, 2시 반까지 넘어서도 그 시간까지 내가 뭔가 이려고 있다, 이려고 있다가 2시 반 돼서야 일어나. 하~ 사람 습관이 참.

최옥희만이 아니라, 다른 취미교실 참여자들 또한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는 이유

로 가족 구성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어머니와 아내, 주부로서 그녀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다. “오늘은 기타교실 가야하는 날이니까 당신이 세탁기 좀 돌려줘요”라는 말을 한다는 어느 참여자의 말에 “그럼 빨래 잘 해놓아?”라는 질문들이 가장 먼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각과 결석에 대해 취미교실 강사와 참여자들은 상당히 포용적이다.

## (2) “심심해”

“바빠”라는 말과 더불어 이들이 시간과 관련해 자주 하는 말은 “심심해”다. 얼핏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이것 역시 주부로서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시간 체험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주부의 일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를 기점으로 확연히 감소된다. 여전히 예상치 못 할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하지만 대체로 전에 비해 “여유”로워진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고, 매체와 연구물들이 말하듯 “중년의 여유”는 이들이 집중할 새로운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절대적인 시간의 생김이 아니라, 이 여유를 사람들이 체험하는 방식이다. 우선, 이들에게 “여유”는 마치 “바쁨”이 그러했듯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으로 체험된다. 남자들, 혹은 취업주부였던 여성들이 퇴직을 통해 맞이하는 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찾아오는 여유는 이제껏 그들이 집중했던 일, 살아온 삶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에 따라 누구에게는 좀 더 쉽게 “나를 위해 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심심하고 공허한 시간”이 되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이 없이 “반복되고”, “해도 티가 안 나는” 살림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희정 : 근데 그게[살림] 처음엔 재밌어. 근데 십 년, 이십 년 하면... 재미없어.

이지영 : 좋아하잖아. 자기는.

이희정 : 싫을 때가 있어. 나도. 하루 세 끼 다 차려야 할 때는 정말 싫어. 그럼 나는 피를 피워. 자기가 끓인 김치찌개 맛있는데 먹고 싶다~.

일 동 : 아~ (웃음)

연구자 : 맞아. 집안 일 맨날맨날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지영 : 그리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여기엔 가사 노동의 특징보다도 이를 주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만 간주할 뿐 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의 영향이 크다. 조혜정(1990)은 가정주부의 노동생활이 첫째, 적합한 보상(예컨대,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둘째, 가사노동의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시킬 사회적 기회가 매우 적다는 점, 셋째, 노동현장에서의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는 점, 넷째, 노동생활의 질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부의 일은 보통 “일”이 아닌 “노는 것”으로 말해진다. 이는 취업주부인 조문선을 비롯해 전업주부가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전업주부 당사자들 스스로의 표현이기도 했다. 돈이 최고의 교환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오는 일”과 “돈을 못 버는 살림”의 분리는 “의미 있는 시간”과 “무의미한 시간”으로 연결되곤 한다. 이것이 전환기를 맞은 중년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가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시간 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시간이 많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다.

최옥희 : 당신은 왜 이걸 시작했수?

박인정 : 나는 심심해서.

최옥희 :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정) 그랬어? 어~ 나는 아니야. 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자기는 심심해서 왔다? 심심해서 여기 왔다?

박인정 : (머뭇거리며)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이지영 : 심심해서? 응~[이해하지만 동의하진 않는 반응].

박인정 : 그런 것도 전혀 없진 않지. 뭐 바쁘면 오겠어?

이지영 : 그렇지~.

박인정 : 그런 것도 있고.

“바쁨”과 “심심함”이라는 한 쌍의 시간 체험은 지금의 삶이 나에게 최선일까라는 성찰과 연결된다. 많은 주부들이 겪는 이러한 경험을 김정명신(2003, p. 197)



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화두와 만나게 된다.”고 표현한다.

### 3) 공간 :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

주부의 일이 갖는 특성은 그들의 공간 체험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공간과 관련한 주제를 살펴보는 중 “집 안”과 “집 밖”의 구분을 흥미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자신이 속한 곳, 하는 일, 맺는 관계가 “집”에 상당히 기대어져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이러한 구분이 취미교실에 대한 의미 부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집 밖”의 장소로서 취미교실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그것이 꺾이게 되는 요인이 학교 문화, ‘교육 문화’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 (1) “집 밖의 내가 갈 곳”

이지영과 최옥희를 비롯한 전업주부 참여자들은 취미교실이 주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갈 곳이 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집이 아닌 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의미다. “집 안”은 그들의 일상인 동시에 일터지만 “집 안 일”을 “집 밖 일”과 대비하며 비생산적인 일로 간주하는 문화는 이들이 일상에서 성취감과 존재감을 찾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이들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가장 접근성 높은 일탈<sup>24)</sup>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취미교실”이다.

좋았어. 나는. 그 때는 막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하다보니까 그거 [친구]랑 상관없이. 내가 그 시간이 되면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백

24) 나는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빈번한 대화 소재 가운데 하나가 주변사람의 ‘외도’,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윤리의 문제도 있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지 못 한 점도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화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중년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그들은 “문제야, 문제.”라며 혀를 차다가도 “공허해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지.”라며 처지를 공감했다. 오히려 이들은 일상에 대한 더욱 과감한 탈출, 예컨대 이혼에 대해서는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허황되게 이혼녀의 행복을 이야기 한다”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중년의 이혼한 여자가 혼자 자신의 삶을 추스리는 게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취미교실”은 “건강한 여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선의 일탈 장소로 간주된다.

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웠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

위의 최옥희처럼 “그 시간에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취미교실은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 취미교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분법적인 문화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전업주부에게 소속감을 준다. 또한 크고 작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짜증”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탈일상적 장소가 되기도 한다.

박인정 : 나는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 되는 일]그게 생각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일 동 : 그래, 맞아, 맞아.

박인정 : 그러니까 나와서 뭐 하고 그래야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취미교실은 단지 ‘집이 아닌 곳’, 비일상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았다.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또한 한 참여자에게도 삶의 상황에 따라 취미교실은 ‘취미’가 전경에 오기도 했고, ‘교실’이 전경에 오기도 했다. 즉, 이지영의 초기 참여나 최옥희의 최근 참여처럼 “좋아하는 것을 하는 취미활동”의 의미가 두드러지는가 하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의 맥락에서 이지영의 체험 그리고 “제대로 배우려고” 애쓰는 김혜숙의 참여처럼 배움의 의미가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 (2) “취미교실”

“취미”와 “배움” 가운데 무엇이 우선 순위에 오는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미 살펴보았듯 “나이 들”은 “배움”을 포기하고 “취미”를 선택하는 데 일조하고, 주부의 “바쁜” 시간은 “배움”과 “취미” 모두를 방해한다. 또한 “바쁨”의 한 쌍으로서 “심심함”은 “취미”와 “배움”을 갈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취미교실”의 장소성이 더해지면서 취미교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취미”, “배움” 등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곧 취미교실 참여 태도, 평가, 계획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교실”, 가르치는 장소라는 표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교수 중심의 교

육, 평가 중심의 교육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시행하는 장소(place)로서 학교는 특정 공간(space)인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sup>25)</sup>. 일종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로서 학교의 장소성은 학교태(schooling)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 취미교실 참여 체험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학교태가 취미교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취미교실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차원이다. 우선 습관적 행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곳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교실”이라는 표현, “성인들을 위한 취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표현 등은 운영 기관 차원에서의 용어 선택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를 언어화, 의미화 할 때 이와 같은 용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일종의 ‘매개 상황’, ‘매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곳에서의 시간, 관계, 몸 그리고 공간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용어들을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빌려 쓰고 있다. 즉, 먼저 들어온 “신입생”과 오래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학년”이라는 표현을, “수업”과 “쉬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공부”라는 시간적 구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은 “반장”이라 칭하고 있었다. “배운다”고 했을 때, 학교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건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기타교실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용어들을 친숙히 받아들였고, 굳이 낮설게 보아야 할 연구맥락이 아니었다면 이 용어들이 학교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 했을 것이다.

학교 용어의 차용은 결국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학교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심리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선생님은 어렵다”는 두려움, “나에게 질문할까봐 무섭다”는 두려움, “앞에 나가서 해보라고 할까봐 무섭다”는 두려움을 이야기 했다. 이는 사실 취미교실 체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평가와 교수자 중심의 학교태에서 비롯되는 막연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학교태를 통해 취미교실의 체험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그것이 발생시키는 두려움도 마치 반작용처럼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학교태가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25) 공간(空間, space)이 물리적, 객관적 개념이라면 장소(場所, place)는 여기에 체험적 의미가 더해지는 것으로써, 이푸-투안(Yi-Fu Tuan, 1993/2007)은 두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지영 : 그리고 그건 어떡해? 이제 설이잖아. 모아서 좀 드러?

박인정 : 드러야지. 설이랑 추석, 스승의 날은 챙겨 드리잖아.

연구자 : 다른 데도 이런 건 챙겨요?

일 동 : 응. 다 챙겨.

이지영 : 엄마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서 그래.

이희정 : 그래도 나 [수업] 빠진 날 악보 찾아왔어.

박인정 : 그래? 뭐?

이희정 : 두 개나 찾아왔다구. 선생님 상관없이 우리끼리 막 악보 뽑아서 하네. (웃음)

박인정 : 선생님 오해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학교태’로 이곳을 모두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학교태는 근대 학교의 성격, 곧 제도·교수·평가·결과 중심적 성격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학교태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태가 사용되는 교육학 관련 글들을 읽다 보면 종종 마치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규범인 것처럼 표현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제도와 규범은 언제나 행위자의 전유 과정을 통해 실천되므로 통제와 예측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sup>26)</sup>. 그러므로 취미교실의 참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학교태’가 이곳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 (3) “동사무소 스타일”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태의 전유를 살펴보기 위해 요가교실이 속해있는 체육센터 대신 기타교실이 속한 동사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동사무소 스타일”이라 표현되는 이곳의 특징을 체육센터 또한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동사

---

26) 이와 같은 전유 과정에서 ‘사회화’에 그치지 않은 ‘교육’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다. 조용환(1997)은 기존 사회의 체계에 구성원을 길들이는 과정으로서의 ‘사회화’와 이를 전유함으로써 종적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는 그의 후속 저작(2001)을 통해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로 설명이 더해지게 된다. 즉, 이미 이 글의 서론부에서 다루었듯 세계-내-존재이며 다른 존재자들과 공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길들여지는 과정, 문화(文化)를 통해 세계에 속해지며 이에 갇히지 않고 해체 및 재구성하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 성장을 도모한다.

무소의 장소성을 살펴보는 편이 학교태는 물론 기타 평생학습관과 비교되는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체육센터의 특이성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는 사실 기관에 비해 저렴하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체계적이다. 이 점에서 종종 “동사무소”보다 “질이 높다”고 평가되는 평생교육원과 비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말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순서를 매기면 대강 ‘대학 부설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 전문 학원 >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 문화원 ≥ 동사무소’ 순이 된다.

이지영 :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 왜냐면 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을 많이. 주민이 많이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야. 목적 자체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엔 이게 한 3개월 배우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3개월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또 기타는 그렇게 안 되거니와.

박인정 : 사람이 엄청 많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끝까지 배우질 못 하니까.

이지영 : 응.

연구자 : 맞아. 그리고 또 로테이션이 되면 조금 맛보고 그만 두는 거잖아요.

이지영 : 그렇게 되는 거지.

연구자 : 그러면 아쉽잖아요.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텐데.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사무소가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원이라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지영 :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흥미로운 건 쇼핑몰 문화센터 이하의 기관들은 가격 면에서는 순서 매김이 분명하지만 “질”의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체험적으로 이들은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실상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기관들이 놓인 조건을 보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사람들이

동사무소 대신 문화원, 평생교육원 특히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는 건 단지 수업의 “질” 때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배수옥(2005)은 이 부분을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의 문화적 의미로서 ‘구별짓기’로 설명한다.

취미교실이 학교와 닮았지만 무척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된다. 그 중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연구 현장으로 삼은 두 곳, “요가 교실”과 “기타 교실”은 모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평생학습관에 속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우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 체육센터에서 운영되는 요가는 한 달에 3만 5천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타는 한 달에 2만원을 수강료로 지불한다.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 언론사 등 각종 시설 평생학습관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sup>27)</sup>. 연구참여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그로 인한 높은 접근성을 “동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sup>28)</sup>.

박인정 : 근데 지희씨 이야기하는데 J쇼핑몰은 또 엄청 비싸대.

최옥희 : 어디?

이지영 : J쇼핑몰.

박인정 : 그게 만약에 다섯 명이 수업을 듣잖아. 그럼 50만원이잖아. 근데 세 명이 들으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세 명에서 그 돈을 다 채워야 된대.

최옥희 : 그럼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박인정 :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이 벌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한두 명이라도 하겠다, 그러는 거지.

최옥희 :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사람 더 많다고 많이 가져가시고 적다고 적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

---

27)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간혹 거론되었던 “U백화점”은 통기타 교실을 9만원에 운영하고 있었다.

28) 배수옥(2005)은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학습공간으로서 백화점 문화센터를 연구했는데, 이곳의 수업원리 및 학습의 의미에 백화점이라는 장소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인 백화점을 학습 공간으로 선택하면서 부르디외(Bourdieu, 1984/1995)가 말하는 구별짓기가 행해진다. 이처럼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떤 가격대의 상품을 선택하는가는 나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면에서 “동사무소 스타일”이 갖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성은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지영 : 절~대 아니야, 언니. 근데 여기는 나라에서 보조금이  
 박인정 : 동사무소니까.  
 최옥희 : 근데 거기도 문화센터데?  
 이지영 : 아니지. 거기는 J쇼핑몰에서, 개인이 빌려서 하는 거니까.  
 박인정 : 아니지. A 신문사에서 하는 거라더라.  
 최옥희 : 그런 건 부담스럽지.

두 번째로 지적되는 이곳의 특징은 학생 및 수업 관리가 비체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참여자들은 취미교실 참여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낮은 소속감, 낮은 참여율, 교육의 질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이어진다. 이는 비싼 수강료를 지급하는 “전문 학원” 혹은 수강료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체계적인 수강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원”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이지영 : 장구 치던 언니 그 언니도 이제는 비중이 장구보다는 스포츠 댄스를 많이 하게 되더라구. 이런 데[동사무소 등 저렴한 취미교실]서 배운 게 아니라, 학원, 전문 학원에서 한 달에 50만원인가 주고 배우더라구.  
 일 동 : 우와.  
 이지영 : 한 1,2년을 배웠대. 그래서 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 춤도 잘 춰서 이제 사람들 추는 거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박인정 : 나 거기[평생교육원] 들어가려고 그거까지 받아놨었어. 뭐냐, 출입증까지 받아놨었어.  
 최옥희 : 출입증? 멋있다~, 근데. 딱 들어갈 때 출입증 내고 들어가고.  
 이지영 : 나도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출입증을 주는지는 몰랐어.  
 박인정 : 들어갈 때 딱 보여주고 들어가거든.  
 최옥희 : 응. 멋있는데. (웃음)

비슷한 가격대의 평생교육원<sup>29)</sup>, 문화원, 체육센터에 비해 동사무소가 “질이 떨어

---

29) 좀 더 체계성을 갖고 강사들과 수업체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경우 강사의 마음가짐은 물

어진다”고 말해지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기타교실의 경우, 동사무소는 취미 교실 운영과 관리를 강사 개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긴 채 이렇다 할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 취미교실의 질은 강사 개인의 역량이나 각 취미교실에 형성되는 분위기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 한 교실에서 다양한 수준의 수강생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상황, 등록 및 출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등이 겹쳐지면서 수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연구자 : 왜 이걸[출석부] 반장님이 갖고 계세요?

이지영 : 응, 이거 출석 체크 하느라.

연구자 : 출석 체크도 하는구나.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데는 다 하나 봐요?

김연주 : 출석을 부른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지. 얼굴보고.

박인정 : 우리 선생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

연구자 : 그러게요.

박인정 : 몇 명이 오든지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드러야 더 많이 오도록 선생님도 더 잘 할라 그러지. 더 드러야 되는 거야.

이지영 :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처음에 기타 반 생길 때 월요일 하루만 했었어. 그러다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맞아서 수요일에도 반을 만든 거지. 그 때는 시간도 월요일이 10시 뭐 이러면, 수요일은 2시 뭐 이렇게 달랐어. (웃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연구자 : 아. 그렇구나. 뭔가 반이 생기는 게 체계가 딱히 있는 게 아니네요.

이지영 : 응

---

론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다르며, 기관에서 수업에 지원하는 정도도 다르다. 소속감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체계적으로 수업 운영을 하고자 좀 더 애쓰는 교사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좀 더 살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동사무소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원에 비해 좀 질이 떨어진다는 경험적 증언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예컨대, 이곳 기타교실엔 늘 지각하면서 평생교육원 수업은 시간에 맞춰 가는 강사에 대해 참여자들은 “여기는 진짜 봉사하는 줄 알아”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준별 수업과 심화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배수옥(2005)의 지적처럼 백화점 문화센터 역시 갖고 있는 한계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백화점 문화센터가 일정 인원이 차지 않으면 반을 증설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동사무소 취미교실의 경우는 취미교실 운영 및 관리 자체가 소원한 탓에 개선을 위한 변화가 어렵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이지영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을 증설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는 참여자들이 “구청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루어지곤 했다. 이를 두고 “주민자치”의 이름에 어울리는 자율적 참여의 모델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민자치” 운영은 이미 성취된 결과가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목표에 더 가까워 보인다. 기타교실 참여자들은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기타교실 운영에 대해 이들은 적극적으로 의사 표출하기를 주저한다.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들은 동사무소의 동장과 직원들의 눈치를 살핀다. “선생님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이곳은 돈 벌이가 아닌 봉사”라 말하는 강사에게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편치 않다. 이지영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동사무소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협을 하거나, 최옥희처럼 “부담 주지 않아서 좋다”며 오히려 “한계”를 장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다.

끝으로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 “주부”라는 동질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며, 이어 “또래”라는 동질성도 이곳의 특징으로 꼽힌다. 관계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이곳의 집단적 특징은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동사무소”가 연령 집단의 면에서 “학원” 및 쇼핑몰 문화센터와 대비되는 부분만 언급하려 한다. 이곳은 곧 “학원”이나 쇼핑몰 문화센터가 “젊은 연령대” 중심인데 반해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해진다. 그러다보니 진도 나가는 속도가 느리고, 보다 세세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데 이 점이 참여자들의 저하된 학습효능감에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었다. “나이”에 따른 자신감 저하는 남/여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인용된 대화는 2012년 새해부터 기타교실을 찾은 “성실한 남학생” 신재호(58세)의 이야기다.

신재호 : 나는 원래 몇 년 전에 기타학원에서 배웠었는데 회사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되더라구. 그래서 그만 뒀지 뭐. 거기는 여러 사람이 오는데 서로 레벨이 안 맞아서 안 좋더라구요.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도 다르고. 어린 학생들도 많고.

연구자 : 학원이면 일대일로 봐주지 않아요?

신재호 : 일대일로 봐주긴 해도 연습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방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쳐요. 그런데 연령도 많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안 좋더라구.

연구자 : 아. 그럼 여기가 더 나으세요?

신재호 : 그렇죠. 여기는 나이들이 많으니까.

연구자 : 아. 연령대가 비슷하면 더 편하구나.

신재호 : 그럼요. 그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끼리 서로 알려주는 게 그 이상으로 중요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고 그런 거는 친구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선생님한테는 모른다고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여기 오니까 서로 물어보기도 좋고 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좋아요.

하지만 사실 이곳의 연령집단은 신재호의 표현처럼 “또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체로 잠시 머물다 떠나는 20대는 예외로 하더라도, 장기간 이곳에 “참여”하며 “멤버”가 되는 사람들은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연령 폭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나이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비롯한 가족발달주기, 삶의 사건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또래”라고 느끼는 듯 했다. 이런 부분은 취미교실 참여자들이 이곳에서 어떤 관계맺기를 하는지와 깊이 관련된다.

#### 4) 관계 :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

관계맺기의 양상은 이들 각각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즉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만난 중년 여성들은

다가올 노년을 준비하는 전이기에 놓여있으며, “나이 들”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매우 깊었다. 또한 이는 특히 여성으로서의 나이 들, 엄마, 아내, 주부로서의 나이 들이라는 성적, 가족발달주기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김혜숙과의 다음 이야기에서 이 시기에 이들이 어떤 질문과 마주하는지 알 수 있다.

연구자 : 응. 50이 넘어가면 애길 들어보면 삶의 전환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제까지의 삶에서 이렇다 할 의미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김혜숙 : 아니야. 20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야 하고 30대는 애기를 낳아 키우고 살림을 해야 하지. 40대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 직장도 이제 안정이 좀 되고. 그러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야.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고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 50대 후반이 돼서. 그러면 이제 나는 자리하고 있을 게 뭐야. 빈 둥지만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 나와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야.

연구자 : 응. 뭔가 다른 방향을 찾게 되는 거구나.

김혜숙 :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여지껏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다가.

연구자 : 가족들을 위해 살다가.

김혜숙의 이야기에서 50대에 주로 겪게 되는 전이기에 이들이 어떤 관계 체험을 하는지, 무엇이 과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간 가정이라는 세계가 중심에 있었다면, 기존의 관계들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 그리고 새로운 친밀 관계를 통해 삶을 돌보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 (1) “떠나보내기”

50대 중년 여성들이 겪는 과제로서 ‘홀로서기’는 곧, 가족관계와 나의 정체성을

해체 및 재구성하는 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자 용이 지적하였듯, 중년기의 발달과업(Sharp, 1992/2008)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흔히 ‘폐경기’라 칭해지는 생식기능 중심의 전이기와 홀로서기로 표현되는 관계 및 정체성의 전이기가 개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여성을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식과 재생산 중심으로 볼 때, 폐경기는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이러한편협한 시각은 여성이 겪는 전이기를 그녀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나이 들의 과정은 분명 생물학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체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들이 겪는 중년의 변화는 곧 지금까지의 삶에서 겪어온 사건들의 연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체험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최옥희처럼 그간의 삶이 가족 중심적이었던 경우에는 ‘엄마’ 정체성의 해체 및 재구성의 과제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이와 같은 “우울함”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표현될 때 더욱 걱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체로 50대에 속하는 이들은 조금씩 속도와 성격은 다를지라도 말하자면 ‘홀로서기’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최옥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이 과제에 직면해있는 인물인데,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홀로서기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의 독립”이 야기하는 홀로서기며, 다른 하나는 “부모와의 사별”이 야기하는 홀로서기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나의 죽음”을, 곧 “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동반한다.

최옥희 : 나는 그게[자녀들이 독립해서 여유가 생겨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야. 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연구자 : 응~

최옥희 : 딸들을 보내고 나는 나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딸들하고 아들을 보내면 마음이 빌 것 같다는 그런 거 있잖아~.

박인정 : 마음이 어려~.

이지영 : 응

박인정 : 언니는 애들한테 되게 집착하나봐~.

이지영 : 맞아~.

최옥희 : 어떻게 안 보고 사나 그런 것 때문에.

박인정 : 그럼 실망도 큰 거야. 기대 하지마.

이지영 : (웃음)

최옥희 : 기대는 안 하는데 생각하면 눈물 나려고 그래.(눈물 날 듯)

이지영 : 언니, 그러면 안 돼. 언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박인정 : 언니 그러면 집에서 우울증 걸린다. 애네들은 당연히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김혜숙이나 이지영처럼 엄마, 주부,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경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중년의 홀로서기를 겪었고, “갱년기 우울증”도 “벌써 다 겪어”낸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분리불안을 느끼는 최옥희와 달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미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문선의 경우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가족발달 상으로 10년 쯤 늦다고 할 수 있다. 그녀 또한 갱년기를 겪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존재감”을 분명히 느끼며 큰 상실감이나 우울증 없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녀에게 갱년기보다 더 마음 쓰이는 문제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변화였다. 나는 1년여 동안 그녀가 ‘엄마’로서의 역할, 책임은 물론 ‘엄마’가 아닌 나의 삶에 대한 이미지들을 고민하고 수정해왔음을 알고 있다. 통념과는 달리 중년 여성의 전이기로서 폐경기는 총체적 삶의 서사 속에서 체험되며, 이들은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지지기반을 통해 ‘완(完)경기’<sup>30)</sup>로서 이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 (2) “내가 즐거운 모임”

이처럼 중년의 전이기는 기존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자신의 삶 또한 새로운 의미로 성찰하고 계획하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때, 가족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과정은 가정 이외에 직장, 취미교실 등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장소, 소속되어 있는 다른 관계가 있을 경우 좀 더 수월히 해결되곤 한다. 특히 성취감, 소속감 등 자신의 의미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관계일수록 긍정적으로 전이기를 겪어내는 것을

---

30) 부정적 표현인 ‘폐경’을 완전한 여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완경’이라 개칭하는 사회적 운동 참고.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취업주부인 조문선이 “너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그녀가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며 자신감과 책임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엄마’, ‘주부’, ‘직장인’ 정체성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그녀가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과의 “아줌마 수다”는 일상의 힘듦을 공유하고 공감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에 가서 점심 때 친구들 만나서 밥먹고 수다 떨고 그러면 너무 재밌어.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하하하. 뭐 별 거 있어? 직장에서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어떡해.

“아줌마 수다”의 화제는 무척 다양하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폭 빠져있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사건사고를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옥희가 동창모임에 대해 갖는 불만처럼 ‘나’는 빠진 채, “자녀”, “가방”, “남편”만 있는 대화는 “재미없다.” 중요한 건 대화의 소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대화 속에 나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다. 즉, 대화의 소재, 대화의 방식 등 대화 전반에 내가 나로서 참여하고 있을 때 “수다”는 존재적 관계맺기의 장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주부”로, 그리고 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여자”로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회노애락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타교실에 생긴 이와 같은 “모임”<sup>31)</sup>은 기타를 치는

31) 물론, 취미교실 내에서의 관계가 따로 친목 모임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렇게 모임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지영의 말 등을 통해 나는 예상 외로 취미교실 밖으로 관계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동사무소 취미교실의 운영 방식과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주부”의 시간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취미교실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취미교실에 대한 기대, 취미교실에 대한 참여자의 의미 부여 방식에 따라 이곳에서의 관계맺기에 관심과 노력을 덜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사무소 취미교실의 친목모임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특징은 장기간 참여자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서로의 삶의 궤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 거꾸로 모임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동사무소 취미교실이 교육이나 학습이 아니라 여가활용의 목적이 크며, 관계가 기본이 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별개의 모임이 형성되지 않다고 하여 취미교실 내에 친밀한 관계가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친목 모임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내가 찾은 기타교실을 전형성에 어긋난 사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중년 여성들 중

것, 배우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취미교실 참여 이유로 꼽힌다. 특히 배움이나 취업을 자신과 연관 짓는 데 관심이 적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러나 가정에 국한된 삶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모임”이 주는 즐거움이 취미교실 참여의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이지영 : 한 번 안 나오니까, 한 번 일이 있어서 못 나오니까 또 나오기가 싫더라구. 그래서 나도 안 나오려고 했었어. 그런데 여기 인 정씨가 ‘왜 안 와. 빨리 와.’ 자꾸 안 올 때마다. 하하.

박인정 : 자꾸 오라고 그랬지. 하하.

이지영 : 그러다보니까.

박인정 : 나오라고 끌어주고 그러면 다시 하고 그래.

이지영 : 응.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와서 뭐, 점심도 먹고 또 기타 공부 뿐만 아니라 각자 인생 얘기 하고 그러다보니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지. 집에 뭐 별 일이 없는 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즐거움과 위로로서의 관계에 대한 기대는 단지 취미교실 내의 관계맺기가 갖는 특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핀 동사무소의 장소성, 그리고 동사무소 취미교실을 찾는 중년 여성의 시간성 및 신체성과 관련이 깊다. 즉, 동사무소 취미교실은 ‘평가가 아닌 학습 자체에 대한 관심’, ‘구별짓기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픈 욕구’, ‘직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백화점 문화센터(배수옥, 2005)와 비교할 때, “그저 이 시간에 내가 어딜 간다는 것”, “커피 마시는 재미”, “그냥 여가 활용으로서 취미”로 의미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들, 그리고 강사는 기타에 대한 제대로 된 배움, 교육보다 “양심”, “매너”와 같은 인간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수업은 시간적으로도, 교수 방식 상으로도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의 유연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참여자들의 자율성”, “자발적 학습동기”, “평가가 아닌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설명한 배수옥(2005)의 연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

심의 동사무소 취미교실이 갖는 특징을 반영한 전형적 사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친목 모임은 기타교실 참여자들 가운데 1년~3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간에 형성된 것이다.

최영식 : 아니, 수업이 10시라고 했으면 10시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은 맨날 30분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지영 : (당황스러워 하며) 선생님이 좀 늦으시고 이제 저희끼리 먼저 와서 연습을 하고 그래요.

연구자 : 저희도 선생님께 말씀 드려보긴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최영식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죠. 수업을 일찍 끝내고 선생님이 가시는 거면 몰라도 수업 시작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직장 때문에 11시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9시 반으로 좀 땡겨 볼 수 있을까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10시 반이 넘어 시작을 하니. 반장님이 좀 말씀드려주세요.

이지영 :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다른 데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여기가 저렴한 가격에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 어차피 레슨을 하는 시간은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거고 결국 자기가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일대일 레슨을 해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수업 운영의 유연성은 한편으로는 동사무소 취미교실을 찾는 참여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학습 욕구에는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강사의 잦은 지각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이 늘 공존한다. 이지영의 지금 이야기처럼 오래 기타 교실에 참여해 온 사람들의 경우 그간 강사와 이 교실이 거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처음 온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최영식처럼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보게 되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취미교실의 특징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만의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른 취미교실 및 평생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내부의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게 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동사무소나 강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 그리고 이곳의 문화가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는 종종 곧 강사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로 해석된다.

(함께 출석부를 보다가)

박인정 : 아니,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

이지영 : 응. 내가 물어보니까 등록은 한 것 같다고 하더라구. 처음에 등록했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3개월 끊은 거 그걸 말하는 거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 지 5개월 넘었는데. 여기 이거 봐. (출석부를 가리키며) 여기 등록된 사람은 12명인데 오늘 14명 왔거든. 등록 안 한 사람이 두 명 왔다는 거야.

박인정 : 어머, 그래?

김연주 : 아니, 왜 그래? 양심이 있어야지~

이지영 : 맞아. 처음에 오면 선생님이 따로 봐주고 그러잖아. 그런 거 레슨 다 받으면서 등록은 안 하는 건 좀 그래. 그치?

일 동 : 맞아.

그러나 기타교실의 관계가 단순한 친목모임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 정확히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느냐에 따라 이곳에서의 관계에 동료 학습의 의미가 더해지곤 하기 때문이다. 관계의 성격이 친목에 더 초점을 두면서 교육을 방해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친목 속에서 교육적 관계가, 동료 학습을 통해 친목이 싹트는 순간도 있다.

김혜숙 : 내가 (정나영을 가리키며) 정말 엄청 고마운 게 처음 왔을 때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더라고.

정나영 : (웃으며) 뭘~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쳐주지.

김혜숙 : 보통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 해주거든.

연구자 : 그래요?

김혜숙 : 응. 근데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

정나영 : 에이, 뭘. (웃음)

이지영은 친목관계를 통해 동료들, 특히 그녀가 속한 “3학년 모임”의 여러 구성

원들에게 좋은 학습 자극을 주는 사례다. 이는 그녀 자신이 기타를 배우는 데 보다 흥미를 갖게 된 시점 이후 좀 더 분명하게 관찰됐다. 이지영이 늘 “나머지 공부”를 하자, 비교적 기타에 관심이 큰 박인정을 비롯해 관심이 적은 최옥희도 함께 남아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지영이 따로 공부해서 정리한 노트를 복사해서 나눠 갖기도 했다. 이지영처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선배”의 존재는 특히 “1학년”들에게 큰 자극과 도움이 된다.

김혜숙 : 저는 여기 오기 전에 H물에 있는 기타교실에 갔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구. 거기는 선생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안 됐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 나오는 사람들도 젊어. 여기 이 언니 같은 사람들이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여기 가면 선생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또래들이 있어서 서로 알려준다고 좋다고 해서 오게 됐지.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은 없나봐. 나는 음악을 전혀 몰라서 이 나이에 도전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박인정 : 아유, 저희도 똑같았어요. 저희도 처음에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이지영 :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하시고 그만 두시지 말고 계속 나오시다 보면 이제 악보도 조금 보게 되고 나아지세요.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면 돼요. (웃음)

소규모 집단이기는 해도 모든 개인들의 수준을 살피고 수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수업은 특정 수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거의 “3학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1학년”들이 진도를 따라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이지영을 비롯한 “선배”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처럼 할 수 있어요”라는 “선배”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1학년”은 “일단 해보자”는 희망어린 결심을 한다. 배우는 데 자신이 없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특히 이와 같은 동료 학습자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3학년”은 “선배”가 되면서 스스로의 학습에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 2. 내러티브의 차연

현상학적 실존체를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살폈던 앞 절에 이어, 이 절은 다른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나는 연구참여자와 만나고, 이야기 하고, 이야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이야기 전개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갈등, 타협, 선택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이 여성들은 상황, 맥락 등에 따라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태도, 인식, 감정을 갖고 있었다. 즉, 태도, 인식, 감정의 변화는 한 세계가 삶의 전경에 놓이고, 대신 다른 세계가 배경으로 물러나는 과정과 함께 역동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취미교실 참여 방식에 대한 태도, 인식, 감정의 차이에 주목했다. 이미 드러난 결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상황, 맥락에 있는가에 따라 역동하는, 과정으로서의 차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는 곧 차연의 의미와 통한다.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 그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의 드러남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할 때, 이들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 취미교실 참여 방식을 좀 더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정체성의 차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의미, 만족과 후회가 ‘엄마 되기’와 ‘나 되기’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엄마’와 ‘나’가 조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선택’과도 같은 차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자의 삶”에 대한 문화적 규범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함으로써 야기되는 후회와 아쉬움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곤 한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선택항으로 “엄마”가, “나”가 등장하곤 했다. 선택의 이유, 선택의 결과, 그에 대한 받아들임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꿈, 열정 그리고 성취도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동안 나는 “엄마”라는 정체성도, “나”라는 정체성도 그리고 “여자”라는 정체성도 모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허물고 다시 세우길 반복해온 ‘되기(becoming)’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 (1) “엄마” 되기

요즘은 다소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현모양처는 명예롭고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손꼽혀왔다. 어진 어머니, 좋은 아내는 그 자체로 분명 가치롭고 중요한 역할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은~해야 한다’는 규범이 될 때는 공사(公私)의 성 역할 분리를 통한 남성 중심사회의 재생산에 일조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모성’의 경우 문화적으로 구성된 역할과 책임이 생물학적 조건과 연결되면서 강한 규범으로 작용해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 크다”,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무래도 애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박인정 : 애들 키우는 게 뭐가 좋아. 애들 키우나 안 키우나 똑같은데.

(웃음)

최옥희 : 아니야. 엄마가 키우는 애랑 아닌 애랑 틀려.

박인정 : 틀려? 그래?

이지영 : 그래, 언니. 지금 내가 큰 애 보냈지만 시집보냈지만 애뒀하고 그런 게 없어. (...)

최옥희 : 그래.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 손에 큰 애하고 할머니 손에 큰 애하고 애 성격도 틀려.

이지영 : 어, 틀려.

박인정 : 누가 나아?

최옥희 : 엄마가 키운 애가 낫지~ (당연하다는 듯)

이지영 : (당연하다는 듯) 낫지~ 모유 먹은 애가 좋고.

최옥희 : 엄마 품이 틀리지, 확실히.

이지영 : 자라면서 이렇게 스킨십 해준 애하고 안 해준 애하고 틀리지.

박인정 : 나는 우리 애한테 스킨십 잘 안 해줬는데.

이지영 : 응? (웃음)

최옥희 : 그래도 알아.

이지영 : 맞아, 그래도 알아.

“엄마가 키운 애가 더 낫다”는 통념은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의 성취감에

한편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엄마로서 잘 해보고 싶다”는 꿈과 열정으로 이 길을 선택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라거나 성장한 자녀들의 모습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최옥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최옥희 : 나는 그거였어. 애들을 아주 잘 키우고 싶었어. 엄마로서 잘 하는 것.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연구자 : 아,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최옥희 : 아냐.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잖아.

연구자 : 그러세요?

최옥희 : 응. 하나는 애들 어렸을 때 과외나 학원이나 뭐 그런 걸 하나 안 시키고 그래서 공부 쪽으로 좀 잘 못 한 거.

연구자 : 그래도 웬만큼 이제 이루신 거네요.

최옥희 : 응. 나는 후회는 하지 않아.

그러나 사실 “엄마”로서 후회 없이 잘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나본 참여자 가운데 “엄마”로서의 삶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최옥희도 자녀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타인에 대한 기대는 내가 노력해서 이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애들 잘 키웠다”는 말이 “좋은 대학 보냈다”, “학교 성적 좋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와 구분 없이 오가는 결과 중심, 학벌 중심 문화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소외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엄마들의 문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말 엄마들이 문제인가? 교육문제를 학벌문제와 동일시하고, “엄마”의 성공적 역할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으로 평가하고, 여전히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책임으로 일임하는 관습이 문제이지 않은가? 이런 문제 상황에서 여성들은 “좋은 엄마”가 되지 못 했다는 “죄책감”, “진짜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아쉬움”과 “후회”를 토로하고 있다.

이지영 : 아쉬지. 이제 내가 지나온 걸 돌아보면 아쉬지. 사실 내가 그만둔 게 애들 때문에 그만 둔건데 그냥 자기, 자기 그 공허한 마음을 취미생활 배우는 걸로 더 치중을 한 거야. (웃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연구자 : 근데 진짜 공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휴,  
진짜.

이지영 : (웃으며) 맞아. 슬퍼 (웃음)

연구자 : 사실 진짜 아주머니들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내 문제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보면 되게 새로워요.  
진짜 공허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지영 : 응. 맞아. 그렇게 돼.

연구자 : 그러다보니까 계속 찾아서 하시게 되구.

이지영 : 응. 근데 아리따 엄마는 초등학교 지나서 배웠다 그랬잖아.

연구자 :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나가셨어요.

이지영 : 응. 그런데도 어떻게 아이들이 (웃음) 적절히 잘 하셨나봐. [애  
들]교육도 잘 시키고,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슬픈 웃음)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지영 : 그렇게 됐지.

엄마-되기가 지금과 같은 특정 결과로 평가되는 문화에서는 이지영처럼 “실패”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 및 가족문화는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나의 일”을 그만 두거나, “이제부터 나는 없어”  
라며 참고 견뎌야 하는 등 “나”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을 야기 시키곤 한다. 아래는  
기타교실의 한 참여자인 이희정의 말이다.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더라.  
그래서 결혼했잖아. 나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7년째 되었을  
때 나는 권태기가 왔거든. 계속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  
이 보이더라구. 이 애들이 고아가 될 거 아니야. 편부모 슬하에서 크거  
나. 그러니까 이혼 못 하겠더라구. 이제부터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  
살자. 그렇게 결심했지. 근데 그러고 나니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돌아보면 잘 참았다고 생각해.

또한 “나”로 사는 것과 “엄마”로 사는 것은 전업주부들보다 취업주부인 조문선

의 이야기에서 좀 더 자주 선택항의 관계로 이야기되곤 했다. 주중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주말에도 못 다한 가사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 하는 그녀는 스스로를 “원더우먼”이라 부른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주말에 “체대로 [자녀들을] 못 챙겨 먹인 것 같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외출 전에는 꼭 도시락을 미리 준비한다. 아이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엄마 정이 부족해서”인 것 같다는 생각에 “미안해진다.”

## (2) “나” 되기

조문선의 사례로 “엄마” 되기에 대조되는 “나”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기로 하자. 그녀도 기타교실의 전업주부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출산 무렵 “엄마”와 “나”의 갈림길에 섰었다. 다만 그녀는 “여자라고 집에 있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남편에게 “그럼 당신이 일 그만 두고 애 키워”라고 항변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녀차별이란 건 전혀 느끼지 못 했다”며, “귀한 딸”로 자란 성장 배경이 그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듯 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엄마”로 사는 삶이 주는 만족감이 “나”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건 조문선 이상으로 “나”-되기를 강조하는 김혜숙도 동의하는 점이다. 아래의 인용을 보자.

우리 아이가 아기를 낳더니 나한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못 키운다고 그랬어. 나는 내 아이도 내가 안 키웠다고. 너 인생 너가 해. 그렇게 말했어. 뭐, 어찌다가 하루에 한 두 시간 썩 이렇게는 봐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전적으로는 안 한다 이거야.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부모의 인생도 있는데.

취업주부의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전업주부의 공허함을 말하는 다른 참여자들을 통해 반대로 확인 된다. “엄마”가 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던 이지영도, 현모양처의 꿈을 꺾은 최옥희도 “엄마”로 사는 일이 “나”로 사는 것과 상충했을 때 “공허”와 “답답함”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이때 “집”은 하이데거(Heidegger, 1979/2009)의 표현을 빌리자면 ‘빠져있던’ 그들의 ‘일상’, ‘비본래적 처해있음’과 연결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인간은 존재물음을 통해 실존을 추구하는 유일한 존

재자이며,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을 ‘현존재(Dasein)’라 했다. 현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우선 신경 쏟는 세계에 몰두해있다. 곧 ‘빠져있다’.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존재양식으로서 ‘빠져있음’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 자기 자신이 될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엄마”-되기에 몰두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는 문득 자신의 일상이 “나” 다움과 괴리가 있다고 느낄 때, “이제껏 나는 뭘 하고 살았던 거지?”라 자문하며 허무함과 불안감에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취미교실을 찾는다. 최옥희의 서예교실은 이러한 계기로 시작된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취미생활을 시작한 것도 애들이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있어. 내 친구랑 나랑 되게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한다는 거야. 한 40년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깐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그래서 찾아간 게 서예였어. 내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해. 나는 집에서 펜 쓰기 교본 이런 거 사다가 혼자 쓰고 그랬거든.

이런 경우 취미교실 참여는 보다 적극성을 띤다. 투자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때로는 취업으로, 때로는 미래까지 이어질 취미로 의미부여된다. 즉, 취미교실은 “나”-되기를 포기하고 “엄마”-되기를 선택한 이들이 찾는 공허함과 답답함을 달래는 장소이자, “엄마”-되기 가운데 “나”-되기를 갈구하며 찾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 (3) 두 ‘되기’를 살아내는 법

“엄마”-되기와 “나”-되기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대처방식, 삶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주부인 조문선과 김혜숙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일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들도 이해한다”거나 “엄마가 키우지 않는다고 애가 영망이 되는



건 아니다”와 같은 반박의 형태다.

김혜숙 :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런데 또 내가 결혼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남편한테 의지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왜, 돼지가 있잖아. 돼지가 왜 사람에게 자꾸 잡혀먹혀?

연구자 : 사람이 키우니까.

김혜숙 : 그렇지. 그런데 멧돼지는 안 잡아먹히지. 지가 혼자 산에서 뛰어 다니니까 잘 안 잡아먹히지.

김혜숙 :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자꾸 의지하고 기울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연구자 : 맞아.

김혜숙 : 그렇지? 응, 뭔가를 해야지. 왜 자꾸 돼지가 죽어? 사람에게 먹여지기 때문인 거야. 왜 남편한테 의지를 해? 그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좀 그거하게 본다고.

연구자 :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을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김혜숙 :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

연구자 : 네. 그 이유가 제일 많아요.

김혜숙 : 그런데 물론 자식들을 잘 키워야지.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 자녀는 다 엉망이냐?

두 번째는 위의 김혜숙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 “일”의 필요를 역설함으로써 전업주부의 처지보다 취업주부인 자신의 처지가 더 낫다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김혜숙의 경우 “일”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며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문선 또한 전업주부들을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바쁘고 힘들어도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상대의 처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건 취업주부를 대하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일을 그만둔 아쉬움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의 어려움과 아이를 잘 키우는 게 훨씬 낫다는 말로 달래진다. 이 과정에서 취업여성은 “완전 남자”로 표현되기도 했다. 또한 자녀가 어떤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못 돌봐서 그렇다”는 평가가 쉽게 이어지기도 했다.

서로의 처지를 소외시킴으로써 자신의 소외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은 “엄마”-되기와 “나”-되기의 이분법적 관계가 결국 이들 모두의 소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문화를 드러낸다. “엄마”-되기의 어려움과 의미를 취업주부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일”을 하면서 “엄마”로 사는 어려움과 의미를 전업주부가 모르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들이 거리를 두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면, 상대가 처한 상황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회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소외상황을 야기하는 문화를 변화시킬 힘이 이들 스스로에게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연구참여자들은 중년의 홀로서기를 겪으며 “내 삶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중이다. 혹은 이미 답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일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 삶의 불안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했듯 존재물음을 던지게 된다. 취미교실은 취업주부였던 김혜숙에게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지영과 최옥희에게도 일종의 비일상적 장소이자, 홀로서기를 위한 함께서기의 관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자녀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엄마”-되기를 포기한 채 “나”-되기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나영 : 애들이 엄마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 때가 힘들면서 제일 행복하지.

연구자 : 아.. 엄마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할 때.

정나영 :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커서 시간이 나니까 이런 것[취미교실]도 하고. 다 자기 나이에 맞는 행복이 있어.

그녀들이 실제로 “엄마”로서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졌기 때문이고, 그간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나”-“여성”-“엄마”의 조화를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이에 맞는 행복”을 발견하곤 한다.

## 2) 교육의 차연

이전 절을 통해 “엄마”와 “나” 사이 어디 즈음에 자신을 위치시키는가에 따라 취미교실 참여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차연은 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취미교실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 중에는 교육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이 많이 있다. 때때로 교육에 관한 그들의 다양한 표현들은 상충되기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상충되기도 했다. 나는 이 소설에서 교육에 관한 다양한 표현태들을 찾아 정리 및 분석하려고 한다. 들뢰즈(1968/2006)의 말처럼, 내용에 종속된 표현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의미작용이 있는 표현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표현이 재현(再現)에 목적을 둔 내용의 종속물일 때 다양한 표현태의 차이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동일자의 철학”을 비판하며, “차이의 철학”을 주장했다. 여기서 내용과 표현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관계가 된다. 삶의 형식으로서의 교육, 계속하여 묻고 답해 가야 할 교육이라는 수수께끼는 오직 다양한 표현태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문질빈빈의 자세를 기억하며 표현들의 의미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 (1) 교육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일상적으로 그들이 길들여져 온 교육에 관한 문화들이 드러난다. 이는 50대 여성들의 삶이 놓인 맥락들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물론, 그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좀 더 강조되고, 달리 읽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 그들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했고, “두렵다”고 했으며, “재미 없다”고 했다.

#### 가. “필요 없음”

취미교실의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필요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그들은 우선, “공부”를 필요 없는 것으로 꼽았다. 이때, “공부”는 학

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활동,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해봤자 한 시간 정도 하는 건데. 뭐, 드라마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건데. (잠시 정적) 그리고 공부는 지민이는 안 시켜도 하고, 연아는 시켜도 안 하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지, 뭐. 연아 공부 못 해서 걱정이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웃음) 공부가 뭐 전부냐. 하하.

위의 조문선처럼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에서, 혹은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두고 토론이 펼쳐질 때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럴 때면 “공부 잘 하는 서울대생 언니도 여기 있지만”이라며 나를 배려해주곤 했다. “공부”가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공부”를 잘 하는 것, 그리하여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잘 사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부 잘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봤다.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 아이들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이 콤플렉스인 건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조용환(2009)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소외된 공부, 공부답지 못한 공부를 하고 있음을 안타까운 문제로 지적했다. 나의 연구참여자들의 “공부” 거부 또한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일종의 간파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sup>32)</sup>

그러나 소외된 공부에 대한 간파가 공부다운 공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 때, “공부” 거부는 새로운 것을 배워 익히는 활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할 게 아니니까”,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이들은 “이론” 등을 통해 “체대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을 거부했다.

이지영 : 이제는 50이 넘으니까 나이 때문에 조금....

---

32) 물론, 이와 같은 “공부” 거부는 한편 “공부”가 강조되는 문화, 그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거부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꼭 공부 아니어도 성공하긴 하지만 좋은 학교 나와야 인정받는 세상이니깐.” 라는 타협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부는 불완전한 거부이며, 그런 의미에서 ‘거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최옥희 : 그렇지.  
 이지영 : 응. 언니, 그렇더라. 이제는.  
 최옥희 : 취미로 가야지.  
 박인정 : 응. 취미로 가야지.  
 이지영 : 응. 취미로 가야지.  
 박인정 : 이젠 늦었어. 취미 위주로 가야지.  
 최옥희 : 응. 그리고 건강위주로.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직업”을 갖는 것은 같지 않다. 참여자들의 “공부” 거부는 한편으로는 학벌사회, 입시교육에 대한 간파에서 비롯되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결과중심, 수단이 되는 ‘교육 문화’의 한계<sup>33)</sup>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곁에서 지켜보며 이러한 갈등상황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해소되고 있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이지영의 기타에 대한 애정, 좀 더 기타를 제대로 치기 위한 노력은 “직업”이나, 특정 목적이 아니라 기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악보를 그려가며 공부를 한다. 다만 그것을 “공부”라 표현하기를 주저한다. 이는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문성”, 학교 성적과 관련이 없는 “공부”가 그녀에게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절히 표현할 언어, 그런 언어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수업, 강사와 참여자 간의 대화가 부족한 수업 또한 그들이 공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 공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

33) 폴 윌리스(Willis, P)는 그의 책 “Learning to Labour(학교와 계급재생산)”(1977/2004)에서 영국의 노동 계급 청소년들의 문화를 연구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학교를 통해 재생산되는 방식을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읽어 냈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간파’와 ‘한계’다. 즉, 청소년들의 반학교문화는 학교체제가 유도하는 개인주의를, 자본주의 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노동은 정신적 활동임을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의 매커니즘, 때문에 이들은 간파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문화를 통해 재생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그의 개념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그대로 차용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제도로서의 “교육”, 계급 재생산에 기여하는 “학교교육”, 평가와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을 비판하는 모습,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데서 일종의 ‘간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대신, 회피하거나 안주하는 ‘한계’를 보였다. 폴 윌리스는 간파를 방해하는 제약으로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의 분리와 이데올로기를 짚었다. 나의 연구로 보자면, 남녀차별, 연령차별, 한국 사회의 개인 성공신화 등을 제약의 문화로 꼽을 수 있을 듯 하다. 향후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

## 나. “두려움”

“필요 없다”는 태도는 “두려움”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유로 배우는 것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하는 이들이지만, 거기에는 잘 하지 못 할 것에 대한 두려움, 평가 당하고 창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뜻이 크다.

김혜숙 : 지난주에 왜 앞에 나와서 하라고 했던 날 있잖아요. 그 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막 악보에 줄도 안 보이고. 기타 줄 숫자랑 손가락 숫자랑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찬찬히 혼자 보니까 기타 줄은 이제 옆에 숫자가 있고 손가락은 악보에 있대.

박인정 : 나도 선생님이 뭐 갑자기 물어보고 그러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 하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해보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못 하겠는 거야.

나는 앞서 취미교실의 장소성을 다룰 때, 참여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학교태의 경험과 연결지어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방적이고, 평가중심의 교수 문화가 관련된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학습자의 학습효능감이 낮고, 참여 의지가 낮으며, 교수-학습 관계의 주도성이 교수자에게 치우쳐 있을 때 심해진다. 스트레스 대신 재미를 추구하고, 강사와 학습자간의 대화를 통해 수업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동사무소 스타일”은 중년 여성들의 두려움을 경감시켜 참여를 높인다.

최옥희 : 그러니까 이제 빠져도, 막 엄하게 하면 나 시키면 어떡해. 막 떨면서 앞에 못 앉아.

일 동 : 응

최옥희 : 근데 [여기 기타교실은] 당당하게 못 해도 앞에 가서 앉잖아.

박인정 : 언니, 드럼<sup>34)</sup> 해야겠다. 드럼은 앞에 나가서 해야 돼, 전부.

---

34) 박인정이 다녔던 드럼교실은 J 쇼핑몰에서 개설되었던 취미교실로, 동사무소의 기타교실에 비해 수업운영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최옥희 : 어휴, 난 싫어. 앞에 나가서 하면 얼굴 빨개져서 싫어.

그러나 “동사무소 스타일”이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여 출석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배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려움”을 피해 “부담 없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박인정 : 숙제 내주는 게 실력은 빨리 늘어. 스트레스 받으면 하잖아. 그래서 실력은 느는 데 이게 어떨 때는 정~말로 가기 싫어. 아, 큰일났다, 이거 가서 망신만 당하고 내려오겠다. 그 생각에 있잖아.

고애리 : 뭐가 망신이야. 똑같지.

박인정 :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숙제를 열심히 해온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시작해도 해보면 완~전히 표시가 난단 말이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알지만 하지 못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학습자 정체성에 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이런 순환적 반복 과정이 쌓이면서 “나는 배울 필요 없어.,” “열심히 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차로 강해져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 다. “재미없음”

교육에 대한 또 다른 태도로는 “재미없음”을 꼽을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를 못 느끼고, 배움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감당할 “항체”가 없을 때, 취미교실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나마 기타교실은 “모임”이 형성되면서 “커피 마시는 재미”, “수다 떠는 재미”가 참여의 동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될 때, “요즘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강사도 참여자들이 부담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걸 알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코드만 알면 칠 수 있는 곡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누군가는 이런 수업에 만족하지만 누군가는 반복되는 수업에 흥미를 잃는다. “맨날 치는 게 똑같고”

“새로운 게 없다”고 느낄 때 일상의 활력이 되었던 취미교실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의 하나가 되고 만다. 아래는 이지영의 한탄이다.

아, 그러니까 나도 지난번에 여기 와서 들어도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 타령이 그 타령인 것 같고. 재미없어갓고 그만 할라고.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인간의 끊임없는 성장 과정이다. 교육은 그리하여 “차이없는 반복”이 아니라, “차이있는 반복”일 때 교육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느끼는 “재미없음”의 감정, 그로 인한 참여 저하가 문제일 수 있는 이유다.

## (2) 교육에 관한 체험적 이해

이상의 태도들은 교육을 평가, 수단,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문화와 관련이 깊다. 신체,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에 걸친 이들 삶의 맥락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이들은 체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건 “필요 없음”, “두려움”, “재미없음”의 와중에 느끼게 되는 필요함과 어려움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교육의 방법, 내용, 과정 등에 관해 체득된 것들이 담겨 있었고, 나는 아래의 네 가지로 그것들을 정리해보았다.

### 가. “선생님이 중요해”

취미교실에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선생님”이다. “부담 없이 재미로” 이곳을 찾는 최옥희나 이희정의 경우에는 “부담주지 않는 선생님”을 선호한다. “좀 더 제대로 배우는 데 재미”를 느끼는 이지영과 김혜숙의 경우에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배우기 위해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진도를 계획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이끄는 교수자를 선호한다. 이지영은 체험적으로 “혼자 연습해도 되는 것”과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희정 : 아, 너무 어려워. 재미없어. 나는 반주를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



겠어.

이지영 : 반주는 각자 연습하는 거지. 몇 개 없어.

이희정 : 아냐, 언니. 반주도 얼마나 많은데.

이지영 : 아냐. 반주는 6개인가 몇 개 없어. 그리고 노래에 맞게 연습해서 하는 거지.

박인정 : 그래. 반주 그거는 몇 개 안 돼.

이지영 : 그리고 그런 건 어느 정도 하면 혼자 연습하면 되지만 이런 데 나와선 이런 걸 배워야지~. 혼자선 안 하잖아.

학습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성장 자극을 주는 것은 좋은 교수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아직 알지 못 하는 세계를 소개하고, 그와 동행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교수자가 없을 때 학습자는 그 세계를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접근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일방적인 가르침, 명령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의 대화를 통해 상호 성장할 때 “좋은 교육”, “좋은 교사”라는 평을 받게 된다. 기타교실의 경우, 동료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왠지 어려운 선생님”보다 “좀 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또래”관계에서 이러한 대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영 : 그럼 이제 Am. C에서 Am 옮기는 거 먼저. (시범을 보인다)

김혜숙 : 이렇게요? (손으로 기타를 잡아 본다)

이지영 : 그렇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걸 계속 연습하면 리듬 연습도 되고 코드 연습도 되고. 그쵸? 쿵썩썩.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C에서 G7을 잡는 거. (시범을 보인다) 너무 많이 알려준다. (웃음)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또래한테 배우는 게 이해가 더 썩썩 되지 않아요?

김혜숙 : 네. 더 질문을 하게 돼요.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하는 조문선도 강사의 역량에 따라 요가교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녀는 “동작도 자주 변화를 주고” “표정이나 목소리에도 신경을 쓰는” 강사가 “맨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고 표정이나 목소

리도 신경 쓰지 않는” 강사에 비해 재미도 있고, 도움도 더 된다고 평했다. 어떤 이유로 취미교실을 찾든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통한 교육적 체험이 이들의 취미교실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결국은 나의 몫”

강사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연구참여자들은 “결국은 나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는 교수-학습의 관계 가운데 학습의 측면이 교육주체로 강조되는 맥락과 상통된다.

이지영 : 열심히 해도 탁 오르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애. 자기가 연습한 만큼.

박인정 : 맞아. 연습밖에 없어.

이지영 : 그치? 공부하는 것처럼 자꾸 연습해야 돼. 그치, 언니?

박인정 : 맞아. 진짜 열심히 해.

김혜숙 : 뭘 열심히 해.

이지영 : 아냐. 언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하더라, 진짜.

김혜숙 : 아이고~

연구자 : 열심히 하시잖아요.

박인정 : 언니. 이게 내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다 [실력이] 틀려.

일 동 : 맞아.

박인정 : 확실히 그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교수자가 좋은 교과과정을 제공한다고 해도 학습자가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래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고비”를 넘겨내는 인내다. 앞서 보았듯 교수자가 “고비”넘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나, 결국 이를 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의 몫이다. 지

적되고 있는 학습자의 또 다른 자세는 “힘을 빼는 것”이다. 이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잘 하지 못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 학습은 현재의 나를 허물어내는 겸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김혜숙 : 나는 기타 와서도 치면서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만 둘까’ 생각 해요.

박인정 :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언니.

이희정 : 나는 아직도 그래.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이걸 가, 말아. 너무 어려워. 이거 우리 예전에 했었어?

박인정 : 했어.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연습을 안 했지. (김혜숙에게) 언니, 그걸 넘기면 이제 좀 알아듣고 할 수 있어.

김혜숙 : 내가 그림도 하거든요. 그림 그리러 가서도 꼴등, 기타 와서도 꼴등.

박인정 : 언니, 힘을 빼야 돼.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런가보다’ 그러고. 하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화의 영향임을 이전 소절에서 언급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내와 겸손을 교육에 필요한 조건으로 꼽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평가 중심 교육 문화와 자신을 거리 두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은 더 이상 그런 “교육”의 대상에 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에 자신을 놓게 만든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필요 없어”라는 태도는 이 맥락에서 좀 더 복잡한 의미로 읽히게 된다.

#### 다. “시간이 필요한 과정”

교육은 현재의 나를 반성하여 보다 나은 나, 보다 나 다운 나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의 성격 상, 교육은 일상의 반복, 관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취미교실은 연구참여자들이 집, 가족, 주부의 일상에서 교육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취미교실을 찾는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 가

운데 배움, 성장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음악이 수학”이라고 말하는 이지영도, “이제야 선생님 설명을 좀 알아듣겠어”라고 말하는 박인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애리 :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도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

최옥희 : 응. 언니, 솔직히 이거를 하고 싶다고 선뜻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애리 : 응. 맞아. 계기가 있어야. 그쵸? 아, 난 하고 싶다 하면서도 못 나와, 선뜻. 어려울 것 같고.

일 동 : 맞아, 맞아.

박인정 : 그렇지. 용기가 필요하지.

고애리 : 응. 악보도 못 보는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 거기 가면 다~ 잘 치는 줄 알아.

일 동 : 그치.

고애리 : 우리가 금방 잘 치는 줄 알아. 그런 생각을 하니깐 언뜻 못 나오지.

최옥희 : 근데 진짜 쉽진 않아. 주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쉽진 않아.

이지영 : 쉽지 않지.

고애리 : 근데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다보면 좀 나아지는 거야.

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시간이 중요하다. 학교(school)의 어원이 여가(schola)에 있다는 점은 생존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유산계급이 그리스 학문 발전의 중심을 이루었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이 생존을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실존을 위한 활동, 존재물음을 통한 삶의 성찰과 성장을 지향하는 활동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듯 “시간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자녀가 독립하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이들은 “나”, “나를 위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유

를 느끼고 다른 영역,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존과 실존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은 또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교수와 학습은 시간 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고, 학습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지영 : 나도 어려워. 이게 자꾸 들어도 어려워.

연구자 : 그렇죠.

박인정 : 그래도 왜 그 날, 1일 날인가 선생님 열심히 설명하신 날 생전 모르겠더니 그 날 알아듣겠더라구. 하하. 이제 좀 눈이 뜨일 란가 봐.

이지영 :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와. 그치?

박인정 : 그러니까 꾸준히 나와야 해. 결석하면 손해야. 이렇게 나와야 하나라도 배워가.

이호석 : 늦어서 안 올까 했는데 오니까 배워가네요. 하하.

박인정 : 잘 오셨어요. 결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에 교육을 결과 중심, 평가 중심, 교수 중심으로 대할 때, 교육의 이와 같은 시숙(時熟)<sup>35)</sup>의 특징이 무시될 때 학습의 소외가 발생한다. 두려워하게 되고, 금세 포기하게 된다. 이를 감당하는 “용기”, 그리고 지속적인 “연습”과 “시간”이 “어느 순간 이해 안 되던 게 들리는 중요한 날”의 조건이다. 이와 같은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뭘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

35) 시숙(zeitigen)은 하이데거(Heidegger, M, 1927/1998)가 현존재인 인간, 존재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현존재인 인간은 존재물음을 통해 자신의 본래성을 찾게 된다고 보는데, 이때, 본래성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 일상에 빠져있던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끝, 곧 죽음을 내다봄으로서 비롯된다. 즉, 존재물음을 통해 본래성을 찾게 되는 현존재와 존재 그리고 시간은 하이데거에게 매우 밀접한 관련을 띤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현존재가 본래성을 찾는 것은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 그리고 ‘아직 현재가 아닌 미래’ 대신 죽음(현존재의 가장 독자적 가능성)의 도래(zukommen)로부터 비롯되는 본래적 시간성이 열리는 것과 연결된다. 본래적으로 시간성은 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물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시숙은 통속적 시간에서 벗어난 본래적 존재의 시간으로, 현재를 기준삼아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시숙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는 과거-현재-미래라는 분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존재를 전체로 묶는 시간을 설명하려고 했다. 장상호(2005)는 교육 역시 분절된 시간으로 체험되지 않고, 한 사람의 총체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시숙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학습 의지를,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볼 “배우는 재미”를 가져다 준다. 말 그대로 “중요한 날”인 셈이다.

#### 라. “어려워도 재미있는 것”

오랜 시간 취미교실에 참여해 온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을 체험함으로써 좀 더 참여의 재미를 찾게 된 이들이 있다.

박인정 : 오늘 내가 기타 시작하고 통 들어서 선생님 제일 열심히 수업 하셨어.

최옥희 : 새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박인정 : 나 오늘 드디어 좀 이해가 되는 거 있지. 맨날 들어도 모르겠더니 오늘은 좀 알아듣겠더라. 하하. 이제 조~금 알아먹겠어.

이지영 : 맞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

박인정 : 신기해.

이희정 :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때 왔다갔다 안 해서 그래. 다른 때는 막 이거 설명하다가 저거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오늘은 C장조만 쪽 설명하니까.

박인정 : 어. 오늘 처음으로 알겠더라구. 하하하.

연구자 : 오늘 중요한 날이셨네요.

박인정 : 그러니까. 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 하하하.

박인정의 “중요한 날”은 강사의 체계적인 설명, 그 동안의 관심어린 참여, 배우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갑자기” 찾아왔다. “들리게 된다”는 것은 그녀의 이해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의미다. 보지 못 했고, 듣지 못 했던 것을 접하게 되면서 기타에 대한 재미,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수업에, 배우는 것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지영의 아래 “수포자” 비유처럼, 학습자의 욕구와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은 수많은 “포기한 자”들을 만들게 된다.

박인정 : 응.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가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지영 : 응. 요새 ‘수포자’라고 알아?

연구자 :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이지영 : 응.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거든.  
그런 거 아닐까? (웃음)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안 듣는 거.  
(…)

박인정 :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해매는 거야. 계속 왔으면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들었으면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이럴 텐  
데. 이 언니는 드문드문 나오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말이  
그래서야.

이지영 : 계속 왔으면. 맞아.

연구자 : 응. 그러면 나오다보면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재밌어지는 구나.

박인정 : 응. 이게 그 소리구나.

이지영 : 그렇지. 이게 그 소리구나.

박인정 :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어려움과 재미의 조화를 찾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경우 해당되겠지만 학습효능감이 낮은 이들 중년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해지평 확장과 나의 성장이라는 내재적 목적, 그것의 재미는 취업 등의 외재적 목표가 소외시키는 학습의 존재론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표 3> 취미교실 참여 목적에 따른 차이

	갈증해소/재미추구	성장지향
과정	찾은 결석 수동적 변화	지속적 참여 능동적 변화
내용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 스트레스와 부담 지양	관계와 더불어 나의 배움 중요 이해지평의 확장
방법	또래 학습과 대화 중요 부담없는 교수자 중요 학습자의 학습의지 적음	또래학습과 대화 중요 교수자의 적절한 자극 중요 학습자의 학습의지 중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학습자의 수준과 욕구를 고려한 교수자, 체계적인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자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 용기가 취미교실 참여를 지속화하고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은 두려움과 부담감을 피할 수 있는 대화일 때 활발히 나타났다. <표 3>은 취미교실 참여 방식에 따라 강조되는 것들을 교육의 과정, 내용, 방법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어질 소절, 취미교실 참여 방식에서의 차연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 3) 취미교실 참여방식의 차연

취미교실을 찾는 이유, 목적, 참여방식은 참여자의 총체적 삶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문화가 체험 속에서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정 및 유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취미교실은 ‘취미’라는 면에서도, ‘교실’이라는 면에서도 일상에 대한 거리두기라는 목적이 있다. 이때 어떤 점이 강조되어 비일상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이는 비교적 쉽게 일상에 포섭되기도 하고, 일상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도 한다.

#### (1) 일과 취미, 가정의 관계

백화점 문화센터에 관한 연구에서 배수옥(2005)은 취미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분했다. 이때 취미와 일의 구분은 그 활동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가와 관련된다. 즉, ‘일’로 표현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보다 적극적, 지속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취미’는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일’과 ‘취미’의 구분은 취미교실 참여의 실존적 성격, 참여자의 나-다움이 강조되는 정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동사무소와 체육센터 취미교실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도 참여의미의 이러한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곳의 경우 ‘일’과 ‘취미’라는 구분이 다소 들어맞지 않는다. 이는 “일”에 대한 태도가 배수옥 연구의 ‘일’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의 “취미”가 배수옥 연구의 ‘일’과 ‘취미’ 두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혜숙 : (박인정에게) 자격증을 따보면 어때?

이지영 : 언니, 자격증 별로 소용없지 않아?

박인정 : 자격증 따서 뭐 하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김혜숙 : 취미도 좋은데 취미도 하면서 자격증도 따면 좋잖아.

이지영 : 언니, 나도 여기서 P.O.P를 했거든요.

연구자 : 그것도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지영 : 응. 그것도 자격증을 따라고 하더라고. 근데 자격증 뭐 따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

박인정 : 아니, 내가 꼭 필요하면 따겠지만 취미적으로 하는 건 필요 없어.

위의 대화에서 “취미”는 배수옥 연구의 ‘취미’와 의미가 통한다. “남는 시간”의 “심심함”과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 “취미”는 “단지 취미”, “이제는 취미”, “취미일 뿐”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취미”는 비지속적이고, 수동적이며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문선의 요가 이전 활동들, 이지영의 초기 취미교실 활동 및 최옥희의 기타교실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다음 인용 대화에서 “취미”는 다른 의미가 강조된다. 이때는 “내 삶을 위해 하는 활동”,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나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취미”를 이야기 한다.

연구자 :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김혜숙 : 내가 좋아하는 거.

정나영 :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연구자 : 기타교실 다니면서 만나보면 되게 좋아보여요.

일 동 : 그래?

연구자 : 네. 여유 있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일 동 : 응응.

이때 “취미”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이며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점에서 배수옥의 ‘일’과 뜻이 통한다. 김혜숙의 취미교실 활동, 이지영의 최근 기타교실

활동 그리고 최옥희의 서예교실 활동이 이러한 참여 유형에 해당된다. “취미”의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하여 앞서 살펴 본 “취미”를 ‘수동적 취미’로, 뒤에 살펴 본 “취미”를 ‘능동적 취미’로 구분해보자. 이 구분은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학습 태도를 살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내 연구의 참여자들과 배수옥 연구의 참여자들 간에 ‘일’ 개념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백화점 문화센터 연구의 경우 ‘일’은 나의 성취감, 내 삶의 의미, 사회적 인정과 연관된 의미가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 참여를 ‘일’이라 표현하는 참여자들은 취업과 연관시키는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취미교실 참여자들의 경우 “일”이란 “돈 버는 활동”, “나 이 들어서 하기 힘든 것”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이때 “일”은 “취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들에게 “일”, “취업”은 “취미”보다 그다지 나은 게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김혜숙 : 나이 들면 일 하는 거 힘들지.

연구자 : 지난번에 3학년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0 넘으면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고.

정나영 : 그치. 이제 자기 관리하면서 사는 거지.

김혜숙 : 그렇지. 자기 관리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나는 백화점 문화센터 연구의 참여자들과 내가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적, 계층적 차이에서 일, 좀 더 정확히는 취업에 관한 태도가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내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이해는 결혼 전의 직장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집 안 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을 위해 상고를 갔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상업 고등학교, 은행원은 꽤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들의 진학과 취업은 대안 없는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 업무성격 및 업무조건 또한 자기 성장, 성취감, 꿈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반복되는 업무는 “너무 지겨웠고” 남성적 직장문화는 “여자가 감당하기 버거웠다.”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동료 여사원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될 거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사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일”이 아니라, “엄마” 되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중년의 ‘홀로서기’를 겪으면서는 차라리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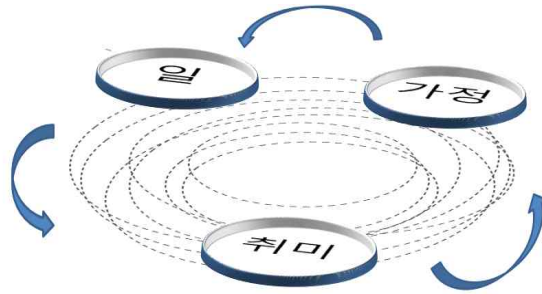
미”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친남성적 직장문화, 고용구조에 대한 간과가 작용하고 있다. 조한혜정(1990)은 고단한 현실은 하층여성들이 전업주부를 꿈꾸게 하고, 상층 여성들의 공허함은 이들을 집 밖으로 나서게 한다고 지적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계층구분이 여성들의 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정도는 전과 달라졌다. 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사교육 부담과 생활비 증가 등 가계 유지를 위해 맞벌이가 필수조건으로 간주되는 요즘엔 조한혜정의 설명과 부합하는 상층 여성의 범위는 더 작아졌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면 전업주부를 꿈꾸는 여성들의 범위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이것대로 “일”이 단지 공허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함을 드러낸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상황이 이전에 비해 더 만족감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부담”이 더 커짐에 따라, 그 부담이 만족스런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에 따라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에 갑갑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박소진, 2009).

“일”에 대해 만족하는 조문선의 사례도 취업 여성이 전업 주부 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물론 조문선이 “일”에 만족감을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녀는 몸은 편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일”이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실존과 관련한 만족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과의 사귀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녀에게 학생들의 일을 돕는 교직원 업무는 그녀의 말처럼 조문선에게 “정말 잘 맞고 재밌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남녀차별”은 그녀의 의욕을 저해하였고, “여자라고 일 하지 말란 법이 어딤냐”며 당차게 외친 그녀였으나 “애들이 서운해할까봐 신경쓰여” 마음 편히 직장 업무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업무마다 나름의 장점을 찾아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그녀지만 반복되는 업무는 성장욕구를 자극하기보다는 지겨움을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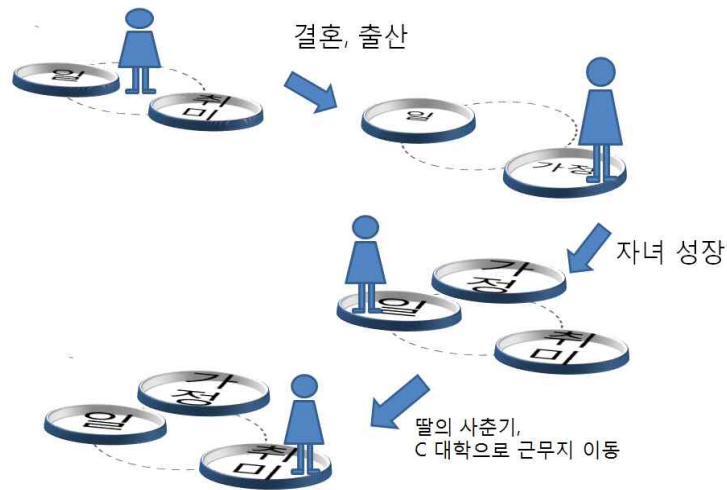
이상의 “일”, “취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배수옥의 ‘취미’, ‘일’의 관계와 다른 방식으로 “일”, “취미”, “가정”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개의 장으로서 이들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이들 가운데 하나가 삶의 전경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밀려난다. 옆의 <그림 2>는 차이 있는 반복의 과정을 이루

며 자리 바꾸기를 계속하는 이들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일-취미-가정의 관계

흥미로운 것은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점이다. 또한 취미, 일, 가정은 어떤 시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경에 오게 되었는가에 따라 의미 또한 달라지고 있었다. 배수옥 연구의 ‘취미’가 뜻하는 것과 ‘일’이 뜻하는 것 모두를 연구참여자들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가정”, “엄마” 되기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아래 <그림 3>을 보자.



<그림 3> 조문선의 일-취미-가정

조문선은 결혼 전 일과 취미 모두에 몰입하지 못 했다. “그만 두려는 마음으로 [직장에] 다녔고”, “목표 없이 배우니까 [피아노나 기타 등을] 오래하지 못 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취미대신 가정이라는 세계가 그녀의 삶에 등장했다. 일을 병행했지만 “애들 어릴 때는 애들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는 회상처럼 가정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그녀는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취미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일을 통해 재미를 많이 느꼈”던 시기였다. 딸이 사춘기가 되어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C 대학으로 근무지가 이동하면서 일의 재미가 떨어지자, 조문선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은 요가 시간”이 되었다. 이전의 취미교실들에 비해 요가교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었다.

이지영, 최옥희, 김혜숙의 경우도 이렇게 삶의 전환점에 따라 일, 취미, 가정이 삶의 전/배경을 다뤘은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계기가 되어 삶의 전경에 가정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는 ‘자녀 성장’을 계기로 그동안의 가정 중심 삶에 공허함을 느꼈다. 취미교실 참여는 이와 함께 그녀들의 삶에 새로운 세계로 등장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취미에 대한 의미부여는 달랐다. 이지영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해오는데 학습자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취미활동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즉,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에서 “배우는 재미”, “그 자체로 즐거운 것”으로서 그녀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좋은 엄마”가 꿈이라 말하는 최옥희는 서예교실을 통해 “나를 위해 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엄마”로서의 책임과 즐거움에 앞서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독립을 앞둔 요즘, 그녀의 취미교실 참여 또한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 김혜숙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가 가장 강한 참여자다. 즉,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도 크다. 퇴직 전까지 일이 중심에 있었으나 지금은 취미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의 취미는 이지영의 최근 취미처럼 “나의 성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 쪽의 <표 4>는 이렇듯 삶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전/배경을 다루는 가운데 의미 변화가 생기는 일, 취미, 가정을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로 정리해본 것이다.

<표 4> 일, 취미, 가정의 두 가지 의미

	일	취미	가정
수동/소비적	“먹고 살기 위함” “힘들어도 해야함” “여자가 하기 어려움” “나이 들면 못 해”	“공허함을 달래려고” “건강을 위해” “심심해서”	“여자니까 해야지” “반복되는 일, 지겨운 일”
능동/생산적	“존재감을 확인” “성취감이 있다”	“알아가는 즐거움” “나를 위한 시간”	“엄마로서 존재감이 분명할 때 행복했어”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대. 돌아보면 만족스러워.”

일, 취미, 가정은 모두 어떤 맥락에 있는가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큰 만족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공허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때 이들이 놓인 상황에 어떤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다. 일은 남녀차별문화, 연령차별문화, 실존이 빠진 채 생존만을 좇는 문화에서 연구참여자를 소외시키는 의미에 머문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가치를 지키며 나름의 이유를 발견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또한 그러하다. 남녀차별문화와 가사노동을 저평가하는 문화는 주부들에게 공허함을 준다. 그러나 엄마, 주부로서 사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을 돌보는 기쁨을 느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취미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 또한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제도, 평가, 결과 중심의 교육 문화와 연령, 나이 차별 문화 속에서 단기적, 소비적, 수동적 차원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내 삶을 사는 기쁨,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모색, 발견, 계획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은 시기,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하나 유지되기도 하는 이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들의 다른 삶의 세계, 곧 일과 가정이라는 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취미의 의미는 변화한다. 나는 이를 앞서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라는 말로 구분했다. 전자의 특징과 후자의 특징은 모두 취미의 속성을 갖고 있다. 무엇이 더 ‘취미다운 취미’에 가까운지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객관적,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가라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나는 이후 논의 전개

에서 능동적 취미로서 취미의 의미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한다. 능동적 취미의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취미교실의 교육적 함의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곧 세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전개될 IV장의 세 번째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이어질 다음 소절은 그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를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태도와 연결해 분석해볼 것이다.

## (2) 소비형 학습과 생산형 학습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의 구분으로 돌아와 이 둘의 특징에서 취미교실의 학습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둘은 취미교실의 일탈적 성격이 참여자들의 일상과 다시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동적 취미는 갈증해소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활동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되며, 그러다보니 지인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활동에 흥미가 있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참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게 된다<sup>36)</sup>. 간혹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적만 두는 사람”에 대해 “욕심도 많다”며 핀잔어린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인정 : (김혜숙에게) 거기[J쇼핑몰]에 원장님도 나가시나? 미장원 원장님.

김혜숙 : 아, 응. 그 이는 하는 것도 많아. 미술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지영 : 그 이가 기타도 했었어.

박인정 : 응, 맞아.

연구자 : 참 신기해요. 보면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하세요.

일 동 : 맞아. 그렇지.

박인정 : 뭐 하나 하다보면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36) 백화점이라는 장소성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 내 프로그램의 성격에 ‘구별짓기’ 문화가 작용된다면, 동사무소를 비롯한 다소 저렴한 취미교실의 경우 이처럼 여러 활동에 “등록”한다는 것이 ‘구별짓기’ 문화로 설명될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은 두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 말한다.

일 동 : 맞아.

김혜숙 :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울려서 모여 다니더만.

이지영 : 아, 그래요?

김혜숙 : 응. 그 사람은 자주는 안 나와요. 회비는 꼬박 내면서도 시간이  
날 때만.

이런 경우 학습은 비의도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 학습은 다음 학습 욕구로 이어지기 어렵고,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다. 다음 최옥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줘도, 새로운 주법을 가르쳐주셔도 집에 가서 할 때는 내 식대로야. 내가, 나도 이제 옛날에 해봤다고 했잖아. 나도 옛날에 기타를 사서 내가 쳤던 게 있거든요. 코드를 외워서 내가 노래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게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여기서 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어떨 때 내가 해보고 싶어서 분위기 좋고 그럴 때 기타 끌고 나와서 한참 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내 식대로 부르는 거야.

취미교실 참여는 “저렴한 돈을 내고” “집 밖의 내가 갈 곳”을 사는 일종의 소비활동이 된다. 그곳에서의 즐거움이 일상 유지를 돕는 활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체제를 유지하는 소극적 소비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능동적 취미로 취미교실에 참여할 때에는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혼자 찾아가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비”를 넘기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좋아하는 활동 한 두 가지를 장기간 하는 것을 선호하며, 조금씩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참여지속의 이유가 된다. 기타만 몇 년째 배우고 있는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열정어린 태도는 기타교실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다. 개인 사정으로 연구 참여를 부탁하지 못 했던 게 아쉽다.

내가 그 동안 기타를 오래 했는데도 조에 대해서 무심했던 거지.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 아, 그게 마 플렛 장조. 그런 거구나. 선생님



은 모르지. 내가 그걸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지. 뭔가 막 크게 배워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작게 내가 모르는 거 하나 배워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학습은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 학습은 다음 학습 욕구로 이어지곤 한다. 취미교실에서의 즐거움은 일상에 변화를 만든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기타를 치며 연습을 이어가게 되고,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능동적 취미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지영 : 우리 남편도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보고 물어보고 그러더라.

연구자 : 남편 분도 기타 치세요?

이지영 : 그냥 젊었을 때 혼자 좀 쳤었어.

연구자 : 아. 그럼 선배님이 훨씬 잘 치시겠네요.

이지영 : 응.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웃음)

연구자 : 좋다. 같이 기타치고.

박인정 : 그림. 좋지.

이처럼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는 각각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이라는 서로 다른 학습 형태를 보인다. 생산적 학습은 특히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의 즐거움에 의해 추동된다는 면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건강을 위해”, “치매 예방을 위해”, “손주들에게 기타 연주를 해주기 위해” 기타를 배우는 것과 “기타 치는 게 그냥 좋아서” 배우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하이데거(Heidegger, 1979/1998)는 “위하여”의 태도를 도구적 연관관계로, “그냥”의 태도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대로의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연관관계라며, 우리가 대상과 맺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위하여”의 관계에서는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나, “그냥”의 관계에서는 결과나 수단과 상관없이 상대의 존재 자체에 내가 매료된다.

다시 기타 교실의 맥락으로 돌아오자.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 것,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교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타와 음악이 좋아서 이

곳을 찾을 때, 참여는 더 지속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인정 : 그 언니. 정나영 언니.

연구자 : 그 분 진짜 열심히 하시죠.

박인정 : 어. 그 언니 참 열심히 해. 그리고 내 뒤에 앉아서 그 모자 쓴 언니[김혜숙]도 계속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러더라. 열의가 대단해.

이지영 : 어. 그리고 그 언니는 이론에 대해서도 열의가 있더라. 알고 싶어하더라구.

최옥희 : 그렇게 열의가 있으면 금방 배우는데. 나는 듣다가 좋고. (웃음)

참여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학습 방식은 구성원들 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성원들은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학습자로서의 지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스스로와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비적 학습자인가, 생산적 학습자인가가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김혜숙, 이지영은 기타교실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학습 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는 동료들의 관여가 작용되면서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의 가치우위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기에 나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더해지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취미교실은 이처럼 소비적 학습을 부추기는 문화와 생산적 학습을 돕는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곳이다. 학교가 여러 삶의 형식들이 경합하는 하나의 세계이듯, 취미교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IV. 이야기를 만난 이야기

지금까지 취미교실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놓인 문화들을,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한 그것들이 참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질 다섯 번째 장은 세 번째 연구 질문을 위한 것이다. 곧, 내가 만난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취미교실 밖의 이야기와 연결함으로써 나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는 삶에 대한 교육적 관심, 교육의 눈으로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말했듯, 이 작업은 ‘중년 여성’, ‘취미교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교육’은 ‘참여’의 의미를 성찰하는 가운데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현장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 앞에 해석자(interpreter)로 서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이야기 주체는 중년 여성을 대신한 연구자, 내가 결코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갖게 된 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독자들의 이야기를 고려하는 내가 이 장의 이야기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이야기 주체다. 이야기는 결국 그것이 드러내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다. 다수의 이야기들이 만나는 이 장을 통해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주름을 품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이해를 향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해를 지향하나 오해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일도, 공감을 기원했으나 불완전한 소통으로 그치는 일도 연구참여자들이 아닌 나의 부족함 탓임을 미리 이야기하고 싶다.

### 1. ‘중년 여성’으로 살기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해석

한 여자가 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성실한 남편, 예쁜 딸을 가진 중년의 여자.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과 딸이 늦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인다. 정신없이 그들을 보내고 난 후 설거지와 집 청소를 말끔히 끝내고, 딸이 먹다 남긴 굵은 토스트를 베어 물며 그제야 허기를 달린다. 혈당이 떨어지면 떨어오는 손을 진정시키며 창문 밖으로 여고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화가의 꿈을 꾸며 자신의 앞날을 기대하던 작은 소녀를 떠올린다.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아이의 엄마로 바빴던 지난 이십여년 동안 그녀는 그 작은 소녀와 너무나 멀어졌음을 깨닫는다.

영화 『써니』(강형철 감독, 2011)의 등장인물 ‘나미’의 이야기다. 살면서 나는 참 많은 ‘아줌마’들과 마주쳤다. 예의바르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아줌마’가 아닌 그녀, 예컨대 ‘소녀’인 그녀와 만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보통은 우리 모두가 타인과 그렇게 만난다. 그녀가 ‘소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소녀’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년 여성’, 일상적으로 ‘아줌마’라고 불리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매개삼아 어떤 문화적 지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교육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이를 통해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앞서 나는 하이데거의 ‘빠져있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년 여성들의 일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들이 ‘빠져있는’ 일상은 “나이 듦”의 문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역할의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말했듯,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주목되는 중요한 문화적 주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성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나이 듦이 다르게 읽히고, 체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나이 듦”이 중요한 삶의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같지 않은 여성의 생애사, 여성의 나이 듦과 중년의 의미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듦”이 그들의 ‘나-다움’을 방해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방해요소가 되는지 정리해보고 싶은데, 그 중 첫 번째는 여성의 “나이 듦”에 대한 문화 그리고 ‘여성/엄마/주부-다움’에 대한 인식이 정체(停滯)된 정체성(being)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전에 비해 무척 활발해졌고,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 등 여성이 자존감과 사회적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한 여자’의 평가 척도에서 ‘아름다운’ 외모와 ‘현모양처’의 태도는 손꼽히는 가치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단지 손꼽히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을 갖추지 않는다

면 다른 부분에서의 성공이 평가절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에 앞서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 영역 전반에 존재하는 성차별문화에서 여성은 남성적 시각이 만든 ‘여성성’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여성’이 되기를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내가 만난 여성들은 대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나 80년대에 결혼을 했고, 최근 자녀들의 독립을 계기로 제2의 홀로서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세대의 여성들 가운데는 경제 성장과 성 평등 의식 확산의 영향을 받아 “남녀 차별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자란 조문선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집”에서 자란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상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이지영 : 응. 어렸을 때 디자이너 하고 싶었는데

일 동 : 그러게. 좋아했으면.

이지영 : 디자이너 하려고 했었어. 진짜 좋아했어. 했는데, 집 안 형편 상. (웃음)

일 동 : (웃음)

연구자 : 디자인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이지영 : 그 당시에는 그냥 여상 나와서 은행 들어가서 돈 벌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결혼을 하고,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도 예비된 그녀들의 ‘선택’이었다. 가족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직장의 고용구조가 이를 당연시하고, 동료와 사회 분위기가 이를 당연시 여기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는 ‘여자니까’, ‘엄마니까’, ‘주부니까’와 부단히 타협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남녀 차별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자란 조문선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여자라서”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에 부딪혔다. ‘엄마’와 ‘직장인’을 오가며 겪게 되는 힘듦, 죄책감, 책임감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중년’이 갖는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이들의 생애에 있었던 크고 작은 선택들과 갈등들은 “여자라서” 야기되는 면들이 컸다. 특히 여성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비유되는 여성의 “나이 들”에 대한 문화적 해석은 이들에게 ‘엄마’, ‘주부’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혼 적령기를 넘은 여성들, ‘여자’로서 한물이 간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

와 의미를 확인받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길은 ‘모성’을 통한 것(조옥라, 2001)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엄마’-되기가 ‘나’-되기와 같을 때, 전자가 좀 더 가치 우선되는 것으로 말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나이 듦”이 그들의 ‘나-되기’에 방해가 되는 두 번째 방식 역시 이것과 연관된다. 즉, 여성의 “나이 듦”에 관한 문화 그리고 이와 깊이 연결된 ‘여성성’, ‘모성’에 대한 인식은 ‘나’를 소외시키는 ‘여성’, ‘나’와 갈등관계에 있는 ‘엄마’라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 ‘엄마’, ‘주부’라는 정체성이 남성 중심의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성들이 성취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사회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자.

조문선 : 승진하고 이러는 거에 여자들이 밀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좌절감도 들고 너무 막. 세상에 남녀차별이라는 게 있네. 내가 여기 푸른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남자, 여자 차별을 두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너무 나는 분노를 했어, 나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와~이거 남녀차별이 심하더라고. 여자, 남자. 여자가 참, 여자가 불쌍한 인간이야. 여자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치? 여자도 봐. 똑같이 돈 벌어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남자는 그냥 도와줄 뿐이잖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자는, 나는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되지. 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연구자 : 그럼 누가해.

조문선 : 응.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내 식구들 건강이 내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책임이 있잖아.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돼. (웃음)

이들이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30대든, 40대든 그리고 50대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갈등은 ‘엄마’와 ‘나’에 대한 양자택일적 상황이었다. 자녀 양육에

헌신하기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한 이들은 허무함에 부딪히고, 생계와 자기 성취를 위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취업주부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모성’이 이상화되고, 우선시되는 것과 달리, 이것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체제는 미비한 까닭이다. ‘살림’에서도, ‘직장’에서도 충분한 성취감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여성들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을 느낀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 등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 혼란이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살림과 직장 이외의 것에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동강난 시간’을 양산하는 살림의 특징 상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살림과 직장을 병행하느라 다른 활동은커녕, 살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 남편에게 “잔소리”할 시간도 없다.

그나마 ‘동강난 시간’에 찾게 되는 취미교실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나들이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되곤 한다. 은퇴 후 취미교실을 찾은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이 이 활동을 얼마나 관심 있게 생각하는지 밝힘으로써 참여 의의와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50대 이후 취미교실을 찾은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그간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주장함으로써 참여 의의와 이유를 ‘설득’한다. 여성의 취미활동은 가사에 대한 책임,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녀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사란 은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나’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기로 선택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자녀의 독립, 남편의 상태, 살림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 정도와 늘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취미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진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목할 점은 취미활동이든, 살림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성취감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는 ‘엄마’-되기의 성공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영은 ‘엄마’-되기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장기간 참여해 온 취미활동을 오롯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 하고 있었다. 조문선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을 고백했다. 김혜숙은 “여자로서 일 하기에 적당한 직업”을 택해 후회 없이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으나, 일 자체에 대한 성취감은 별로 갖고 있지 못 했다. 그녀들 모두가 부딪히게 되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자성

은 사적인 그들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엄마/주부-되기’에 대한 문화적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가 이 시대, 이 사회의 ‘교육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양자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식 잘 키웠네”의 가장 흔한 척도는 아이의 ‘교육’과 관계된 것이다. 학교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자식 농사’에 대한 평가가 오간다. 그리고 이 때, 그 평가에 대한 성취감 혹은 책임감은 학부모 개인, 대개 여성들의 ‘엄마’-되기 성공여부와 결합되고 있다. 성공의 기준에 대한 상상력은 빈곤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몫은 개인에게 돌리는 시대적 분위기는 ‘좋은 엄마’, ‘좋은 교육’,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허락지 않는다.

최근 언론들은 ‘헬리콥터 맘’, ‘매니저 맘’과 같은 신조어들을 쏟아내며 여성들의 ‘빼놓어진 교육열’을 비난하고 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엇나간 교육 문화에 대한 비난은 실상 문제의 뿌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알게된 것은 이들의 ‘교육열’이 교육에 대한 신뢰, 학교 성적과 사회적 성공 간의 연결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의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그녀들은 학벌 위주의 사회, 학습자의 존재를 존중하는 대신 도구로서의 가치에 치중된 평가 문화를 꼬집어 내고 있었다. 하지만 수단과 결과, 평가가 우선시되는 교육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은 대안 문화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비난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매니저 맘’을 함께 욕하면서 자신 또한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게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탓만이 결코 아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여성/주부/엄마로 사는 것에 대한 문화가 연관되어 있고, 학습자를 소외시키는 ‘교육 문화’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매니저 맘’의 등장은 고학력 여성들의 자아 성취 욕구가 살림 및 자녀 양육이라는 ‘전통적’ 여성 역할과 맞물리게 되는 사회적 담론의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서동진(2005)은 ‘유능한 개인’, ‘문제 해결의 책임자로서 개인’이 강조되는 것을 시대적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불안에 대한 관리의 주체로 개인, 즉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시민주체가 구성되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익숙한 중산층 획득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우리 사회의 맥락과 어울리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 주체의 역량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좀 더 잘 한다면”이라는 자책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은 문제를 개인화함으로써 이를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삶의 복지와 안녕이 가족단위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가족경영의 책임자로서 여성, ‘엄마’는 ‘매니저 맘’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맡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니저 맘’들은 ‘교육 시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선택하는 “교육 소비자”(박소진, 2009)로서 한계적 권리 이상을 요구하고,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경쟁의 목표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도 실상 어느 것 하나 애매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그 애매한 경쟁의 외부에 서는 일보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그 때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후회,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매니저 맘’의 등장은 ‘엄마’들의 빼놓아진 교육열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이 가족과 여성에게 집중되는 시대와 사회의 단면이다. 게다가 ‘신 현모양처’로서 ‘모성’담론이 동원되는 지금의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이 80년대에 겪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sup>37)</sup>는 논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문화적 맥락은 학부모 정체성만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 학습, 교육의 주체가 되는 또한 제한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나는 배움이 필요 없다” 혹은 “나는 배우기 적절치 않다”라는 정체성은 학부모로서 그들이 갖는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50대”를 “더 이상 젊지 않은” 시점으로 꼽으며 자신을 ‘교육’, 변화, 성장으로부터 거리 두고 있었다. 이 시기가 그녀들에게 자신감 상실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참여자들의 해석처럼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기억력 감퇴 등 생물학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이 맥락에서 폐경은 이러한 노화 증상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 들”이 도전과 배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생물학적 노화 이상으로, “교육은 젊은 사람들의 것”, “교육은 어딘가에 써먹기 위한 것”이라는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교육을 특정 연령, 특정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단지 50에 접어든 지금 시점의 연구참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좀 더 이전에, 아니 어떤

---

37) 공사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남성의 사회진출이 우선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의 책임자로 간주해온 문화는 연구참여자들의 ‘당연한 퇴직관’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앞 장에서 분석했듯 이는 한 직장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지양되었던 고용문화 그리고 여성을 산업예비군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노동을 저평가하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연령대에 있는 ‘나는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는 전업 주부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을 때, 혹은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찾기 어려운 아줌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교육의 맥락에서 의미화하는 데 주저해야 했다.

이런 그들이 아줌마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장과 변화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임을 믿고, 실천하게 되는 데에 취미교실 참여 체험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도구적 교육, 평가중심적 교육을 뜻하는 ‘교육’ 대신 다른 의미의 ‘교육’을 통해, 혹은 ‘교육’이라는 지칭이 없이도 그녀들은 배우고 익혀 자신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이야기 한다. 이는 평생에 걸친 성장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을 중심에 둘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을 함의하고 있다. 즉, ‘보다 나 다운 나’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장, 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허물고 새로 세워가는 존재론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다. 이는 도구적 존재가 아닌 존재물음을 하는 존재로서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그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다. 존재론적 교육의 입장에 서면 ‘중산층 아줌마들의 개인적 취미에 머물러 있다’는 관점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지 방향이 보인다. 특히, ‘교육’, ‘배움’이라는 말로 스스로의 참여 체험을 설명하기에 주저함이 유난히 더 큰 “동사무소 스타일” 취미교실 참여자를, 취미교실의 교육적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

실존적 존재에게 ‘빠져있음’은 본래적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의 상태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일상의 ‘틈’과 조우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존재물음은 반복되던 일상에 균열을 만든다. 연구참여자들은 연령차별을 일상적으로 체감하며, 스스로의 나이 듦에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을 소외시키는 ‘교육 문화’의 맥락에서 자신의 체험을 교육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 이들의 이야기에선 나이 듦, 교육이 그들의 삶과 이미 연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보다 풍요로운 나날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 나는 노년으로의 전환기를 체험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여성의 ‘중년’이 갖는 의미를 새삼 곱씹어 보게 되었다. 이들에게 “나이 들었다”는 자기 이해는 시작과 도전에 주저하게 되는 방해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여러 ‘이름’들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게 되는 해방의 기회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나영 : [나이 들어서] 건강도 챙기고. 그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기 몸 잘 못 챙기고 그러니까. 아리따는 아직 괜찮지만.

연구자 : 응.. 나이 들어서 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김혜숙 : 내가 좋아하는 거.

정나영 :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

50대 안팎,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전환기를 겪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이 시기에 겪는 전환기는 ‘엄마’의 역할이 축소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빈 둥지 증후군’은 이 시기를 상실과 결핍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요즘 우울해”라 말하는 연구참여자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전환기로서 이들의 ‘홀로서기’를 단편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전환기에는 이전에 대한 정리와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자녀의 독립과 부모와의 사별이라는 두 개의 과제”는 최옥희의 성찰처럼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재정비하여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의 시작이다. 이 같은 중년의 홀로서기를 현상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존재자가 아닌 존재로의 방향 전환, 존재물음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포부는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문제시하고 그리하여 다음을 도모할 때 가능한 일이다.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의 전환은 ‘여성’-다움의 규범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젊음, 날씬한 몸에 대한 강박관념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빗겨가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이 들과 그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이에 맞는 행복”을 발견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성’-되기가 일상적 실천의 중요한 문화로 작용하는 만큼, ‘여자다운 여자’가 되기를 포기 혹은 ‘여자다운 여자’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면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가 설 자리가 확보되기도 한다. ‘제3의 성’이라며 ‘아줌마’에 대한 비하적 담론이 한창일 때, 스스로 아줌마를 자칭하며 ‘제1의 성’도 ‘제2의 성’도 아닌 ‘사람인 나’를 강조했던 ‘아줌마 운동’을 떠올려볼 수 있겠다.

‘중년’의 시기는 이처럼 주목할 만한 전환기, 존재물음을 통해 나다운 나를 찾게 되는 전환기로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차이들을 살아내고 있는 나이 들의 과정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 여성들은 폐경이 돼야 세상을 투명하게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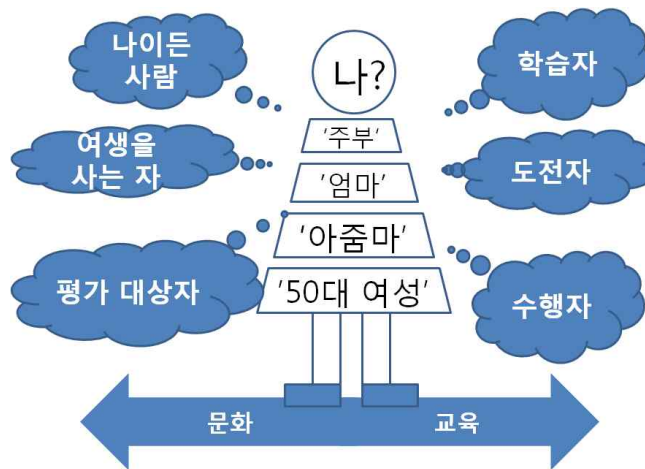
한다.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핑크빛 베일이 가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경의 나이가 되어야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김은실, 2003, p. 174). 이 이야기는 한편, 여성의 나이 들이 갖는 해방적 성격을 담고 있지만 폐경 이전 여성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살아온 과정 곳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해왔다. 나이 들이 ‘늙음’과 구분되지 않는 문화에서 나이 들은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단순한 전이(transition)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 들을 존재물음과 조우하며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험의 과정으로 주목한다면 삶은 전환(transformation)의 가능성을 품은 성장의 터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존재론적 교육의 입장에 서면 나이 들은 차이 있는 반복들이 있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교육실천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들뢰즈가 강조한 ‘되기’의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성, 연령, 가족역할 등을 ‘~이다(being)’의 정체성으로 간주할 때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되기(becoming)’의 정체성으로 간주하게 될 때 중년, 노년에 맞이하는 제2의 홀로서기는 물론, 나이 들이라는 과정 전체가 전환을 잠재한 ‘주름’의 ‘펼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아실현은 삶의 과정 내내 이어지는 정체성의 해체-재(구성)의 모습을 띤다. 늘 변화하는 우리, “노마드는 항상 사이에 있고, 되기의 과정에 놓여 있다.”(Semetsky, 2006, p. 43) 정진웅(2003)의 지적처럼 나이 들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틀이 필요하다. 문화가 이런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지 못할 때 개개인은 이를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내야 하는데,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안(어려보이는 얼굴을 뜻하는 신조어)’에 대한 과열된 관심, 나이 들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 삶의 더 나아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심하고 척박한지 드러나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틀은 다양한 실천들에 의해 모색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교육학이 해야 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기존의 인식론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존재론적 교육으로의 지향을 통해 삶과 교육의 연계성이 도모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에 걸친 인간 성장의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교육은 나이 들을 보다 적극적, 역동적, 희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이다. 또한 교육학 연구들은 교육생애사 연구(educational life history), 교육기술지(educography) 등을 통해 교육적 나이 들에 대한 보다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포착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생애는 교육적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조용환, 1999).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사회는 나이 들에 대한 이렇다 할 지침과 참고할만한 이야기들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나마도 소비적 웰빙 담론이 너무 주된 경향이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나이 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이 들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가능하면 미루고 싶은 젊음중심담론의 연장선 상에 있다. 나이 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그림 4> 중년 여성의 정체성

나의 경우에는 전환기의 아픔과 고민을, 앞날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림 4>에서 보듯 “나이 들”에 관한 다른 방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들을 교육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게 삶의 비결”이라는 학습자 정체성, “나이 들어서 이제껏 못 해봤던 것을 해 봐야 한다”는 도전자 정체성, “나이 들어서 [평가에 신경 쓰

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산다”는 수행자 정체성 등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는 그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지연, 유예, 외면했던 욕구를 나이 들 덕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 인정,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지지, 추동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구입한 물건 이야기 일색의 모임보다 “내가 즐거운 모임”, “공동의 취미가 있는 모임”을 선호하게 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말을 통해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보다 다양한 경로로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한 형식으로서 교육은 어떤 해석적 틀, 실천적 틀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일자리, 건강 돌봄, 사회 참여, 복지 수당, 저렴한 취미 교실 등 경제,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교육은 단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복지, 사회 등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성장 욕구, 교육적 관계를 지지, 추동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 성찰 역시 교육의 눈으로 살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나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새삼 확인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름’을 갖고 있다. ‘주부’, ‘아줌마’, ‘엄마’, ‘50대 여성’과 같은 이름은 내가 만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체성이었다. 교육의 눈으로 이들의 삶을 해석하는 틀을 모색한다는 것은 선불리 이러한 이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름이 어떤 특정 행동, 사고, 감정과 연결되는가를 개인만의 것이 아닌 문화의 맥락에서 살피는 한편, 어떤 갈등, 전환, 전유가 나타나는지 교육의 눈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이야기’ 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시 살기’를 함께 모색한다면, 그로써 나이 들에 대한 교육적 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2. 교육장소로서의 취미교실에 대한 상황분석

존재물음은 일상의 ‘빠져있음’에 거리를 두게 되는 방향전환의 ‘사건’이다. 그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레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경우도 떠올려보니, 존재물음은 차라리 늘 마음 한 쪽에 품고 사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누구의 삶이

든 ‘위기’ 시점이, 그에 따른 ‘전환’의 시점이 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든, 추후에 회고하든 그런 시점에 우리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조우’했다고 특별히 꼽게 된다. 연구참여자들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존재물음과의 조우를 회상하고 있었다. 대체로 자녀 양육에 정신없던 일상에 한창 빠져있다가 공허함을 느낄 때, 바쁨이 살짝 지나가고 여유가 생겼을 때가 그런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살핀 것처럼 이들이 공유하는 ‘여성’, ‘엄마’로서의 생애 과정에 관한 문화가 관련되어 있다. “심심하고 답답한” 일상에 변화를 주려고 “집 밖”의 “내가 갈 곳”을 찾아 이들은 취미교실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취미교실은 이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즉, 취미교실은 ‘위기-존재물음-전환’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추동하고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일상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야기하는 데 적절한 장소인가<sup>38)</sup>.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에게 취미교실 참여란 일상의 공허함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이유로, 특정 기능획득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이유로, 혹은 배움의 대상이 되는 ‘무엇’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취미교실 참여사에서 시기에 따라 참여의 주된 이유는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의 방식 및 의미 역시 달라진다. 이전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이유가 활동의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을 때, 곧 ‘생산적 학습’일 때 참여는 보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 하는 활동이 취미교실 밖으로 이어지는 등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의 즐거움”, “배워가는 재미”가 이와 같은 참여를 이끌고 지속시킨다. 이러한 계열이 형성될 때, 취미교실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중년 여성들의 교육적 삶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참여자들은 취미교실에 대한 기대를 하향 조정하거나, 처음 품었던 열정을 잃기도 하고, 관성적으로 출석하길 반복하다 결국 중단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참여자들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거나, 취미교실의 운영 및 관리에 책임 있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탓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 세계-내-존재로서 모든 개인들의 선택에는 이미 언제나 타인들의 책임이 함께 하

38) 사건은 문화의 장에서 계열화됨으로써 의미로 화한다(들뢰즈, 1969/2000, p. 29). 들뢰즈 철학에서 의미란 “새로운 장치를 통해 생산될 수 있는 것”(p. 151), 차이로 이루어진 계열들이 벗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가 시작되는 특이점이 ‘사건’이다. 이 책의 역자는 “이 세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탄생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순수 생성, 그것이 바로 사건”(p. 24)이라고 설명한다.

는 법이다. 또한 존재물음을 하는 현존재로서 모든 개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연 관계는 세계-내-존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처지에 기반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공유하는 문화에 주목하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문화의 다음과 같은 특징, 개인들에 선행하고, 개인들의 선택과 언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언제나 그들을 통해 재/생산 및 변형된다는 점에 주목할 때, 참여자들의 갈등을 그들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조용환(2009)은 인간의 판단과 행위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소상황,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항, 그리고 그 양자를 매개하는 다양한 문화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을 연계해서 고려할 때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취미교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나 또한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대상항-매개상황-소상황에 대한 고려는 “세상을 보는 창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문화를, 그러한 문화를 통해 “해석되고 매개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조용환, 2009, p. 226). 대상항, 매개상황, 소상황 각각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인용으로 대신하겠다.

소상황은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구체적, 특수적, 가시적, 일상적, 체험적 상황이며, 한 체제 안의 현장적 조건 혹은 내부적 맥락이다. 이와 달리, 대상항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보편적, 비가시적, 비일상적, 이론적 상황이며, 한 체제 밖의 환경적 조건 혹은 외부적 맥락이다. 그리고 매개상황은 대상항과 소상황을 연결하는 해석적 메타-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이 매개상황에는 각종 언론, 담론, 사회운동, 사회화, 교육 등이 두루 포함될 수 있다. (조용환, 2009, p. 226)

나의 경우, 소상황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차연 관계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들의 체험적 상황을, 대상항으로 이 시대와 사회의 조건, 맥락, 분위기를 그리고 소상황과 대상항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중년 여성, 취미교실, 교육 등에 대한 담론을 살피고자 한다.

나는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갈등상황을 세 가지 차연 관계로 정리했다. 첫째 ‘엄마’-되기와 ‘나’-되기 간의 관계, 둘째 교육에 대한 표현들의 관계, 셋째 취미교실 참여 방식으로서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 간의 관계다. ‘엄마’와 ‘나’의 갈등



관계는 가부장적 사회체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 등의 대상항과 이를 매개하는 모성담론, ‘교육’성공담론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앞 절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자이자 전문가로서 엄마의 역할이 강조되는 ‘매니저 맘’ 담론, 교육을 경쟁과 평가로 이해하는 ‘입시 교육’ 담론 등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고학력자이면서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일수록 “남들 다 하는데 [사교육]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기 쉽다.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겪는 소외감, 허탈함, 공허함은 “자녀 교육”에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기대만큼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증폭되곤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아쉬운 결과에 대해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자책어린 후회를 하게 될 때, ‘엄마’-되기와 ‘나’-되기의 갈등 관계가 심화 된다.

둘째와 셋째에 해당되는 관계 역시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그리고 이의 배경이 되는 시대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그들의 문화적 이해가 취미교실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부합되지 않음을 인상 깊게 보았다. ‘중년’이자 ‘여성’으로서 ‘교육’의 주체로 스스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의 처지로부터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이라는 분리가 야기된다는 점 또한 그러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평가가 중심이 되는 ‘교육 문화’에의 길들여짐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교육과 구분하지 않는 문화, 대학과 취업이라는 결과로 교육의 가치가 평가받는 문화, 학습자의 성장 대신 짜여진 교과내용을 주입하는 데 급급한 문화 등이 모두 평가 중심의 ‘교육 문화’와 짝을 이룬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학습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취미교실에서 벌어지는 참여 체험으로서 소상항은 ‘교육 문화’가 매개하여 형성되는 중년 여성들의 학습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교육에 대해 “재미 없음”, “필요 없음”, “두려움”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을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사람들이 하는 일로 간주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를 재/생산해내는 입시 교육 담론과 관련 깊은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 체제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체화 하고 있었다. 그들의 학습 효능감 및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들이 취미교실을 찾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용

기”를 꼽는 것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관리 기관 및 강사도 이러한 문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동사무소로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교육의 공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질에 대한 고민은 무척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을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한정 짓는 문화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교육이 도모되고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동사무소 스타일”이라는 표현은 취미교실을 둘러싼 맥락과 이를 해석하는 중년 여성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이지영 :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단위로 새로 받다보니까 조금 가리키다보면 새로 들어오니까 다시 봐줘야지. 이게 동사무소 스타일. 동사무소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오래 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이희정 : (반을) 나눠야 돼.

이지영 : 응. 나눠야 돼. 이런 동사무소 스타일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최옥희 : 그래.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로. 여기 와서 기타치고 있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들이고 싶은 사람들은 제대로 하라는 거지. 다른 데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오래 된 사람들이 왜 문화원으로 옮겨 가고 그랬잖아.

이지영 :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가 다른 데서 배운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일렉 기타를 가르쳐서 하나씩 뜯는 건 잘 하는데 다른 건 또 못 한대. 거긴 보통 7년, 8년 다녔대. 서른 명이 다니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대.

최옥희 : 그래. 어딜 가든 장단점이 있는데 더 좀 제대로 배워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재미로 (웃음)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편해서 이리로 오는 거지.

이지영 :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즉, 취미교실을 교육적 관심 및 욕구가 존중되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낫선 관

리자 그리고 열악한 지원 체제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강사는 “적당히 취미로 하면 돼”라는 참여자들의 태도와 상호 연관적이다. 이에 따라 ‘생산적 학습’ 대신 ‘소비적 학습’으로 만족하는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

이처럼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의 “경험, 개인적인 것, 감정 등은 구조화되어 있고 내재적으로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가리킨다.”(Marcus & Fischer, 1986/2005. p. 124)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태도, 이것과 연관된 담론은 다른 담론과 상충되기도 하고, 호응되기도 한다. 예컨대, 교육을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사람들이 하는 일로 간주하는 문화, 이러한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학교교육’, ‘입시 교육’ 담론은 이미 하나의 시대적 조류가 된 ‘평생교육’ 담론과 상충된다. 학교교육과 대조하며 평생교육을 하나의 패러다임적 전환으로 보는 입장에서 평생교육 담론은 특정 장소, 연령,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을 도모할 가능성으로 해석된다(김신일, 2005). 교육을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간 성장의 과정으로, 삶의 형식으로 간주할 때 이는 교육이 제 의미를 찾아가는 환영할 만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취미교실에서 발견된 ‘학교교육’, ‘입시 교육’ 담론은 어쩌면 ‘평생교육’ 담론의 우세에 따라 점차 힘을 잃어갈지 모른다.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취미교실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서 사는 게 좋다”는 60대 중반의 한 참여자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그녀의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교실 참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취미교실 체험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태도변경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우울을 이겨내고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저렴한 가격, 물리적 근접성 등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동사무소 등 공적 기관에서 운영되는 취미교실은 노년기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불안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취미교실의 역할과 책임을 평생교육 담론 속에서 논의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이 '교육다운 교육'인가를 부지런히 물어야 함은 잊어선 안 된다. 예컨대, 평생교육이 추동되는 맥락에 인간을 대상화, 수단화하는 자본의 논리가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듯, 취미교실 참여를 통해 인간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중요하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취미교실 체험을 매개하는 각 중 담론들, 문화들의 맥락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대상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입시 교육’,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담론의 외부적 맥락으로서 ‘불안’이라는 시대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불안을 야기하는 조건에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벌어지는 계층 격차, 미비한 복지제도 등 사회구조적 맥락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들을 헤쳐 갈 몫이 개인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 불안 사회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사회, 제도적으로 삶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개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잃을까봐 불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부족할까봐 불안하다.

불안의 시대는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든다. 그런데 불안의 분위기가 야기하는 채찍질은 그 목표가 애매하다는 특징이 있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아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여가를 여가답게 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함이다. 여기에 테크놀로지의 발전도 기여를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 현대인들은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로 무엇이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길 요구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여가를 뺏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상적 세계와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상과의 거리두기는 반성과 성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는 관성적으로 일상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바쁨에 관성적으로 빠져있다가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동안 미뤄둔 과제가 한꺼번에 덮쳐온다.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만난 중년 여성들이 홀로서기에 마주하게 되는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불안의 시대가 야기하는 반사적 의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분명 다르다. 그것은 놀이의 시간, 창조의 시간,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피로”(한병철, 2010/2012, p. 69)에서 비롯되는 마음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이를 매개하는 ‘교육’ 담론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학습자 정체성은 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저해한다. 교육은 일상의 바쁨과 지침을 인식하고, 이를 성찰하는 여유의 시간

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육의 주체로 정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람,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이 유일한 교육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를 경계해야한다. 취미교실이 교육장소로서 거듭나는 데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 3. 취미교실에서의 두 가지 ‘참여’

취미교실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가장 오래 고민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참여란 단지 취미교실에 수강료를 내고 ‘등록’을 하는 것과 구분된다. 여기에서 참여란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나를 내맡기지 않고, 상황과 다투고 조율하며 궁극적으로는 나와 상황 모두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는 학습자의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그의 이해지평이 확장되는 존재론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존재론적 교육과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체험은 등록과 참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록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긴 하나, 그곳에서의 적극적인 관계 설정이 동반되진 않는다. 비유하자면 책가방 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할 뿐,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찾지 못 한 아이의 상황이다. 반면, 참여는 상황 속에 나를 위치하고, 적극적인 관계 설정이 동반된다. 참여는 그런 점에서 이유와 의미가 동반되는 활동이다.

등록과 참여의 이와 같은 특징은 각각 사르트르(Sartre, 1943/2009)의 ‘즉자존재(卽自存在)’ 그리고 ‘대자존재(代自存在)’의 특징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존재의 양태를 구분하며, 대자존재를 자유의지와 지향성을 가지고 초월하려는 양태로, 즉자존재는 그러한 초월 의지를 상실한 양태로 설명했다. 나는 이를 참고하여,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등록’ 여부라는 구분 대신 취미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에 따라 체험적 의미가 창출되는 ‘참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취미교실의 중년 여성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획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이러한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구분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눈일 뿐이고,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참여 양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다. 또한 지금 내 눈에는 등록으로

보인 모습이 언제든지 참여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태이며, 실제의 삶은 늘 이러한 경계를 품고 있다는 점 역시 짚고 싶다. ‘책가방 매고 왔다 갔다 할 뿐인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러한 경계를 외면한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일지 모른다.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중년 여성들의 참여로 나는 두 가지에 주목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취미다운 취미’로서의 참여다. 이전 장에서 말했던 능동적 취미에 해당된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을 살피면서 능동적 취미가 학습, 특히 생산적 학습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했다. 또한 취미의 뜻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가 내가 주목한 능동적 취미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미는 달릴 ‘취(趣)’, 맛 ‘미(味)’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때 ‘취’는 ‘~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다’의 뜻으로서 상대에 대해 마음을 흠뻑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가 뜻하는 ‘맛’은 단지 음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의 특징과 관련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사람은 참 알아가는 맛이 있어’, ‘이 책은 곱씹게 되는 맛이 있어’, 등과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때 ‘맛’은 대상 고유의 ‘멋’과 의미가 상통한다. ‘맛’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관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도 있다. 즉, 대상은 이미 언제나 그 자신으로 존재하지만 특별히 나와의 관계를 통해 그 ‘맛’을 알려온다. 국어 사전에서 ‘취미’는 ① 마음에 느껴서 일어나는 멋 ②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③ 전문으로서가 아니라 즐기려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일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2003)로 정의되는데, 이는 이와 같은 어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취미는 다른 목적 없이, 오직 나와 상대가 마음으로 이끌려 폭 빠지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능동적 취미의 형태로 취미교실에 참여할 때, 그들의 활동은 이러한 취미다운 취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무엇’이 비교적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리고 그로부터 얻고 있는 성취감이 크면 클수록 취미교실에 거는 기대는 작았다. 이때 취미는 단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하는 활동, 긴장을 위한 치유처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수동적 취미의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유사성이다. 연구참여자들, 특히 전업주부인 참여자들의 경우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척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는 과정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삶의 전환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껏 그저 심심함을 달래는 수단이었던 취미교실이 다른 의미로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무게중심이 전환되는 과정에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취미교실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한계적 상황들이 그들의 홀로서기를 방해하기도 한다. 여전히 ‘엄마’와 ‘주부’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가족들, “나아름”이라거나 교육에 관한 자기소외적 문화들 역시 중년 여성들이 취미교실에 몰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이지영의 사례는 흥미롭다. 이지영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취미교실들에 참여해왔지만 최근 들어 기타의 재미를 느끼며 집중하고 있다. 이것저것 등록하여 조금 조금씩 해왔지만 이제는 탁구와 기타 두 가지에 정착해가고 있다. 그녀의 변화는 기타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비롯된 더 중요한 계기는 “기타 치는 게 지루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지영 : 배우길 잘 했다. (고민하며) 배우길 잘 했다. 일단 배우면서, 일단 탁구 같은 경우도 배우면서 건강도 챙기고 기타 같은 경우도 TV를 보면서 그냥 기타를 안 배운 사람은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상관 안 하고 아, 그냥 음악이구나. 듣기 좋다 그럴 텐데 기타를 치는 사람은 아, 저걸 어떻게 치지? 아, 저건 뭐, 쿵쿵 짹짹 저렇게 치는구나. 저 주법은 저렇게 치는구나. 그런 것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 (웃음)

연구자 : 맞아요. 기타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이지영 : 기타도 계속 할 거야. 하는 한. 끝까지(강조) (웃음)

연구자 : 우와. 끝까지. 멋있다.

이지영 : (웃음)

연구자 : 하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게 있으니까.

이지영 : 응. (웃음)

연구자 : 여기 나오시는 분들 안 나오셔도 나오실 거예요? (웃음)

이지영 : 안 나와도 해야 되겠어. (웃음) 여기서 안 배운대도 다른 데에서 배워도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어. (목소리 커지며) 아니, 이게 손을 놓으면, 안 배우면 안 하게 되더라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지영의 대답처럼 우리는 “왜 배워?”라는 말에 “~에 도움이 되니까.”라는 대답을 하는 데 익숙하다. 교육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습관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냥”, “좋아서” 한다는 말에 인색한 문화는 물입이 어려운 사회, 여유가 없는 사회와 짝을 이룬다.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것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하게 되는 활동의 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지영은 기타와 음악에 점차 매료되는 과정에서 계속 해보겠다는 의지를 키웠다. 그러한 이지영의 변화는 곁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이지영은 기타교실 사람들에게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모델이 되고 있다. “음악이 수학이야”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타 치는 일이 지루한 반복이 아닌, 알아가는 과정으로 변화한 것은 곧 그녀가 ‘취미다운 취미’에 몰입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취미다운 취미’는 도구적 연관이 아닌 존재적 연관에 나와 상대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제 이지영에게 기타는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음악이 말을 거는 통로 그 자체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가 아닌 ‘그냥’의 관계는 나의 선입견과 고집을 접고 상대를 가장 그다운 모습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내 마음이 달려갈 때, 비로소 그의 참된 멋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 지평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취미다운 취미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된다. 즉,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들의 두 번째 방식으로서 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은 취미다운 취미에 참여하는 가운데 지평의 확장, 곧 나의 성장이 취미교실 참여 이유의 진경에 떠오를 때, 그리하여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관계가 강조될 때 이루어지고 있었다.

취미다운 취미와 교육 두 활동의 연관성을 고민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나의 체험 때문이었다. 일 년여 동안 요가 교실 및 기타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그 날 그 날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요가의 의미가, 기타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요가를 연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내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길 때, 나는 요가를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낯설게 만나곤 했다.

특별한 다른 것은 없었다. “나마스테” 인사로 시작하고 끝나고, 익숙한 동작과 낯선 동작들이 이어지고 아령 운동을 하였다. 동작은 같지만 음악



은 달랐다. 그래서 그런가? 요가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처음 요가 교실을 찾았을 때는 동작들을 익히느라 바빴고, 현장 분위기나 사람들을 보는 데 신경 쓰느라 요가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내가 참여관찰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요가만 하는 날들이 생겼다. 동작들이 몸에 익으니, 좀 더 내 몸의 움직임 자체를 바라보며 요가를 하게 된다.

“의식을 배꼽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조금씩 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걸 느낄 때 뿌듯하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과 달리 더 와닿는다. 선생님의 안내대로 요가 동작을 하면서 각 동작이 만드는 자극들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럴 때 요가를 통해 내 몸을 만나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움직임을 통해 평상시 안 돌보던 내 몸 구석구석, 바깥과 안을 살피게 된다. 신기하게도 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을 새삼 발견한다. 그리고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나와 세계는 말 그대로 섞인다. 하루를 마감하고, 요가를 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sup>39)</sup>

요가는 물론 기타도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육”의 모습과 꼭 맞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이 취미교실 체험을 “교육”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는 데 낯설어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살펴본 것처럼 “아줌마”이자 “나이 든 사람”이라는 정체성, “평가와 결과가 중요한 활동”이라는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은 뭐 인문학 이런 강좌 듣고 공부하는 거고 요가하는 건 그냥, 그냥 하는 거지”라는 인식론 중심적 접근 등이 “내가 하는 건 교육 아닌데”라는 말의 이유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체험에는 교육적으로 주목할 의미가 분명 있었다. 앞서 나는 이 부분을 ‘교육에 관한 체험적 이해’라는 소절에서 네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했다. 이는 ‘교육 문화’와 연관된 ‘교육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와 대조되었다. 그를 통해 문화를 낯설게 보게 되는 계기, 교육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들을 의심하는 계기 그리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선생님이 중요해”, “결국은 나의 몫”, “시간이 필요한 과정”, “어려워도 재밌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들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교육의 표현 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니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종의 협상, 해석으로서 학

39) 2012년 2월 15일 연구일지를 글의 맥락에 맞게 발췌 및 보완했다.

습은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Daniels, 2008, p. 96)는 점이 나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배우는 데 딱히 흥미 없어”라고 말하는 조문선이 “아줌마들도 교육 필요하죠. 나도 박물관 같은 데서 하는 강좌도 듣고 싶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라고 말할 때, 기타교실의 참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취미지, 뭐”라고 말하면서도 “나이 들어도 배우는 재미가 있어야 해”라고 말할 때 문화적 인식과 다른 교육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때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선택하는 단어, “취미”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게 그들의 체험에서 교육적 함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취미다운 취미, 능동적 취미의 특징을 다시금 주목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의 요가 체험을 떠올려보자. 취미와 교육의 경계는 단순히 활동의 종류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가라고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타라고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요가의 원리가 나를 가르쳤고, 나는 요가를 통해 내 몸과 만나는 법을 배웠다. 요가 선생님의 지도가 나를 도왔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체험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목하고 싶은 교육의 특징은 ‘성장 지향’,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그리고 ‘활동 내재적 흥미’, ‘자발적 참여’다. 흥미로운 점은 수동적 취미에서 능동적 취미로, 특히 교육으로 참여 의미가 바뀔 때, 보다 나아지려는 성장 의지 및 그를 위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갈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강사의 적절한 자극과 가르침, 가족의 이해 및 지원, 함께 참여하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이들의 교육 참여를 도왔다. 반면, 가족 행사, 사건 등으로 인해 결석하게 되거나, 수업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동료들의 잦은 결석으로 본인 또한 참여 의지가 꺾이는 경우에는 교육 참여는 물론 취미다운 취미의 모습도 약해졌다. 참여자가 놓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교육에 대한 문화적 인식, 상식이 방해 요소가 되기도 했다.

<표 3>에서 살펴본 참여 목적에 따른 참여 방식의 차이는 다음 쪽 <표 5>에서 보듯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의 차이를 비교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단지 취미 교실 참여만이 아니라, 여타 삶의 장면에서도 발견 가능하며, 실천 가능한 교육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표 5>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

	소비적 학습	생산적 학습
과정	찾은 결석 수동적 변화	지속적 참여 능동적 변화
내용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 스트레스와 부담 지양	관계와 더불어 나의 배움 중요 이해지평의 확장
방법	또래 학습과 대화 중요 부담 없는 교수자 중요 학습자의 학습의지 적음	또래학습과 대화 중요 교수자의 적절한 자극 중요 학습자의 학습의지 중요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 그리고 교육의 관계를 살피면서 나는 교수와 학습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교수 중심 교육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학습이 강조되는 추세에 놓인 요즘, 교수와 학습이 마치 양자택일의 관계인 듯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학습에 대한 능동적 관심은 교수자와의 관계를 마치 한 쌍처럼 원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때 학습자의 학습 의지가 소비적 학습에서 생산적 학습으로 변모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리하면, 생산적 학습은 지속적 과정, 이해지평 확장으로 인한 성장,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능동적 참여라는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와 학습의 상징적 상호작용’,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과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 세 가지를 교육의 본질적인 요건으로 꼽는 조용환(2012a)의 교육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육다운 교육’의 모습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소비적 학습과 생산적 학습이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며, 그렇게 간주해선 안 되는 까닭을 짧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생산적 학습이 소비적 학습에 비해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소비적 학습에 교육이 없다고 볼

40) 조용환의 교육에 대한 정의는 이전 저작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화와 교육』(1997)에서 ‘가르침과 교육의 상호작용’, ‘평생을 걸친 과정’, ‘더 나은 인간 형성’을 세 가지 요건으로 꼽은 이래 그는 자신의 교육 개념을 계속하여 수정, 보완해왔다. 방법, 과정, 내용 세 가지 면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요건을 모색해온 그는 과거에 비해 좀 더 존재론적으로 정교화 된 정의를 이야기 한다. 나 역시 교육이 단지 인식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성장에 관심과 목표를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교육에 관한 정의에 동의한다.

수는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전/배경의 교차 속에서 “여가활용”에 뜻을 두기도 하고, 능동적 취미로서 “취미”에 뜻을 두기도 한다. 이 모두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들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일과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취미는 삶의 전경에 오기도 하고 배경으로 밀려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스트레스가 배움의 기쁨으로 달래지기도 하고, 심심한 일상을 함께 할 벗을 만나기도 한다. 취미교실만이 이들이 능동적, 교육적, 실존적 삶을 꾸릴 장소는 물론 아니다. 이곳에서 수동적 취미, 소비적 학습을 겪는 와중에 일 혹은 가정에서 능동적, 교육적, 실존적 삶을 살아내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취미교실에서 소비적 학습의 방식으로 참여를 하다가 삶의 상황과 맥락이 변화됨에 따라 생산적 학습으로 참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첫째, 어떤 장소, 어떤 세계에서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장소, 어떤 세계를 기반으로 하든 중년 여성들의 삶에 단지 소비적,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생산적, 능동적 학습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중요하다. 둘째, 어떤 장소에서 지금 소비적 학습이 주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육적인 게 아니라, 생산적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영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문선도, 최옥희도 머지않아 지금의 소비적 학습에서 생산적 학습으로 취미교실 참여 방식에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자신의 삶과 교육의 관계를 보다 능동적으로 고민하게 될지 모른다. 이때 수동적 취미, 소비적 학습의 체험은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참여로서 취미, 그리고 교육은 이렇듯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전환적 과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 교육”(Gadamer, 1999/2004)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시작된다. 김혜숙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사례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음악을 만나게 된 이지영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자기 교육의 모습과는 또 다른 점을 그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고, 음악은 그녀에게 줄곧 두렵고 어려운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타교실의 다른 누구보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그녀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개척해갔다. 강사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다른 수업을 통해 보충을 하기도 했다. “나의 발전”을 위한 그녀의 도전은 다른 기타교실 참여자들의 학습 의지를 자극하기도 했다. 소비적 취미, 능동적 취미 그리

고 교육은 각각의 전단계 혹은 후단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설 때, 이들은 “고비”를 넘기는 인내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통해 취미교실 참여를 지속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취미다운 취미와 연관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교육으로서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의 참여는 요가, 기타 등 활동의 내용을 통한 지평 확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들은 취미교실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리 두어 성찰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이들은 자신의 취미교실 체험을 통해 “동사무소 스타일”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돈이 안 되는 것”에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성 목적이 아닌 곳”이라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는 점을 그들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취미교실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지적하는 이와 같은 점들은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참여자들 자신이 이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몸으로 안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판은 중요하다.

또 한편,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중년 여성들이 자신 없어하는 것과 달리, 자기 교육의 주체로서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미교실을 둘러싼 여러 맥락들로 인해 그들은 발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깨는 데 ‘실패’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들과 만나오는 동안 나는 “동사무소 스타일”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이곳을 선택한 이지영의 경우, 이전 참여 방식 혹은 의미가 이후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으며, 나름의 고투가 담겨 있었다. “제대로 하려면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 가야해”라는 그녀의 말을 통해 보자면, 그녀의 선택은 포기, 안주로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을 좀 더 총체적인 삶 속에서 본다면, 그녀가 이곳에서 그 갈등을 채울 다른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배움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그녀는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그렇기에 이곳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지영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하다가 현재 기타와 탁구로 활동을 줄이고, 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교육과 삶의 좀 더 적극적인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문화는 학습자로서 자신의 체험을, 선택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기 주저하게 한다. 활동에 깊이 몰입하고, 배움에 의지를 품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단순한 취미’는 ‘취미다운 취미’로, 또한 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년 여성들이 취미교실에서 교육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학습생태계가 갖는 중요성을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다.

“나는 배우는 게 취미야”라는 이지영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의 학습자 정체성만을 함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에는 중년 여성들과 취미교실이 처한 한계적 환경, 곧 ‘동강난 시간’과 자신을 위한 투자에 주저하게 되는 ‘아줌마’의 상황이 담겨있다. 짧은 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 가능한 취미교실은 진득한 배움의 과정 대신 “단지 취미”, “여러 개의 취미”를 제공함으로써 갈증의 근원을 채우지 못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다시 취미교실 참여를, 특히 생산적 취미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이와 같은 정체성은 학습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이, 비체계적 수업 관리, 교육을 저해하는 문화 등의 방해요소를 넘어서는 힘이 되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다른 언어를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체험은 곧 그녀들이 교육을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실천하게 되는 계기이자 동력이 된다.

나의 어머니 또한 그 동안 다양한 취미교실에 참여하면서 “뭐든 열심히 하면 되더라.”는 교훈을 체험적으로 습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중년의 홀로서기를 겪으며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하던 어머니는 최근 다시 ‘대학생’이 되셨다. 이지영도, 나의 어머니도 장기간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점차로 활동 자체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배우고자 하는 교육적 열의를 키워왔다. 수동적 취미의 방식이 능동적 취미로 이행하면서 교육을 삶의 전경에 두는 데 용기와 즐거움을 찾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 교육의 관계를 서로의 대조항이 아니라,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눈으로 보면 현재 어떤 형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상으로 그 참여가 어떠한 방향으로 촉진되고 지지받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교육의 주체로 혼자 서지 않고 함께 서는 것 역시 취미교실 참여의 교육적 의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다. 학습생태계의 강조가 ‘그들’의 교육을 돕

는 사회제도적 체제 마련이나, 문화와 인식의 전환이라는 ‘그들’ 외부의 행동 주체로 집중된다면 다시금 중년 여성들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머물게 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나의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좀 더 잘 살기 위해 용기 내어 낯선 곳을 찾는 도전자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학습자의 면모도 갖고 있다. 또한 ‘엄마’와 ‘나’ 사이의 갈등 관계를 자신의 삶에서 화해시키는 여성들의 모습에는 타인을 심려하고 돌보는 삶의 가능성이 담겨있기도 하다. 평생교육 사회, 평생교육 시대를 도모할 때, 그러므로 이들 자기교육의 주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통로가 필요하다. 학자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를 구분해온 기존 학문 관행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취미교실이 개인들의 취미 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비판은 한편 수동적 취미, 소비적 학습에 머물고 있는 취미교실의 상황을 반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능동적 취미, 생산적 학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진 취미교실 참여자들, 중년 여성들의 가능성을 축소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 경계할 필요도 있다. 개인, 취미와 사회, 운동을 이분화시키고 선불리 가치 판단하기 전에 개인과 사회의 연결, 취미와 사회 참여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결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주부 운동’은 각 가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가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소비 활동, 친 환경적 생활 등을 함께 도모한 사례다. 취미교실도 충분히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활동 내재적 흥미와 자발적 참여, 성장에 대한 의지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로서 취미교실 참여가 활기를 띠 때, ‘우리’는 기타를 들고 동사무소 밖으로 나서게 될지 모른다. 이미 어떤 취미교실에서 그러한 것처럼 노인 회관, 복지 센터, 지역 행사장을 찾아 배운 것을 나누고, 그를 통해 ‘우리’ 또한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모른다. 무엇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지, 학습자들이 그를 통해 어떤 기술을 향상하는지 이상으로, 존재의 변화를 통해 나를, 그리하여 자연스레 ‘우리’를 성찰하게 되는 체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가능성을 쉽게 회의하거나, 취미교실이 사회 참여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 쉽게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하는 데서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 V. 글의 끝에 선 시작

어느 덧 글의 끝자락에 서게 된 지금, 나는 약 일 년 동안의 연구가 내게 준 가르침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모자람과 상황적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 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떠오른다.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충분치 못 했고, 그렇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많다. 하나의 글로 엮어내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나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누락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 글은 그들과 내가 나눈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글은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연구 이전의 자리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같지 않음은 삶을 나눠준 연구참여자들 덕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더해진 질문들, 과제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내가 끌어안고 나아갈 귀한 선물이다.

### 1. 요약 및 결론

지금부터 나는 ‘중년 여성’, ‘취미교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것,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 나의 배움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 의문을 품었던 부분에 대한 나름의 답이며, 달리 말한다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 나는 이 연구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중년 여성’에 대한 이해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중년 여성을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인식론적 접근 대신, 각기 그 때의 상황에 살아있는 존재, 나와 삶의 지평을 나누는 존재로서 중년 여성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 내내 나는 여성으로, 엄마로, 주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볼 수밖에 없었다. 한 명, 한 명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과정은 가족 발달 과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 직장 문화, 교육 문화, 성별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우, ‘엄마’로서의 역할이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종종 ‘나’ 자신과 갈등관계에 놓이고 있었다. 또한 신체적 나이 들의 과정이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간주되는 문화가 ‘엄마’와 ‘나’간



의 갈등을 더욱 촉진하기도 한다.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따라 ‘엄마’의 성공이 평가되는 문화, 승진을 비롯해 여성에게 불리한 남녀차별적 직장 문화는 이들이 ‘엄마’로서도, ‘나’로서도 성취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막연하게 취미교실의 교육적 의미를 증명하고자 했던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애 과정에서 취미교실이 갖는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두고 ‘중산층 아줌마들의 개인적 취미’라 단정 짓는 입장에 대해 어떠한 반론을 펼칠 수 있을지 알게 되었다. 취미교실은 ‘엄마’로서도, ‘나’로서도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낀 여성들이 찾는 일탈의 장소,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다”는 다소 막연한 기대로 찾게 되는 곳이다. 그런 면에서 위 비판은 일견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계속하여 삶이 이어진다는 점, 그리하여 이들의 상황과 맥락이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 부단히 묻는 현존재로서 여성들의 역량을 간과한 것이다. 취미교실에서 이들은 “모르던 것에 도전하고 알게 되는” 체험을 한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시험 공부하듯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취미교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낯설기만 했던 음악의 아름다움”이다. 이러한 얇은 인식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 지평이 넓어지는 존재론적 교육과 연결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나이 든 사람”, “여생을 사는 자”,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 “학습자”, “도전자”, “수행자”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곤 한다. 중년의 ‘홀로서기’는 이러한 체험과 상호지지의 관계를 맺는다. 물론, 여성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스스로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꼭 취미교실일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엄마’, ‘나’, ‘여성’인 그녀들이 자신의 다른 정체성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둘, 취미교실이 교육장소로서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갖는지에 대해 이 연구가 어떤 삶의 기회를 주었는지 정리해보자. 취미교실은 “아줌마”, “배워 써먹을 데가 없는” 여성들이 저렴한 가격과 거리적 근접성 덕분에 부담 없이 찾게 되는 곳이다.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 했던 것들을 늦은 나이에 시작할 때 두려움을 덜고 도전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취미교실의 장점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곳에 대한 불만,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즉, 수업 내용 및 방식의 비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장점이 될 때는 “유연함”, “부담 없음”으로 해석되며

이곳을 찾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감”, “수준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서 따라가기 어려움” 등의 불만 역시 “동사무소 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곳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더 잘 하고자 하는 욕심 없이 그저 즐겁게 한 시간 보내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유형과 장소를 변경하는 대신 “어딜 가도 결국 나의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태도를 변경한 유형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배우는 것의 즐거움과 ‘자기 교육’의 주체로서 나의 역량을 발견하게 되는 취미교실의 교육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 역시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마음을 키우게 되곤 한다. “동사무소 스타일”의 교육장소로서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이와 같은 또래 학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주와 타협의 태도를 야기하는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를 위한 교육,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취미교실 참여에 교육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재미 없음”, “필요 없음”, “두려움”의 태도는 여성들이 이곳의 한계적 상황에 안주하게 만든다. 취미교실이 특정 장소,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문화를 반성함과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는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셋, 연구참여자들의 취미교실 참여를 통해 교육에 대한 나의 이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리해보자.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취미교실 참여를 통해 배운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이해와 관련된다. 이들은 “선생님이 중요해”라며 교육의 교수-학습 관계를 강조했다, “결국은 나의 몫”이라며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당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의 시속으로서의 면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교육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도 재미있는 것”임을 그들은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다. 관계적 성격, 과정적 성격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 지평이 확장되는 존재론적 성장이라는 내용적 성격은 조용환(2012a)의 교육 요건에 동의하고 있는 나의 교육 개념과 통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해석/실천 자체가 교육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허물고, 새로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배웠다. 그리하여 교육학도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그 자체로 교육적 체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동적 취미, 소비적 학습으로 만족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 취미, 생산적 학습의 방식으로 취미교실 참여 태도가 변화되곤 했다.

교육을 특정 장소, 대상에 한정 짓는 문화는 이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지만 좀 더 나에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의 지지와 자극은 취미교실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다. 그것을 두고 이들이 ‘교육’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를 낯설어 한다면, 교육학도인 나의 몫은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하기 어려운 것’을 살피는 것일 테다. 곧, 설명이 아닌 이해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육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삶과 교육의 동행을 탐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부족하나마 다양한 종류, 다양한 방법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취미교실 참여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를 통해 그들과 내가 길들여져 있는 제도, 평가, 결과 중심의 ‘교육 문화’, 그러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중년 여성들의 삶에서 교육을 분리시키는 연령문화, 성 차별 문화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또한 표면적, 한계적으로 그러하던 취미교실과 “아줌마”에 대한 거친 판단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다운 교육’에 대한 모색은 마치 나의 연구참여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에게도 점차로 보완되고 수정되어 가는 ‘늘과정 중에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상의 배움을 토대로, 삶과 교육의 연결됨을 고민하는 나 자신과 이에 공감하는 당신, ‘우리’에게 다시금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아줌마’라는 이름표 너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 여기에서부터 관계를, 연구를, 교육을, 사회적 변화를 시작하자. 취미교실이라는 ‘교실’만을 교육의 장소로 한정짓지 말자. 이곳을 포함해 일, 가정에서도 이들이 ‘나다운 나’로 소외되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자. 취미교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일상적 세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일탈의 장소이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성장자극과 그로 인한 이해지평 확장의 장소로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 또한 후자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기반 체험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눈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 기능을 통해 일 혹은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색하고 성장해가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교육의 눈은 교육인 것과 비교육인 것을 가르치는 것 대신 한 사람의 총체적인 삶이 좀 더 교육적이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데 그 역할이 있다 할 것이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교육은 특정한 지위, 특정한 연령, 특정한 장소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과정으로서 교육은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유목적 삶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삶의 수단이 아닌 삶 그 자체다”(Dewey, 1916 : Semetsky, 2006, 재인용. p. xxiii)라고 말한 듀이나, 차이를 통해 생성되는 의미에 주목하는 들뢰즈 그리고 이들의 철학을 통해 '되기'로서의 교육에 주목하는 시메츠키에 따르면, 가르침과 배움의 조건은 장소나 지위, 특정 연령에 매여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의 조건은 '다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나를 허물고 거듭나는 변증법적 성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삶의 어느 때, 어느 맥락에서건 존재가능하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학습자', '교수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유목하는 정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취미교실이 교육 공동체로서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곳에서 이러한 학습자-되기, 교수자-되기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학습자', '수행자', '도전자'로서의 정체성은 취미교실을 통해 촉진되고 지지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일과 가정 등 이들이 다른 세계에서도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내가 즐거운 모임”이란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규범에 대한 부담이 야기하는 소외가 덜한 관계, 여러 이름들로 설명되는 나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것일 테다.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냥’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관계가 취미와 나 사이에 가능하다면, 취미교실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내가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2. 못 다한 이야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나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가장 몰랐던 사람,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고픈 마음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오래 품었던 질문이었던 만큼, 소중한 사람과 밀접히 연결된 연구였던 만큼 이러저러한 지침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다름 아닌 연구 자체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같은 이유 때문에 연구 현장을 낯설게 보는 일이 무척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고백하건데, 이 연

구 과정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익숙한 나의 세계에 폭 빠져있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러나 연구가 내게 준 가장 값진 체험이었다. 중년 여성들의 삶, 이들이 참여하는 취미교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이 체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이 체험에 대해 다른 지면을 빌려 고백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래는 그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연구자’인 나를 배경에 미루고, ‘기타를 배우러 온 사람’인 나를 전경에 두자 기타교실은 훌륭한 배우의 장으로 변모되어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나의 기타 ‘선생님’이 되었다.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들 대신 나는 악보를 구해서 나누고, 그 악보로 함께 연습을 했다. 수업이 끝나도 나머지 공부를 하며 이러저러한 수다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다. 기타교실 3학년들의 음악 프로그램 방청 나들이에 초대받아 시내 버스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수학 여행가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통해 삶을 나눴다. 열 명의 ‘엄마’들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말들,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적어가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이들의 열정과 애정을 느끼며, 이곳과 이들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야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우리 사회에서 중년 여성들이 어떤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끼는지, 취미교실에서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완전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가족만 우선하는 이기적인 아줌마’, ‘여자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아줌마’ 등 ‘아줌마’에 대한 외부의 잣대가 얼마나 이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들은 ‘아줌마’, ‘엄마’, ‘아내’, ‘주부’ 이기 이전에 스스로의 삶에 애정과 열정을 안고 부단히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제야 내가 왜 이들과 관계 맺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엄마’로서 나를 ‘딸’처럼 도와줄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50대 여성들과 ‘엄마’-‘딸’이 아닌 다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라’는 말의 의미가 그제야 다가왔다. 그간 나의 세계가 얼마나 작았는지, ‘나는 관계를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과신이고 오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타인이고, 단지 그와 대화 나눈다고 해서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길들여진 눈으로 보면, 결코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으로서의 그를 만날 수 없다. 관계는 익숙한 나를 낯설게 보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41)</sup>

흔히 질적 연구에서 강조되는 ‘라포’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구를 매개로 만나게 되는 각자들이 자기 자신을 허물고 새로 세우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질적 연구에서 라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맺기에 있어, ‘엄마’의 다른 얼굴들을 만나게 된 것이 연구 과정과 의의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나의 어머니의 취미교실 참여, 그것에 대한 선부른 예측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변화해왔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예컨대 호칭에서부터 내가 어떤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중년 여성들과 얼마나 한정된 관계만을 맺어왔는지 드러났다. “아주머니”라는 호칭은 너무 거리가 느껴지고, “언니”라고 부르려니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느낌에 어색했다. 이지영의 제안으로 “선배”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그것도 입에 쉽게 붙지 않았다. 취미교실의 교육을 방해하는 문화는 연구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행동에서 이미 묻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참으로 부족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이민자, 외국인과의 결혼, 그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2세들의 증가가 다문화에 대한 지금의 관심에 핵심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는 ‘민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연령 · 계층 · 성 · 장애 · 지역 등 이미 언제나 존재해온 차이들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될 때,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를 습관대로 보고, 습관대로 대하는 것은 삶과 교육의 괴리가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그러한 괴리를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눈, 그러한 눈을 통해 새롭게 보이는 세계는 내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

---

41) 연구일지를 바탕으로 학회 소식지에 실은 글(이아리따, 2012)의 일부.

적 연구에서의 라포 형성 과정과 다문화와 교육은 의미적 연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고자 하는 의지 없이 무리 중 하나로서 상대를 대할 때, 그는 다채로운 얼굴 대신 문화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머문다. 서로의 삶에 다가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의 우리는 누군가를 그저 익숙한 이름으로 대하고, 나 또한 그 정도로 대해지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아줌마’ 담론도 그러한 이름 짓기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선부른 짐작과 일반화 대신 무지(無知)에 대한 인정과 차이에 대한 주목으로 관계를 시작할 때, ‘아줌마’는 어떤 이름도 다 담지 못 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알려온다. 가능성을 품은 존재로서 중년 여성의 성장 욕구, 그 욕구를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를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연구를 갈무리하려니 여러 아쉬운 점들이 떠오른다. 이 아쉬움은 무엇보다 나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붙잡고 있는 것 또한 모자람의 반증일 것이다. 연구자 개인의 미숙함이든 연구 설계와 방법에서 비롯된 한계이든, 글의 마지막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존재론적 성장 과정과 맞닿아있는 만큼, 연구자들의 공동체를, 학문공동체의 성장을 중요한 기반이자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연구의 한계와 다음 연구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를 위해 나는 내 눈을 낮설게 하고, 미처 알지 못 했던 차이에 주목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 자신에 갇혀있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이었다. 연구참여자와의 관계가 차츰 형성되어 가면서 그들 사이의 차이, 그들과 다른 이들 간의 차이 무엇보다 나와 그들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나를 보는 일이 생겼다. 예컨대, 이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야기 되었다. 간혹 어머니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쉽게 공감하고 해석을 보완했다. 앞뒤가 안 맞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할 삶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중년 여성들이 공유하는 문화, 이들의 성장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내가 50대 여성이 아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그들과의 다름 위에 쌓아지는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간 내 삶이, 나의 지평이 충분히 깊지도, 넓지도 못 했기에 그만큼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을 이

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또한 ‘중년 여성’으로 묶였을 때 삭제되는 연구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혹은 이들과 다른 여성들 간의 차이를 얼마나 충분히 고려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이 연구는 부족함이 많다. 연구 과정에서 나는 사례성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공감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가 얼마나 이 차이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지 여러 차례 깨달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 차이다. “너무 시골은 이런 [취미교실] 시설이 없으니까”라는 조문선의 말처럼 지역은 취미교실의 참여 가능성은 물론, 활동 선택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사는 지역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습 효능감, 학습자로서의 정체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의 경우만이 아니라, 지역 접근성 때문에 대도시, 특히 서울을 현장으로 삼은 연구들이 많다. 서울과 비서울의 구분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과 비서울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울에 사는 것이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간주되는 경향은 우선적으로 연구자인 나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나는 어릴 적에 서울에서 공주로 이사를 갔었고, 다시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런 나의 몸에는 서울과 비서울의 경계가 애매하고 모순된 형태로 새겨져있음을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연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면 나 또한 얼마나 길들여진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젊은 애들만 이렇게 놀러 다니며 설레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50대 아주머니들도 똑같이 노는 거였다. 절로 공주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다. 우리 엄마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며 가족은 잠시 잊고 엄마, 아내가 아닌 다른 모습의 나에 몰입하는 때가 있겠지. 그럴 때 우리 엄마의 표정에도 이 아주머니들처럼 소녀의 얼굴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괜히 찡해졌다. 도시에 있는 아주머니들과 달리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엄마는 다양한 나들이의 기회가 참 적겠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sup>42)</sup>

이 일기만 해도 그렇다. 여기에는 내가 길들여진 연령문화, 지역문화가 드러나

---

42) 2012년 1월 2일 연구일지 가운데 발췌.



있다. 이번 연구는 분명 ‘중년 여성’에 대한 나의 선이해가 변화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됐다. 하지만 어쩌면 이 연구가 하지 못 한 것들, 말하자면 한계들 또한 이 연구의 성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연구 덕분에 나는 내가 길들여진 문화들을 좀 더 민감하게,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비서울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계인이라고 느끼고, 다수의 연구들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나 또한 이번 연구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 했다. 서울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만난다고 해서 이 주제를 고려하지 못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하든, 장소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향후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는 장소성과 관련해 백화점 문화센터와의 비교를 통해 동사무소의 특이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를 통해 ‘구별 짓기’가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백화점 문화센터와 달리 높은 접근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동사무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동사무소 스타일”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간파,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를 통해 취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적 체험과 이를 방해하는 문화를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연구의 작은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동사무소 취미교실 내부에 존재하는 계층적 차이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 했던 것은 아쉽다. 기타교실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 가운데는 생계를 위해 시간제 업무,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해온 이들이 있었다. 일할 필요 없이 마음껏 자기 배우고 싶은 거 배우러 다니는 전업 주부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가게를 이어가고 그 중 얼마를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직장 여성이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조문선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직업, 가정, 취미교실 생활은 확연히 달랐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취미교실을 찾게 되는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꼽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서민층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 한다. 주 연구참여자로 만나고 싶었던 기타교실의 한 참여자는 연구 초기 한 번의 대화 이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일이 바빠 지각을 하더라도, 혹은 일찍 나가더라도 30분이나마 기타를 치기 위해 이곳을 찾는 그녀였는데 그마저 하기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나와서 대화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인지 이유를 알지 못 한다. 그녀의 솔직함과 열정, 성실함에 무척 감명 받았었는데 혹 그날의 대화로 내가 그녀의 기타 배우는 즐거움을 뺏은 건 아닌지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다. 취미교실을 찾는 많은 여성들은 시간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사람들이 교육에 몸을 기울이는 데 이러한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원하는 사례, 교육을 통해 삶을 이어나갈 힘을 얻는 사례도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산층, 중상층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혹은 다르게 나타났던 교육에 대한 열망, 교육에 참여하는 기쁨이 담겨 있다. 교육과 여유, 생존과 실존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이러한 계층별 특이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층의 여성들을 취미교실에서 만나기 어렵고, 간혹 있다고 해도 연구참여자로 장시간 면담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연구참여를 부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방어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 대한 연구가 보다 빈번히 행해진다. 교육학은 여유와 교육의 관련성 때문인지 더욱 저소득층의 자발적 교육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라도 다양한 계층별 특징을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역, 계층에 이어 연령에 대해서도 이 연구는 아쉬움과 아쉬움에서 비롯되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나이 들”이라는 주제는 여성들에게, 특히 노년기로 접어드는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자기효능감 및 학습 의지, 과거에 대한 해석 및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변화, 도전과 분리될 수 없는 교육의 특성 상 “나이 들”은 그들의 교육적 삶에 방해가 되는 면이 많았다. 그러나 “나이 들”의 과정은 ‘여성’, ‘엄마’ 등의 이름이 이들의 삶과 어울리는 양태가 달라지면서 ‘나’로 거듭나는 홀로서기의 전환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며 취미교실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지영으로부터 여성의 삶과 교육의 관련성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연구 후반 알게 된 70대의 두 여성은 삶과 교육의 관계가 어떤 변화의 곡선을 그려왔는지 취미교실 참여를 매개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들은 50대의 홀로서기를 겪어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똑같은 삶 속에서 변화를 주는 게 삶의 비결”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이 들어서 힘들게 일은 왜 해?”라는 남편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답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으니까 막 두근거리더라.”며 구청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실에 참여한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연구참여자들보다 나이를 더 의식하지 않고 도전과 변화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이들은 정말 인상 깊었다. 이들은 어떤 생애사적 경로를 갖고 있을까? 취미교실 참여는 이들의 지금과 같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나의 연구참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가 더욱 궁금해진다.

추측해보자면,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성장 욕구, 좀 더 잘 살고자하는 마음과 그를 위한 실천들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살아있는 한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쓰여질 이야기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변화시킨다. 심지어 과거의 나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교육은 멈추지 않을 삶의 이러한 과정에 ‘좀 더 나은’ 이라는 방향이 더해진 삶의 형식이다. 개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받는다.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성, 연령, 직업, 계층, 학력 등과 상관없이 성장에 대한 욕구, 교육에 대한 욕구가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길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사회·제도·문화적 변화, 향후 학문세계의 역할이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나이 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계속되는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몸소 보여준 연구참여자들은 우리의 삶이 이미 이러한 교육과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교육다운 교육', 그러한 교육에 친화적인 문화는 어떤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나와 “교육에 관심 없다”는 한 ‘아줌마’가 용기 내어 현재의 나를 허물고자 손을 잡는, 딱히 매우 특별할 것은 없는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교육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조문선 :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번 [재즈 댄스]해봐? (웃음)

연구자 : 그럴까요? 정말? (웃음)

조문선 : 요가 2월 달까지는 해야 하잖아.

연구자 : 요가 끝나고. 같이 갈까요? 혼자 가기 두려운데.

조문선 : 그러게. 해보지 뭐.

연구자 : 춤 배우는 거 처음인데. 따라할 수 있을까요?

조문선 : 그냥 우린 뒤에 가서 따라하면 되지, 일단. (웃음)

일상 저 편 멀리에서 이상적인 교육을 찾고자 애쓰던 나에게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삶 과 함께 하고 있었던 교육에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었다. 연구참여자의 것이라 여겼던 교육에 대한 두려움, 걱정, 표면적 이해는 그들과 대화하는 나의 이야기 곳곳에서도 발견되었다. 위의 조문선과의 대화에서처럼 오히려 그들의 용

기있는 제안이 나를 낯선 세계로 안내하기도 했다. 그들 덕분에 나는 ‘교육’이라는 말이 오히려 교육을 왜곡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들도 종종 교육을 놓치고 일상에 빠진 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를 통한 나의 배움이, 취미교실 참여를 통한 그녀들의 배움이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나와 그녀들의 일상은 이전의 일상과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 난 무엇을 배울 수 있지?”라는 교육을 삶의 전경에 두는 연습, 그리고 그렇게 해본 경험은 미미해보이나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교육 운동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대중 (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pp. 201-223.
- 강선영 (2010) 중년여성의 삶과 신체형 여가활동 의미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2). pp. 97-106.
- 강형철 (2011) 씨니. CJ E&M Pictures.
- 고종태·정미경·김혜선 (2008) 평생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 인식 및 죽음불안태도와의 관계 연구. 평생교육연구, 14(2). pp. 61-86.
- 곽삼근 (2001) 여성의 문화활동유형과 평생교육요구에 관한 사례연구.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4(2). pp. 35-60.
- \_\_\_\_\_ (2005) 여성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 한국여성평생교육회 (편) (2005) 여성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p. 11-31.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09) 2009 평생교육백서요약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9) 평생학습실태조사보고서.
- \_\_\_\_\_ (2010) 평생학습실태조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
- 김경민·한경혜 (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pp. 211-230.
- 김민화·민경환 (2007)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pp. 1-21.
- 김신일 (2005)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패러다임. 평생학습사회, 1(1). pp. 151-169.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3) 아줌마들이 만드는 탈성별화의 세상을 기대하며. 생각의나무(당대) (2003) 당대비평, 24. pp. 174-192.
- 김정명신 (2003) 내게 다가올 50살 : 중년 여성의 목소리, 나이와 몸. 생각의나무 (당대) (2003) 당대비평, 24. pp. 193-202.
- 나윤경 (2007)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한 여성인력개발센터교육 프로그램. 평생교

- 육연구. 13(1).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84. pp. 12-39.
- 박혜란·조혜정·고영애·장필화·이승선 외 6 (1990)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부. 또 하나의 문화 (편) (1990) 또 하나의 문화 『주부, 그 막힘과 트임, 6.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pp. 17-43.
- 배수옥 (2005)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학습공간으로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한 중산층 전업주부의 교육생애사 : 백화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 pp. 23-45.
- 서근원 (2007) 교육학으로서의 교육인류학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0(2). pp. 1-40.
- 서덕희 (2009) 문화와 교육 개념의 실존성: ‘살아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12(2). pp. 1-44.
- 서동욱 (2007) 흔적과 존재 : 데리다 해체의 기원으로서 하이데거. *철학과 현상학 연구*, 33. pp. 69-90.
- 서동진 (2005) 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본 한국자본주의 전환과 주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 (2010)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pp. 119-140.
- \_\_\_\_\_ (2010) 기러기 엄마와 조기유학 어린이의 삶.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14(5). pp. 367-386.
- 오동숙 (2002) 중년여성의 사회봉사 활동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의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YBM 사전 편집실. (2003)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YBM books.
- 이경희·박성희 (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2(3). pp. 73-95.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동현·김승철 (2003) 중년여성의 여가 스포츠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pp. 127-148.

- 이숙경 (2001) 담배 피우는 아줌마 : 이숙경이 만드는 신나는 아줌마 세상. 서울 : 동녘.
- 이아리따 (2012) 질적 연구자 되기 : 초보연구자의 ‘왕따’ 탈출기. 교육인류학소식, 18(2). pp. 13-16.
- 이혜경·정진웅·김창엽 (2003) 좌담 : 성공을 욕망하는 위기의 중년. 생각의나무(당대) (2003) 당대비평, 24. pp. 155-173.
- 이호열·김준희 (2010) 생활무용 참여프로그램에 따른 중년여성의 여가만족과 지속적 참여의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pp. 95-103
- 장상호 (2005) 학문과 교육 (중-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미경 (2009)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5(1). pp. 127-154.
- 조옥라 (2001) 한국사회에서 나이 들, 그리고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편) (2001)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pp. 21-32.
- 조용환 (1997) 사회화와 교육. 교육과학사.
- \_\_\_\_\_ (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_\_\_\_\_ (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pp. 1-27.
- \_\_\_\_\_ (2008) 주론 3 : 현상학적 환원, 기오재 공동학습 자료 20080708. 미출간.
- \_\_\_\_\_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교육개발연구원.
- \_\_\_\_\_ (2010) 교육인류학의 눈으로 본 다문화교육: 존재론적 접근. 한국교육인류학회-다문화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 \_\_\_\_\_ (2012a) 주론 2 : 교육, 비교육, 무교육. 기오재공동학습 자료 20120508. 미출간.
- \_\_\_\_\_ (2012b)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pp. 1-22.
- 조혜정 (1990) 가정과 사회는 여성의 힘으로 되살려질 것인가. 또 하나의 문화 (편) (1990) 또 하나의 문화 『주부, 그 막힘과 트임』, 6.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pp. 45-68.
- 한국통계청 (2011) 한국통계연보. <http://www.kostat.go.kr>
- Alheit, P. & Dausien, B. (2007) *Lifelong learning and biography: A competitive*



- dynamic between the macro- and the micro level of education.* In L. West, P. Alheit, A. S.
- Bourdieu, P. (1984)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 de jugement.* 최중철 (역)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 새물결.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hn Wiley&Sons Inc.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역)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 Chase, S. E. (2011) Narrative inquiry : Still a field in the making.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1) *Qualitative research.* 4th. SAGE Publications. pp. 421-434.
- Colyar, J. & Holley, K. (2010) Narrative theory and the construction of qualitative texts. Savin-Baden, M. & Major, C. H. (eds). (2010) *New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Routledge. pp. 70-79.
- Daniels, J. (2008) Negotiating learning through stories:mature women, VET and narrative inquiry.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48(1). pp. 93-107.
- Merleau-Ponty(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류의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 Deleuze, G.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 Gilles Deleuz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상환 (역) (2006) 차이와 반복. 민음사.
- \_\_\_\_\_ (1969) *Logique du sens.* Paris : Éditions de Minuit. 이정우 (역) (2000) 의미의 논리. 한길사.
- \_\_\_\_\_ (1988) *Le pli : Leibniz et le Baroque.* Paris : Éditions de Minuit. 이찬웅 (역) (2004)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지성사.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Paris : Éd. du. Minuit. 김성도 (역) (1996) 그라마톨로지. 서울 : 민음사.
- Eric Booth (2001) *The everyday work of art: awakening the extraordinary in your daily life.* iUierse.com,Inc. 강주현 (역) (2009)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에코의 서재.
- Gadamer, H. G. (2000) *Erziehung ist sich erziehen.* 손승남 (역) 교육은 자기

- 교육이다. 서울 : 동문선.
- Freeman, M. (2007) Autobiographical understanding and narrative inquiry. Clandinin, D. J. (ed.).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SAGE Publications. pp. 120-145.
- Geerts,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Books. 문옥표 (역) (1998)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 Marcus. G. E & Fischer. M. M. J.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유철인 (역) (2005) 인류학과 문화비평. 대우학술총서.
- Han, B. C. (2011)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 Matthes & Seitz. 김태환 (역) (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까치.
- Jackson, A. Y. (2009) 'What am I doing when I speak of this present?': Voice, power, and desire in truth-telling In A. Y. Jackson & L. A. Mazzei (eds.). (2009) *Voice in qualitative inquiry : challenging conventional, interpretive, and critical conceptions in qualitative research*.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165-174.
- Lucius-Hoene & Deppermann. (2002) *Rekonstruktion narrativer identit : ein arbeitsbuch zur Analyse narrativer Interviews*.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박용익 (역) (2006) 이야기 분석. 서울 : 역락.
- Muhlbauer, V. & Crisler, J. C. (eds). (2007) *Women over 50: Psychological perspectives*.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김종남 (역) (2011) 심리학으로 바라본 중년여성의 심리. 학지사.
- Ph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강현석 외 (역)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 Roets, G. & Van Hove, G. (2003). The story of Belle, Minnie, Louise and the Sovjets: throwing light on the dark side of an institution. *Disability&Society*, 18(5). pp. 599-624.
- Rogers, A. G. (2007) The unsayable, Lacanian psychoanalysis, and the art of narrative interviewing. Clandinin, D. J. (ed.). (2007) *Handbook of*

- Narrative Inquiry*. SAGE Publications. pp. 99-119.
- Sartre, J. P. (1943) *L'Être et le néant*. Bibliothèque des idées. 정소성 (역) 존재와 무. 서울 : 동서문화사.
- Semetsky, I. (2006) *Deleuze. Education and Becoming*. Rotterdam : Sense publishers.
- Sharp, D. (1992) *(The)Survival papers* Sharp. 류가미 (역) (2008) 웅, 중년을 말하다 : 중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 서울 : 북북서.
- Tedlock, B. (2011) Braiding narrative ethnography with memoir and creative nonfiction.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1) *Qualitative research*. 4th. SAGE Publications. pp. 331-340.
- Tim Burton (2003) *Big Fish*. Columbia Pictures Presents.
- Van Man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Canada: Uni. of Western Ontario. 신경림·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서울: 동녘.
- Willis, P. E. (1977) *Learning to labour :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Farnborough, Eng. : Saxon House. 김찬호·김영훈 (역) (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서울 : 이매진.
- Yi-Fu Tuan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구동회·심승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 Abstract

### A narrative research on middle-aged women's lived-experie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hobby class.

Lee, Aritta

Major Advisor: Jo, Yong-Hwan, Ph.D.

In this study, I aimed to understand middle-aged women's lived-experience at the hobby class. In detail,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were based on three interests . At first, I wanted to understand what middle-aged women's physical, mental and social transitions mean to themselves. Second, I wanted to understand the hobby class which are especially managed by a local self-governing body in terms of its educational meaning. This aim came from a need for critical reflection on the explanation that housewives' participation in the hobby class meant just 'hobby' for an individual, especially like "A-Jum-Ma discourse". Also, it came from looking for a possibility of the hobby class as a public life-long learning place which had good accessibility because of its inexpensive cost and wide distribution throughout the country. Third, I wanted to reflect 'education' through middle-aged women's narratives. I had participated in two hobby classes(Guitar and Yoga) from June 2011 to June 2012 with the aim of studying these interests. One 50-aged woman from yoga class and two 50-aged women, one 60-aged women from guitar class were main study participants.

I tried to know about the meaning of their participation for themselves. I considered their narrative while focusing on the reason why they started their hobby classes, the good points and bad points of the joining and in specially, the way they expressed themselves about hobby class. As a

result, I knew that four women came to hobby classes for different reasons, joining differently and having different plans about them. It was related to their own life contexts and situations.

In considering their narratives more deeply, I used two frames and analyzed the structure of narratives. One wa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everyday-life, body, time, space and relation. I used this for looking for the common theme of their life. And my second frame was 'différance' for considering the dynamics of differences, because I knew that identity, education and the feeling about hobby classes including behavior, recognition could be different and also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and context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ed. First, according to the four elements of phenomenological existence, I found as the first theme "because of getting old" in the body experience and as the second theme "too busy no reason" in the time experience. As the third theme, "depressed in home" in the place experience and as the last theme "the relation which makes me happy"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Second, according to 'différance', I could know that they had two identities. One was "mom" and the other was "myself". Especially,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they felt they should choose only one of them. As they became middle-aged, however, they tried to look for harmony between "myself and mom". In addition, their understanding for educat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situation and context. What I found out was the concept of education as common sense through their attitude. "not necessary", "afraid", "not interesting" were common. And those were related to their identity as "old woman", "house wife" and the culture of education giving undue value to the evaluation and the result. But I also found out that they also told that "teacher is important", "after all, learning depends on myself", "needs time", "learning is difficult but interesting". It was from their lived-experience at the hobby classes.

In the last, the way of joining the hobby class was related to their situations which they prefer to between work, home and hobby. If they have preferred work or home, they would join the hobby classes passively and not regularly. In contrast, if they have preferred hobby, they would join more actively and continuously. In this case, the hobby could have educational meaning. And the hobby class could be an educational place

and the relations in there could be educational.

In this context, I did interpret and suggest focusing on the three issues; 'middle-aged women', 'hobby class' and 'education'. I studied it in terms of critical woman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anthropology which helped 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culture and education. Especially, my alertness to the preceding studies which were focusing on the middle-aged women as the object for solving problems or judging functions of 'education program' was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my work. In contrast from these, I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ontologically approach middle-aged women and their education. As in the many preceding studies, the life of women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families. Unclearly, I had tried to prove the hobby class's educational role. But after hearing detail narratives from the participants, I recognized that its educational meaning had been changed continually through all their life. At the hobby class, they had a lived-experience, that is, "challenging to a new world". And through this, they could find themselves as a "learner", "challenger" and "performer" not just as "old women" and "those assessed". The 'standing alone' of middle-aged women is encouraged by this lived-experience and vice versa. Of course, the hobby class is not the only place where these women can find the meaning of their own life or they can grow without being neglected. It should not be. In the long term and socially, it is also important that all women must not be neglected no matter which they focus on their home, work or something.

The good points of the hobby class were not different from its bad points. In other words, unsystematic management and curriculum were "flexible", "not burdened" as good points. But such complaints as "just trying" and "difficult to follow the class because of the unsuitable levels" also came from the so-called "dong-office style". Getting familiar with the education for evaluation prevented them from looking for an educational meaning and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hobby class. So, it is needed to reflect these cultures and try to find more tangible changes and growth in a hobby class as a lifelong learning place.

Next, I put my idea about education into shape. Participants emphas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as they told that "teacher is important". They emphasized learner's subjectivity as they told "after all, it

depends on myself". Also they talked about the ripening time for education as telling "(it) needs time". Lastly, they had been learning that the participation in education is "difficult but interesting". Such findings helped me to understand what the education is. Also, I learned that their interpretation/practice for education was a learning experience itself that pulled down their old concepts of education and built a new one. Some women who I met through this research had changed to join the hobby class as an active one with productive learning not as passive one with wasteful learning. The encouragement and stimulation from classmates with whom they shared their desires and concerns for more meaningful life made them have a new hope for hobby classes. If they didn't express the experience above as 'education', my role as a pedagogical student would be to find out a way that our life goes along with education more integrally.

Key word : middle-aged woman, hobby class, educational lived-experience, ontological education, woman life-long learning.

Student ID : 2009-21421